

석사학위 청구논문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지도교수 송 성 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강 만 익

2001년 8월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제출자 강 만 익

강만익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국문초록 >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 研究

강 만 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분포변화와 공간범위〔방목권〕 복원을 중심으로 목장의 경관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목장의 기원은 13세기말 몽골에 의해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지역에 형성된 탐라 목장에서 비롯된다. 15세기초부터 高得宗의 건의로 중산간 지역에 잣성의 축조와 재정비를 통해 중산간 목장인 十所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제주도의 관설목장은 十所場·山馬場·牛牧場·別牧場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들 관설목장들은 마정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마정조직은 피리미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濟州牧使·監牧官·馬監(牛監)·群頭·群副·牧子들로 구성되었다.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의 위치를 보면, 제주목에는 1소장부터 6소장까지 그리고 대정현에는 7소장과 8소장이 있었으며, 정의현에는 9소장과 10소장이 있었다. 그리고 산동부의 산간지대에는 산간목장으로 산마장이 형성되었으며, 영정조대에 針場, 上場, 鹿山場으로 분화되었다. 牛牧場으로는 毛洞場, 川尾場, 黃泰場이 있었다. 이밖에 별목장으로 우도장과 가파도 별둔장이 있었다. 목장간의 경계는 주로 하천·잣성·측화산 등의 가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제주삼읍도총지도>, <탐라순력도>, <제주삼현도> 등의 자료와 현대의 지형도를 토대로 목장의 공간범위를 복원한 결과, 제주목 지역에서 1소장의 공간범위는 구좌읍의 중산간 지역, 2소장의 범위는 조천읍 중산간 지역, 3소장은 제주시 회천동에서 오등동에 걸친 중산간 지역, 4소장의 범위는 제주시 연동에서

해안동에 걸친 중산간 지역, 5소장의 범위는 애월읍의 광령리·고성리·유수암리 중산간 지역, 6소장의 범위는 애월읍의 어음리·봉성리 그리고 한림읍의 금악리 중산간 지역에 설정되었다. 대정현 지역에서 7소장의 범위는 안덕면의 중산간 지역, 8소장의 범위는 舊中文面의 중산간 지역 그리고 정의현의 9소장 범위는 구 서귀읍 중산간 지역·남원읍·표선읍의 중산간 지역, 10소장의 범위는 표선면 성읍리 지역에 각각 설정되었다.

목장의 자연경관 요소로는 측화산·하천·곶자왈·초지대·화산회토가 포함되며, 인문경관 요소로는 屯馬場·避雨家·도(梁)·못(池)·圓場과 蛇場이 있었다. 특히, 둔마장과 피우가, 못은 목장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물이었다. 둔마장은 목장의 관리본부에 해당되며, 피우기는 풍우설을 피하기 위한 가옥, 원장과 사장은 말을 점검하기 위한 원형의 木柵 시설이며, 梁은 '도'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출입구로 목장과 촌락을 연결시켰던 통로를 의미한다.

목장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잣성은 하잣성·상잣성·중잣성으로 구분되며, 15세기초부터 하잣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8세기말에는 상잣성이 축조되었다. 중산간 지역에 남아있는 잣성을 지형도에서 분석해 본 결과, 약 60km가 남아있으나 훼손상태가 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존상태가 양호한 잣성은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잣성은 겹담구조로 축조되었으며, 상잣성과 중잣성은 겹담 또는 외담구조로 형성되었다.

잣성의 축조는 해안지역의 촌락에 일정한 범위를 할당하여 이루어졌으며, 하잣성은 해안지역의 농경지와 중산간 방목지의 경계부근을 따라, 그리고 상잣성은 중산간 지역의 방목지와 산간지역에 형성된 삼림지대와의 경계부근에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잣성의 기능은 목장의 상·하 경계선뿐만 아니라 방목중인 말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장경관을 설명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관설목장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었는지, 각 목장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배경 하에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각 목장이 지니는 성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장의 형성·발전과 그에 따른 경관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2. 연구범위와 연구동향	4
II. 관설목장의 입지와 분포변화	12
1. 탐라목장의 형성과 입지특성	12
2. 조선전기 중산간 목장의 분포	16
3. 조선후기 목장의 분포와 변화	20
1) 중산간 목장	20
2) 산간목장	26
3) 해안·도서목장.....	30
III. 관설목장의 공간범위.....	32
1. 중산간 목장의 공간범위	32
1) 제주목의 목장	32
2) 대정현의 목장	46
3) 정의현의 목장	51
2. 해안목장의 공간범위.....	57
3. 산간목장의 공간범위.....	59
IV. 관설목장의 경관특성.....	63
1. 자연경관의 특성	63
2. 인문경관의 특성	65
1) 避雨家와 屯馬場	65
2) 못(池)과 도(梁)	70
3) 잣성	78
4) 圓場	84
V. 요약 및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6

표 목 차

표 1. 『南宦博物』에 나타난 목장의 분포	23
표 2. 제주목 지역의 측화산 분포	33
표 3. 대정현·정의현 지역의 측화산 분포	46
표 4. 중산간 목장의 둔마장 추정지	66
표 5. 소장별 못(池)의 분포	71
표 6. 소장별 도(梁)의 분포	74
표 7. 표본조사한 잣성의 위치와 형태	8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지역의 공간범위	5
그림 2. 고려말의 탐라목장과 현촌의 위치	14
그림 3. 조선전기 제주도 목장의 분포	19
그림 4. 18세기 초의 목장 분포	22
그림 5. 제주도의 3읍별 말의 수 변동	24
그림 6. 산마장의 지역적 분포	28
그림 7. 1소장의 공간범위	35
그림 8. 2소장의 공간범위	36
그림 9. 3소장의 공간범위	38
그림 10. 4소장의 공간범위	39
그림 11. 5소장의 공간범위	43
그림 12. 6소장의 공간범위	44
그림 13. 7소장의 공간범위	48
그림 14. 8소장의 공간범위	49
그림 15. 9소장의 공간범위	52
그림 16. 10소장의 공간범위	53
그림 17. 우목장의 공간범위	58
그림 18. 산마장의 공간범위	61
그림 19. 제주도 관설목장의 공간범위	62

그림 20. 고지도에 나타난 목장의 경관요소	67
그림 21. 잣성 공간의 토지이용 모식도	80
그림 22. 접마용 원장과 사장의 형태	88

사 진 목 차

사진 1. 목장의 초지와 측화산 경관	64
사진 2. 목장의 경계선으로 활용된 하천	64
사진 3. 마을 공동목장 내의 못.....	72
사진 4. 6소장의 출입구였던 長三梁의 위치	72
사진 5. 번널오름 하жат성	85
사진 6. 위미리 공동목장에 위치한 하жат성	85
사진 7. 민오름(봉개동) 상жат성	86
사진 8. 3소장의 월평동 중жат성	86

I. 서론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필요성과 연구목적

최근에 '世方化(glob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최근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지역연구의 조류는 이미 전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아직도 '가시 덩불에 묻혀 있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연구지역인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 문화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牧畜文化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산간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발 200m~600m 일대에 해당된다. 또한 제4기의 용암분출로 인해 용암평원이 형성된 이후, 수많은 측화산들과 인공극상의 2차 초지대가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이 초지대는 고려시대부터 인간과 가축에 의해 삼림식생이 변화되면서 목축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공간이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마을 공동목장이 형성되어 목축 활동이 전개되어 온 지역이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는 官設牧場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고려말 원에 의해 형성되었던 탐라목장의 관리·운영체제를 배경으로 성립된 것이다. 중산간 지역에서 관설목장의 형성은 곧 목장경관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장경관은 해방 이후, 정치적 사건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으로 인해 목축의 근거지였던 중산간 지역의 취락이 대부분 파괴됨에 따라 목축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제주도 개발정책에 편승한 외지자본이 목장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취락에서는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된 결과, 목장경관이 소멸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일부 목장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중산간 산록도로 주변에 위치한 목장지역의 일부가 감자, 도라지 등의 재배지로 전환되는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축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제주도 축산업 역시 그 기능이 약화되는 동시에 전통적인 목장경관도 점차 소멸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문화가 누적된 목장경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장경관의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목축기반이 형성된 조선시대의 목장경관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을 역사지리적 입장에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十所場, 山馬場, 牛牧場을 대상으로 관설목장의 분포변화와 공간범위 및 경관요소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적 증거, 경관적 특성, 지도 및 과거기록에 의존하여 지표현상의 변천을 연구하는 전통적 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¹⁾ 관설목장의 경관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리학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연구는 역사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로 이어져 왔다. 이것은 경관이 문화의 표현이자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이 오랜 세월을 두고 적응하며 이룩해낸 가시적 표출물인 동시에²⁾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 축적물이기 때문이다³⁾.

이러한 경관은 시간을 통해서 지표 상에 형성된 집합적 형태로, 사회·문화적 신념, 관습, 제도 및 기술을 반영한다⁴⁾.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

1) W. Norton(1984),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 p.39.

2) 沈錦燮(1993), “上溪·中溪·下溪地區의 景觀變化”, 東國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p.1.

3) 이혜은(1994), “朝鮮時代 以後 서울의 土地利用과 景觀變化”, 『서울의 景觀變化』, 서울학연구소, p.198.

한 경관개념을 기초로,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장경관을 대상으로 거기에 반영된 목축환경과 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헌자료 및 각종 고지도에 대한 실내조사와 함께 현재 유물경관으로 남아있는 잣성에 대한 현지답사 및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주민들과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지도화와 도표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문헌자료에는 각종 지리지와 읍지 그리고 여행기가 있다.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誌』, 『高麗史』, 『濟州邑誌』, 『知瀛錄』, 『南宦博物』, 『南槎錄』에서 관설목장의 공간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과 『韓國馬政史』(1996, 남도영)를 토대로 관설목장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선후기 관설목장의 공간범위를 복원하기 위해 고지도인 〈濟州三邑都摠地圖〉, 〈濟州三邑全圖〉, 〈耽羅巡歷圖〉, 〈濟州三縣圖〉, 〈濟州地圖〉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1:5,000 지적도와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잣성의 위치확인 및 목장의 경계복원을 시도하였다. 또한,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1998, 오창명)과 각 마을별 鄉土誌를 근거로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들을 현재화한 다음, 이를 지형도에 적용시켜 관설목장의 공간범위를 복원하였다. 목장의 공간범위(방목권) 복원에는 측화산, 하천, 잣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제주도 중산간 목장의 상·하한계선에 해당되었던 잣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였다.

또한 문헌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지역을 수 차례 답사하였다. 현지답사는 조선시대의 잣성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목장의 공간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중산간 지역의 촌락에 거주하면서 과거 '테우리(牧童)'로 중산간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촌로들과 면담을 통해 잣성과 도(梁), 屯馬場의 존재유무와 목장간의 경계 등 관설목장의 여러 경관요소에 대한 사항들을 채록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견되는 비문과 유물경관들을 사진에 담아 자료화하였다.

4) Mike Crang(1998),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14-15.

2. 연구범위와 연구동향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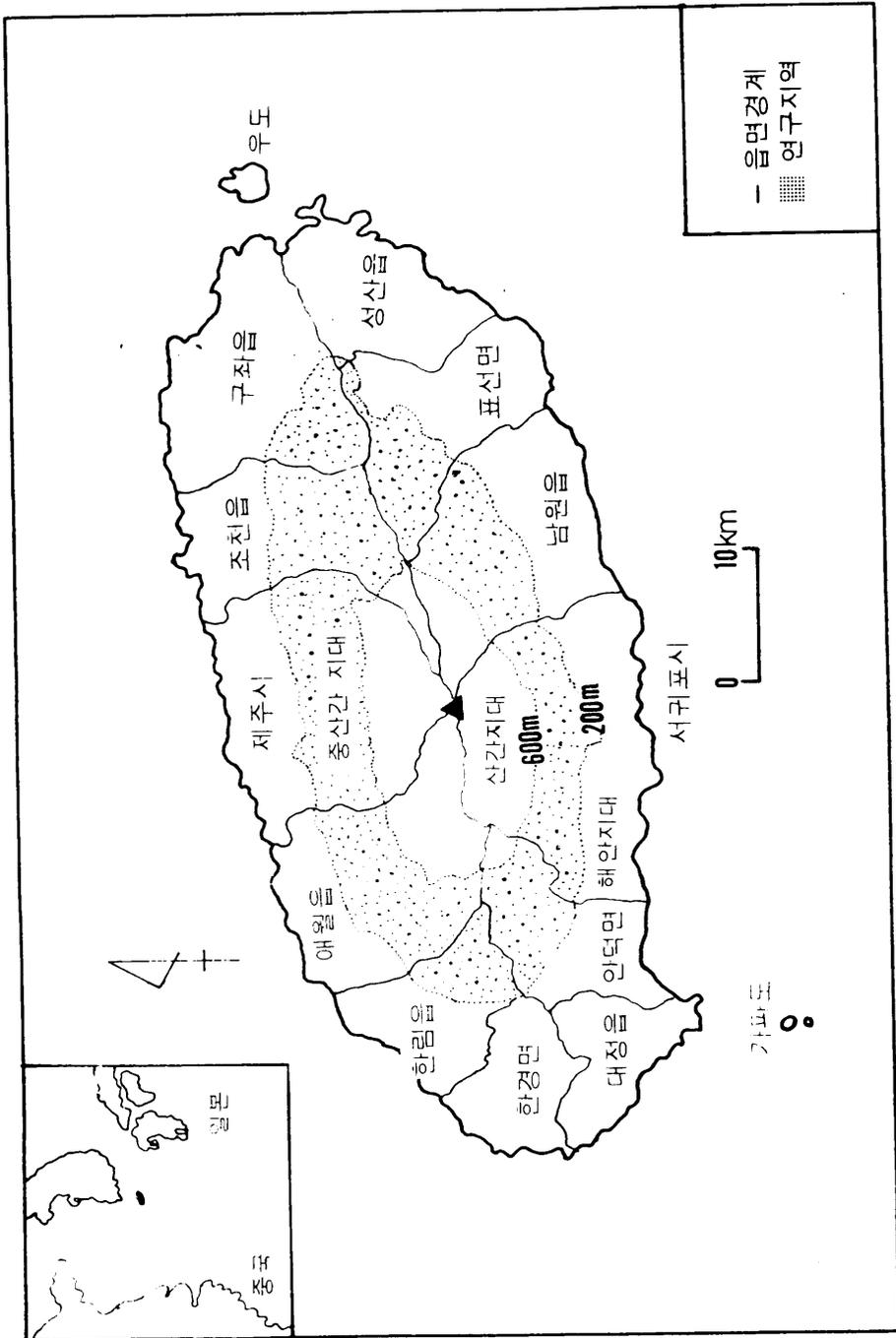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중산간 지대이다. 이 지대를 주된 연구범위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관설목장이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장경관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 4.3'으로 인해 인명 및 가축피해가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광활한 목장지대에 부동산 투기현상이 발생하여 공동목장이 매각됨에 따라 중산간 지역의 경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변화의 모습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장경관의 분석을 위해 관설목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중산간 목장인 十所場을 중심으로 목장경관을 분석하였으며, 山馬場과 牛牧場 역시 관설목장을 구성했던 경관요소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金萬鎰의 목장으로 대표되었던 조선후기의 사설목장은 관의 통제를 받았으며 대규모 목장으로 발전되기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주로 조선시대이다. 역사지리학에서는 경관변화의 연속적인 단계에 있는 어느 한 시기를 하나의 단면으로 끊어 복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므로⁵⁾, 이 연구에서도 조선시대라는 특정시대를 연구시기로 설정하여 목장경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관설목장의 경관으로 대표되는 제주도 전통적인 목축경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목장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시대를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전·후기로 구분한 다음, 목장지역에서 발생한 경관변화를 비교하였다.

5) 柳濟憲(1989). "地域歷史地理學과 文化生態學", 『문화역사지리지』 創刊號,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p.55.

<그림 1> 연구지역의 공간범위



2) 연구동향

제주도의 목장 또는 목축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지리학·역사학·민속학·축산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인류학과 지리학에서의 연구주제는 방목형태·낙인법·糞田 및 목우·목마의 지역적 분포특성, 그리고 목마취락 및 화전농업과 목장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제주도의 전통적인 방목형태를 終年放牧, 계절적 방목, 舍飼로 구분하였다⁶⁾. 이 중에서 종년방목 형태에 속하는 '중산간 지대의 방목'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방목형태 중 종년방목을 永年放牧으로, 계절적 방목을 移牧 그리고 舍飼를 家飼로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사육된 목우의 분포는 지역차를 보여 남제주 중앙부(서귀·중문·남원)에 집중되었으며, 그 배경으로 이 지역은 한라산이 10월부터 4월까지 북서풍을 막아주는 온난한 지역인 동시에 용천수가 풍부한 자연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목우 사육의 최적지가 되었기 때문임이 밝혔다. 반면에, 목마의 분포는 북제주(구좌·조천·애월)에 집중되어 지역차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⁷⁾. 셋째, 조선시대 중산간 지역의 십소장 지역을 중심으로 목축업 종사자인 목자들의 거주공간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牧馬聚落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⁸⁾. 넷째, 오늘날 중산간 지

6) 泉晴一(1966).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pp.94-101. 여기서 終年放牧이란 연중 방목을 의미하며, 제주도에서는 해안지역의 휴한지 방목, 중산간 지대의 방목, 산지에서의 방목으로 구분된다. 휴한지에서의 방목은 해안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목축방식으로, 보리 파종에 필요한 糞田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분전이란 우마의 배설물이 쌓인 밭으로, 우마를 밭 안으로 몰고 들어가 배설물을 밭에 모은 뒤 이듬해 여기에서 보리를 파종하는 것으로, 척박한 토양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중산간 지대의 방목은 제주도의 가장 일반적인 목축형태로, 농번기에는 여러 가족이 합하여 牛馬群을 만들어 방목하는데, 종일 감시자(테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농번기가 끝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 가족으로 돌아가며, 이때는 수시로 방목상태를 보러간다. 겨울이 되면, 큰 눈 때문에 다닐 수가 없고, 하산시킬 수도 없으므로, 우마들을 좁은 휴한지로 몰아들인다. 산악지대에서 우마를 방목하는 형태는 상앗성 위에서 행해지는 목축방법으로, 때때로 관찰하러 갈 뿐 완전히 우마의 자유에 맡기는 방식이다. 계절적 방목이란, 봄부터 가을(4월~10월)까지는 공동으로 마을 공동목장에서 방목하고, 겨울이 되면, 가을에 한 겨울을 지낼 충분한 목초(출)을 베어 준비해 둔 집에서 마소를 키우는 형태로, 제주도에서는 移牧에 해당된다. 舍飼란 집에서 연중 사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7) 樺田一二(1976).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弘詢社, pp.48-66.

역의 초지대는 화입(방앳불)의 전통 및 주민들에 의한 화전농업의 전개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초지대를 배경으로 목축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⁹⁾.

역사학에서는 고려시대 탐라민의 목축형태, 元代의 탐라목장과 阿慕의 위치, 17·8세기 제주도 목자의 실태, 제주도 목장의 관리조직 및 경제기반에 대한 연구로 집약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제주도에 목축은 이미 10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고려시대로 들어와 말을 사육하는 탐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도로, 우마 사육이 성행하였으며, 제주도 전역에 걸쳐 울타리 없이 방목하는 목축형태가 나타났음을 밝혀냈다¹⁰⁾. 둘째, 원나라가 제주도에 탐라목장을 설치한 것은 1276년(충렬왕 2년)부터이며,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에 탐라목장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277년에 설치된 아막은 목장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牧舍였음을 지적하였다¹¹⁾. 셋째, 17·8세기 제주도 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牧子位田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목자들은 목우·목마의 役 이외에도 관가에 땀감 공급, 공물 징납까지도 담당하였다. 특히 同色馬의 징출로 인하여 破家의 지경에 이르는 목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²⁾.

넷째, 제주도의 마정조직은 濟州牧使·監牧官·馬監·群頭·群副·牧子로 이루어졌으며, 감시와 통제하에 공마 생산 및 사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도의 목장은 국영목장과 사목장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있다. 국영목장에는 十所場·山馬場·別屯場과 牛牧場이 있었으며, 私牧場에는 김만일

8) 吳洪皙(1974).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경희대 박사논문. pp.37-38. 목마취락의 예로 조선시대 중산간 지역의 취락이었던 조천읍 고래리·와흘리 고평동·대흘리 원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천읍 고래리는 산마장에서 목장관리를 담당했던 군두와 목자들이 거주했던 취락으로 보인다.

9) 金相昊(1979). "韓國農耕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基底 農耕文化의 考察". 『사회과학논문집』 4,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pp.81-122.

10) 金日宇(2000). 『高麗時代 耽羅史研究』, 新書苑. pp.149-187.

11) 高昌錫(1985). "元代의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 創刊號, 제주대 사학과. pp.5-16.

12) 朴贊植(1993). "17·8세기 濟州島 牧子의 실태". 『濟州文化研究』, 제주문화. pp.461-471. 同色馬란 馬籍에 올라있는 말과 동일한 색상의 말을 의미한다. 즉, 말이 폐사할 경우, 牧子가 폐사한 말의 가죽을 벗겨서 관가로 가져가면, 관에서는 馬籍에 적혀있는 말의 가죽색깔과 비교한 후 동일한 것이어야만 변상을 면해준다. 대개는 마적에 적혀있는 색깔과 같더라도 속이고, 馬籍에 적혀있는 것과 동일한 말로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 사목장이 있었다. 목자의 경제적 기반으로 牧場田과 지역민들이 부담하는 貢納과 徭役이 있었다¹³⁾.

민속학에서는 방목형태와 낙인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제주도에서의 방목형태는 종년방목과 계절적 방목으로 구분되며¹⁴⁾, 방목기술을 '곶치기'와 '번치기'로 분류하였다¹⁵⁾. 특히, 우마에 대해 이루어진 낙인은 목장별, 지역별, 가문별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낙인의 字形과 위치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을 밝혔다¹⁶⁾.

축산학에서는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에 대한 실태조사와¹⁷⁾ 마을 공동목장의 초지관리 및 식생상태의 조사¹⁸⁾, 그리고 목야지에서의 화입이 공동목장의 토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⁹⁾. 또한 제주도 조랑말의 사육동향과 특징 및 활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⁰⁾. 이밖에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남읍·명도암·서광리 관광목장을 사례로 관광목장 개발의 방향정립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²¹⁾.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목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문헌자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목장의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목장경관에 대한 분석은 역사사료에 의존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목축이 중산간 지대라는 공간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

-
- 13) 南都泳(1996),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박물관, pp. 351-420.
 - 14) 고광민(1998), "牧畜技術", 『濟州島의 民俗Ⅱ』, 제주도, pp.281-381.
 - 15) 고광민(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p.114., '곶치기'란 삼림 속에서의 방목형태이며, '번치기'란 공동목장에서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마소를 돌보는 방목형태를 말한다.
 - 16) 李榮培(1992), "濟州馬 烙印의 字形 調査(Ⅰ)", 『調査研究報告書』 第7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pp.131-155.,
_____(1993), "濟州馬 烙印의 字形 調査(Ⅱ)", 『調査研究報告書』 第8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pp.13-23.
 - 17) 金炯均(1974), "濟州道 部落共同牧場의 實態調査", 『韓國畜産學會誌』 제16호(4), pp.374-379.
 - 18) 金文哲·朴喜錫·李秀一·金泰久(1986), "濟州道內 마을 共同牧場의 草地管理 利用 및 植生狀態의 調査", 『韓國畜産學會誌』 제28호(8), pp.557-561.
 - 19) 鄭昌朝(1966), "濟州 牧野地 火入이 土壤成分에 미치는 影響", 『牧養』 創刊號, 제주대학 축산학회, pp.31-35.
 - 20) 강민수(1999), 『제주 조랑말』, 제주대학교 출판부, pp.25-208.
 - 21) 姜宣宗(1995), "濟州地域 觀光牧場 開發의 方向定立에 關한 研究-牧場地域 住民의 輿論調査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pp.1-104.

으므로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장경관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간환경의 속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목장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자료에 근거한 실내연구와 함께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특성이 제대로 구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일부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잣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잣성이 관설목장의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관설목장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산간 지역의 경관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의 첫 단계로서,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목장의 공간범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목장간의 경계를 선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점과, 상잣성에 대한 현장답사가 충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상한선 처리를 지형도상에서 삼림지와 방목지가 구별되는 해발 600m 일대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한계를 가진다.

3) 용어설명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중산간 지대란, 해발고도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지역구분의 하나로, 해안지대와 산간지대의 접이지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0m~200m 사이를 해안지대, 200~600m 사이를 중산간 지대 그리고 600m 이상을 산간지대라고 한다. 해안지대는 취락·농경지대, 중산간 지대는 방목지대, 산간지대는 삼림지대에 해당된다.

2) 官設牧場이란, 국가가 설치·운영했던 국영목장으로, 크게 十所場, 山馬場, 牛牧場으로 구성되었다. 私設牧場[私牧場]이란 개임목장으로 金萬鎰의 사목장이 대표적이다.

3) 목장경관이란, 목장지역에 형성된 가시적인 목축시설과 목장경관을 형성·유지시켰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목장을 구성했던 자연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목축활동의 결과 형성된 문화경관에 해당된다.

4) 중산간 목장이란 해발 200m~600m 범위에 설치되었던 목장으로 十所場(10개의 소장)을 말한다. 여기서 所場이란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大牧場 또는 馬政區劃으로서 그 안에는 字牧場[群 단위 목장]이 있었다. 목장의 개념에는 소장과 자목장이 모두 포함된다.

5) 字牧場이란 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烙印한 후 편성하여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所場에 포함되었다. 둔마란 25필 규모로 무리를 지어 방목되는 말을 의미한다. 1개의 자목장은 암말 100필과 숫말 11필로 구성되었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群]을 관리하였다. 조선후기에 제주도에는 李衡祥·李元鎭의 지적처럼 58~64개 목장이 존재하였다. 이때 목장은 자목장과 동일개념에 해당된다.

6) 산간목장이란 제주도의 지역구분에 의하면,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 형성되었던 산마장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산마장의 위치를 현재의 지형도상에서 분석한 결과, 해발 400m 이상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산간목장을 해발 400m 일대 이상부터로 보고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산마장은 제주도 동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영정조대에 針場, 上場, 鹿山場으로 분화되었다.

7) 해안목장이란 해안지역에 입지했던 조선후기의 牛牧場과 동일개념이다. 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했던 목장으로 대정현의 毛洞場과 旌義縣의 川尾場 그리고 제주목의 黃泰場이 있었다. 그런데 우목장 중에서 황태장은 해안지역이 아니라 중산간 지역의 1소장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안목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말 보다 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했던 우목장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해안목장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8) 꽃자왈이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곳[洞藪, 叢林]과 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磊野]이 결합된 용어로, 제주도의 동서부 중산간 지대에 발달하고 있다.

9) 屯馬場이란 목장의 관리본부로, 피우가·목자들의 가옥, 원장과 사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貢馬의 선정, 點馬(말을 점검하기), 烙印에 필요한 기능시설이 집합된 공간으로, 소장의 중심지였다. 避雨家란 비바람과 한파를 피하기 위해 둔마장 별로 배치했던 가옥이다. 圓場이란 말을 聚合하기 위하여 만든 원형 木柵이며, 蛇場이란 취합한 우마를 1 두 또는 1 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폭이 좁은 목책 通過路로 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래한 명칭이다.

10) 도(梁)란 목장의 하жат성을 따라 설치된 일시적인 출입구이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문을 開閉하는 '살채기' 문이 있었으며, 목장과 촌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중요하였다.

11) 잣성이란 중산간 지대에서 방목중인 말들이 해안의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에 環狀으로 쌓았던 石城으로, '잣' 또는 '잣담'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지대의 농경지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 의 경계부근에 하жат성 그리고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 산간지대의 삼림지와 의 경계부근에 상жат성이 겹담으로 축성되었다. 중жат성은 하жат성과 상жат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는 잣성이다.

Ⅱ. 관설목장의 입지특성과 분포변화

1. 탐라목장의 형성과 입지특성

고려시대에 제주도 전지역에서 말 방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려조정에서는 제주도의 말 사육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으며, 그 결과 말 사육에 따른 세금량이 전국의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많았을 정도로 우마 사육이 성행하였다²²⁾.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려 조정은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목장설치의 대상지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목장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말에 삼별초난이 발생한 후, 진도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삼별초군이 1273년경 여몽연합군에 의해 항과두리성 일대에서 진압된 후, 몽골군대의 일부가 제주도에 주둔하게 된다. 그 이후 몽골은 제주도를 몽골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1276년경부터 몽골에서 말 160필과 목축 전문가들인 牧胡들을 불러들여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 일대에 탐라목장을 설치하였는데²³⁾ 바로 이것이 제주도 목장의 기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목축의 시작은 제주도가 몽골의 목마장으로 된 13세기 후반부터이며, 이때 설치된 탐라목장은 몽골군에게 군마를 공급하였으며, 동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4세기말까지 유지되었다²⁴⁾.

해안지역에 입지했던 탐라목장은 점차 인간의 간섭(human impact)에 의해 형성된 중산간 초지대 지역으로, 공간적 확대가 진행되었다. 몽골(元)은 1296년에 탐라목장의 목축을 감독하기 위해 斷事官을 파견하였으며²⁵⁾, 1300년에는 耽羅總管府를 설치하였다²⁶⁾. 목장에서 생산되었던 말의 반출을

22) 金日宇(2000), 전계서, pp.150-156.

23) 『高麗史節要』卷十九, 忠烈王二年八月條., 高昌錫(1985), 전계논문, p.7.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匹來牧”.

24) 뿌리깊은 나무(1988), 『한국의 발견, 제주도』, p.112.

25) 『高麗史』 권31, 세가, 충렬왕 22년 2월조.

위해 唐浦(안덕면 대평리 포구)와 지금의 西歸浦를 출입항구로 만들었다²⁷⁾. 이때 고려는 제주도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해안지역에 縣村을 설치하였다. 제주도의 동부지역에는 현촌이 분포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이것은 동부지역의 수산평 일대를 중심으로 몽골의 탐라목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라목장의 위치는 성산읍 수산리 남서쪽인 首山坪 일대²⁸⁾ 즉, 대왕산~대수산봉 일대에 발달한 용암평원이었다. 이러한 탐라목장의 설치 장소에 대해 제주도로 유배 왔던 金尙憲은 '水山廢城'과 '馬屯'이라는 漢詩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찬 구름에 시든 풀이 荒城[수산진성]을 덮었는데 이것이 원오랑케 放馬하던 들이라네²⁹⁾. 曾問컨데 고려말에 이 고장을 잃었으니 원나라에 뺏겨서 목장이 되었다네. 좋은 말 萬무리와 힘 좋은 脚夫(목호)들과 낙타를 배에 싣고 천리길 보내왔네³⁰⁾."

몽골(元)은 제주도의 위치적 특성을 인식하여 탐라목장을 설치하였다. 즉, 제주도가 몽골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벌을 위해 군수작전상 일본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로 제주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동부지역의 수산평 일대를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에는 광활한 용원평원과 초지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편북풍의 방풍에 유리한 측화산군의 분포 및 겨울철 방목의 가능성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³¹⁾.

26) 李基白(1992), 『韓國史新論』, 一潮閣, p.214.

27) 陳祝三(1989), "蒙元和 濟州馬", 吳富尹 옮김, 『耽羅文化』 제8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p.146.

2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三十八, 旌義懸 古蹟條. "...水山坪 在水山西南高麗忠烈王時元塔羅赤來牧牛馬駱...". 탐라목장이 위치했던 수산평의 명칭과 위치는 <濟州>『朝鮮疆域摠圖』, <耽羅全圖>에 나타나 있다.

29) 金尙憲(1601), 『南槎錄』, 金禧東(譯)(1992), 永嘉文化社, p.162. "...寒雲衰草掩荒城 云是胡元放馬垆舊致牧奴多跋扈...".

30) 金尙憲(1601), 전계서, p.175. "...曾問麗季失茲鄉 輸與元家作牧場 良馬萬群并脚力 蒙駝千里送餘糧...".

31) 吳洪哲(1974), 전계논문, p.37.

한편, 몽골은 탐라목장을 설치하면서 목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1277년경에 東·西阿幕을 동·서부 해안지역에 설치하였다³²⁾. 동아막은 수산평에 설치되어 東道(동부) 지역의 목장을 관리하였으며, 서아막은 遮歸 즉, 현재의 한경면 고산리 지역에 설치되어³³⁾ 西道(서부) 지역의 목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막이 동·서로 배치된 것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공간분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아막이 동·서로 분화되어 입지한 것은 몽골의 탐라목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동·서부의 환경사지에 분리되어 입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서아막의 위치를 통해서 볼 때, 고려말 탐라목장은 남북지역보다는 동서지역에 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축에 유리한 환경사의 지형 조건과 초지환경이 남북지역보다는 동서지역에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동·서 아막을 통한 동서부 목장지역의 관리체제는 이후 濟州牧을 중심으로 東·西道縣을 설치하는 기초가 되었다³⁴⁾. 이처럼 행정단위가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화된 배경은 동서부 지역에 입지했던 탐라목장이 공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제주도에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³⁵⁾. 탐라목장의 설치 초기에 탐라민들의 목장근접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東·西阿幕으로 대표되었던 동서부 목장지역은 원나라 목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³⁶⁾.

32) 李元鎮, 『耽羅誌』, 建置沿革條, “...三年丁丑元立東西阿幕放牛馬 ...”. 여기서 아막이란 목장을 관할하기 위한 官衙 또는 목장지역을 의미한다.

33) 韓東龜(975), 『濟州島一三多の痛哭史』, 國書刊行會, p.166., 高山郷土誌發 行委員會(2000), 『濟州 高山郷土誌』, 泰和印刷社, pp.249-250., 『濟州 高山郷土誌』에 의하면, 서아막은 한경면 遮歸(지금의 고산리 七田洞을 중심으로 한 ‘맨처남밭’과 ‘허문밭’ 일대)에 설치되어 毛洞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며, 元의 목호를 따라 온 많은 사람들이 ‘칠전동(일곱드르)’을 중심으로 목마취락을 형성하고, 阿幕을 설치하여 목장을 관리하면서 생활 하였다고 한다.

34) 충렬왕 26년에 東·西道縣이 설치되고, 그 뒤 태종 16년에 東道縣은 旌義縣, 西道縣은 大靜縣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耽羅誌』 建置沿革條, “...二十六年庚子設東西道縣...”, 『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建置沿革條, 南都泳(1996), 전계서, p.370. 金泰能(1982), 『濟州島史論攷』, 世紀文化社, p.35.

35) 김일우(2000), 전계서, p.335.

36) 陳祝三(1989), 전계논문, p.150-152.

2. 조선전기 중산간 목장의 분포

1) 중산간 목장의 형성배경

조선시대에 있어서 말은 대내외적으로 驛馬 및 戰馬로 그리고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³⁷⁾.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고려시대의 목장을 재건하거나 몰과 목초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목장을 신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는 목장이 해안지역에서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되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목장지역을 중산간 지역으로 옮긴 배경은 첫째, 방목하던 말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서 목초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삼림지에서의 방목 필요성 때문이다. 즉, 삼림지 방목의 경우, 목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피서에 유리한 지역이므로 중산간의 삼림 지역에도 방목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산간 지역을 개간 제한지로 묶어 목장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농경지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축지를 확보하려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429년경에 제주도 출신의 관료였던 高得宗은 목장을 해안지대에서 중산간 지대로의 移設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³⁹⁾.

"한라산 번두리 사면 약 4息(120리) 되는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公私의 말을 가리지 않고 들여보내 방목하게 하고, 장내(목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居民 60여 호는 모두 장외로 옮기게 하여 소원하는 대로 땅을 떼어 주십시오⁴⁰⁾."

37) 南都泳(1980), "朝鮮時代の 地方馬政組織에 對한 小考", 『史學研究』 18호, 韓國史學會, p.135.

38) 『世宗實錄』 세종 16년 6월 을해.

39) 高橋公明(1990), "高得宗研究", 『耽羅文化』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275-296., 고득중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1414년(태종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의가 되었다. 1438년(세종23)에는 種馬進貢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39년에는 日本通信士로 가기도 하였다. 제주도 출신의 관료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목마장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0) 『世宗實錄』 권 45, 세종 11년 8월 경자. "...高得宗等上言請於漢擊山邊四面約四息之地

이러한 제안이 수용된 뒤, 1430년경부터 중산간 지역에 165리 규모의 갖성이 축조되면서 중산간 목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목장의 형성과정에서 목장 밖으로 옮겨진 民戶가 344호인 것으로 볼 때⁴¹⁾, 1400년대 초에도 중산간 일부 지역에는 산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약 500여명의 인구가 목장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⁴²⁾. 따라서 중산간 지역의 목장화는 三邑設置⁴³⁾ 이후, 1430년대부터 지역주민들을 동원한 축성 정책과 장내의 거주민들은 장외로 옮기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소유인 국마와 주민소유의 사마를 국유지인 중산간 목장에서 공동으로 방목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중산간 목장지대를 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도 목장의 근간인 中山間牧場[十所場]이 14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형성 당시 중산간 목장의 규모는 1개 목장의 주위가 45리~60리였다⁴⁴⁾. 1440년에는 제주목사가 3읍 감목관을 겸직하여 제주도 전지역의 마정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經國大典』(1485년)의 규정에 따라 암말 10필과 숫말 15필을 1群(字牧場)으로 삼고, 1군 당 군두 1명(암말 10필 관리)과 군부 2명(1인당 암말 50필 관리), 목자 4명이(1인당 암말 25필 관리) 목장을 관리하였다⁴⁵⁾. 15세기말에 중산간 목장은 10개의 所場으로 분할되었다⁴⁶⁾.

築城牧場不分移馬入牧場內居民六十餘戶悉移於場外之地…”.

- 41) 『世宗實錄』권 47. 세종 12년(1430) 2월 경진. “…改築濟州漢擊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移民戶三百四十四…”.
- 42) 『世宗實錄地理志』(1450)에 의하면, 제주도 인구는 12,997명으로 濟州牧에는 8,424명, 旌義縣에는 2,073명, 大靜縣에는 2,500명 정도가 있었다.
- 43) 『世宗實錄』세종 16년(1416) 5월 정유., 김동전, “삼읍설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야기 제주역사(31), 제민일보, 2000년 1월 31일자. 제주도에 삼읍의 설치 1416년에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인구와 취약분포를 고려하여 산북지역을 제주목으로 삼고 그리고 산남지역을 양분하여 서쪽은 대정현, 동쪽은 정의현으로 하여 관관 또는 현감이 해당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삼읍의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제주목은 동쪽 종달리에서 서쪽 두모리에 이르는 한라산 북쪽 일대였다. 정의현은 시흥에서 법환에 이르는 제주도의 동남부 일대 그리고 대정현은 강정에서 고산에 이르는 제주도의 서남부 일대이다. 시기에 따라 삼읍의 경계 및 행정구역의 범위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제주목의 종달리 정의현에 그리고 정의현의 법환이 대정현에 소속되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에 의한 삼읍의 설치 1416년 제주도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44) 『成宗實錄』권 281. 성종 24년 8월 정묘.
- 45) 『經國大典』권 4. 兵典.

2) 중산간 목장의 공간분포

조선 전기의 제주도 목장은 所場(字牧場⁴⁷⁾을 포함, 山屯·牛屯·別牧場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목장의 공간분포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 기록된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山川條와 牧場條에 나타난 측화산의 위치를 통해 공간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⁴⁸⁾. 山川條에 근거할 경우, 제주목의 물장오리 오름(長兀岳) 이하, 그리고 정의현의 지세악(地稅旨) 이하, 대정현의 가과도를 제외한 지역에 목장이 있었다.

제주목 지역에는 물장오리에서부터 검은데기오름(感恩德岳)까지 모두 6개의 所場과 牛屯·山屯·乙丙別屯·淸馬別屯·羊棧羔圈猪圈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목에는 所場, 山屯, 別牧場(別屯), 牛屯이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양·염소·돼지가 사육되었다. 정의현에는 3개의 所場과 羊棧 그리고 대정현에는 1개의 소장·羊棧(양)·羔屯(염소)이 있었다.

조선 전기 제주도 목장의 공간분포는 측화산[오름]들의 위치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에 나타난 측화산 분포를 중심으로 <그림 3>과 같이 목장의 위치와 공간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조선전기 제주도의 각 목장은 중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도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안지역의 오름 일대는 국마의 임시 방목장 또는 개인단위이거나 촌락단위의 목축지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선전기에는 중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서도 목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마의 경우는 중산간 지역에 새롭게 축성하여 만든 중산간 목장을 중심으로 방목되었으나⁴⁹⁾, 사마의 경우는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서도 방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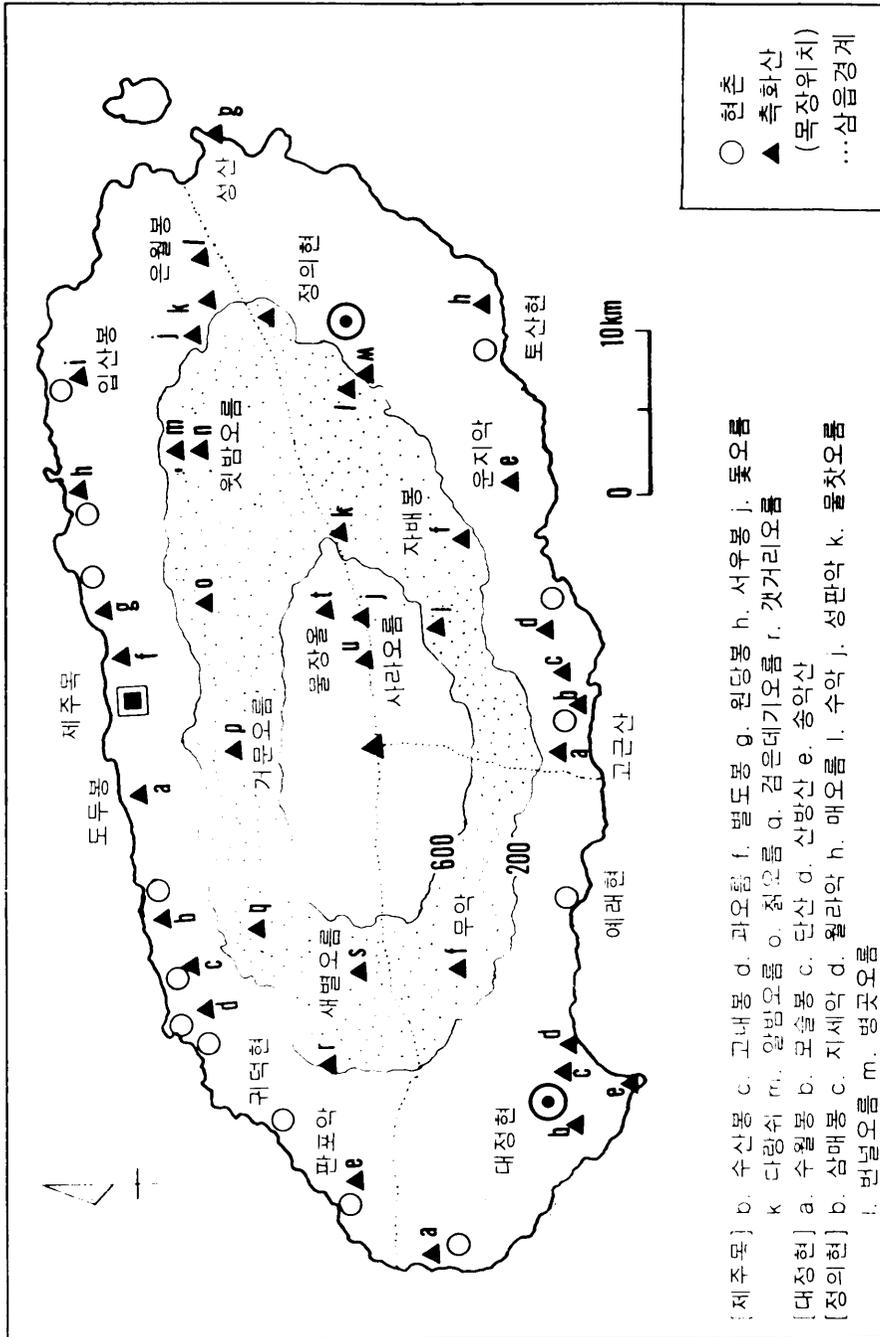
46) 金泰能(1982), 전계서, p.56.

47) 字牧場이란 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하여 편성한 소규모 목장으로, 각 所場마다 있었다. 자목장은 소장에 포함되었으며, 암말 10필과 숫말 15필로 구성되었다. 군두 1명과 군부 2명 및 목자 4명이 자목장(=群)을 운영하였다.

48)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1530), <濟州牧·大靜縣·旌義縣> 山川·牧場條.

49) 구좌읍한동리(1997), 『둔지오름』, p.220., <濟州三縣圖>『海東地圖』(1750년대). 이 고지도에 따르면, 해안지역인 구좌읍 한동리 해안에 '地玄宇宙出字屯馬場'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안지역도 국마의 임시 방목장 또는 목장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이 주로 국마의 목장지역으로 활용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해안지역에서도 國馬의 방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조선전기 제주도 목장의 분포



3. 조선후기 목장의 분포와 변화

1) 중산간 목장

조선후기 제주도의 목장은 입지장소에 따라 中山間 牧場, 山間牧場, 海岸牧場, 島嶼牧場으로 구분되었으며, 산간지역과 해안 및 도서지역에도 관설목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목장의 공간확대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중산간 목장은 십소장, 산간목장은 산마장, 해안목장은 우목장 그리고 도서목장은 牛島場과 加派島 別屯場이 해당된다.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 내에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하여 群으로 편성한 후 만든 字牧場이 소장별로 분포하였다.

17세기 중반에 중산간 지역에는 11개 소장에 58개 자목장이 분포하였다. 이것은 『耽羅志』(1653년)에 제주목 7개 소장에 38개 자목장, 정의현 3개 소장에 17개 자목장, 대정현 1개 소장에 3개 자목장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⁵⁰⁾.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목장 수는 5~6개 증설되었으며, 목장의 위치가 고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지도는 <耽羅巡歷圖>(1702년) 속에 포함되어 있는 <漢擎壯圖>으로, 이를 통해 18세기초의 제주도의 목장분포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漢擎壯圖>에 따르면, 말을 키웠던 소장을 大所場과 牧所場으로 구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목장을 관리했던 防護所와 목장명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자목장의 명칭을 천자문의 글자로 명명한 黃字場, 辰字場, 玄字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牛屯, 山場, 左場 등의 위치와 경계 및 삼림대의 분포가 표시되고 있다.

목마를 주로 했던 제주도에서 삼림의 분포는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을 것이다⁵¹⁾. 즉, 삼림 내부는 삼림 외부에 비해 일사량이 적고, 습도가 높으며 증발량과 기온교차가 작은 성격을 나타내는 곳으로⁵²⁾, 특히 여름철 방목지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50) 李元鎮(1653), 『耽羅志』, 영인본(199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pp.80-139.

51) 李 燦(1979),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9集, 서울대, p.3.

52) 福井英一郎·吉野正敏 編(1984), 『氣候環境學概論』, 東京大學出版會, pp.111-112.

또한 목장의 하한선인 하жат성이 표시되어 있어 목장의 경계를 알 수 있다. 한편, 지도에 표기된 목장의 공간분포를 보면, 제주목 지역에는 一所場(밭이오름[鉢山] 아래), 大三所場(큰오름[高山] 일대), 三所場(정물오름[井水] 일대), 辰字場(산심봉[活泉] 일대), 大二所場(들레오름[野來岳] 일대), H字場(세미오름[三義壤岳] 일대), 異字場(봉개약 일대), 針場(二所場 위), 二所場(조천읍 중산간 지대), 別牧場(서거문오름[是連岳] 일대), 黃字場(一所場 내)이 있었다. 제주목 지역에서 1소장은 애월읍 중산간의 밭이오름 일대에 위치했던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소장이란 명칭이 목장의 형성순서와 관계된 것일 경우, 애월 지역에서 먼저 중산간 목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현 지역에는 山場(靈泉岳 일대), 元屯場(병곳오름[屏花岳] 일대), 牛屯(孤村望: 남원읍 하례리 일대), 三屯下場(서귀진 일대)이 있었다. 대정현 지역에는 羔屯(서귀포시 염돈동), 玄字場(龜山望: 하원동 구산봉 위), 宇字場(仍畝居[넙게오름] 남쪽), 別·玄場(농남봉[龍木岳]~신서악[草岳] 일대)이 있었다. 대정현의 羔屯과 別·玄場은 해안에 입지되었다. 그런데 대정현과 정의현 지역에서는 제주목 지역과 달리 소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漢拏壯圖>에 기록되지 못했을 뿐 자목장이 입지했었기 때문에 소장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李衡祥의 『南宦博物』(1703년)에 근거하여 목장의 공간분포를 보면, 첫째, 제주도에는 63개의 자목장이 <표 1>과 같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목장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3읍별로 목장의 관리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장의 관리장소는 해안지역에 위치했던 鎭으로, 鎭城에 주둔한 군인들까지 목장관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목장 명칭이 1소장부터 10소장까지 연속되지 못하고 一所[大一所]·二所·三所[大三所]·四所까지 되어있다. 넷째, 대정현 지역의 慕瑟所[鎭]와 遮歸所[鎭]는 자목장을 관리했을 뿐 이 지역에는 소장이 표시되지 못하였으며, 차귀소는 해안지역에 형성되었던 列·別·玄字牧場을 관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704년에는 방만한 목장운영에 따른 부실화로 인해 중산간 지역의 목장에 대한 재정비 정책이 실시된다.

〈표 1〉 『南宦博物』에 나타난 목장의 분포

三邑	管理	所場	字牧場	계
濟州牧	別防所	一所	天(15)·地(16)·玄(50)·黃·宇(27)·宙(13)·出(9)	7
		別牧場	天·地	2
	朝天所	二所	洪·黃·日·盈	4
	禾北所	二所	月(22)·吳	2
	涯月所	二所	結	1
		三所	辰·宿·致·雨·露(30)	5
		大三所	麗	1
	明月所	四所	張·寒·來·暑	4
		大一所	往·秋·收(26)·冬·藏·閏·金·生	8
大靜縣	慕瑟所	-	玄·黃·宇	3
	遮歸所	-	列·別·玄	3
旌義縣	水山所	一所	李·柰·芥(43)·薑·海·河(42)·淡	7
		二所	鱗(37)·潛(13)·羽·翔	4
		三所	龍·師·火	3
	西歸所	-	菜·重·鹹(43)	3
	監牧官	-	山屯	-
	別防所	-	牛島場	1
	-	-	黑牛場	-
합계	9	10		63

자료: 南都泳(1996), 『韓國馬政史』, p.388를 재구성함. ()은 마필수임.

당시 중산간 목장에 행해진 정비정책은 명칭의 통합과 공간의 재편성을 통해 이루어졌다⁵³⁾. 관리가 부실하여 마필 사육이 불량한 자목장은 버리고, 규모가 작은 자목장은 큰 자목장으로 통합하는 재정비 정책에 따라 제주도의 삼읍 지역에 분산되었던 자목장들이 십소장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중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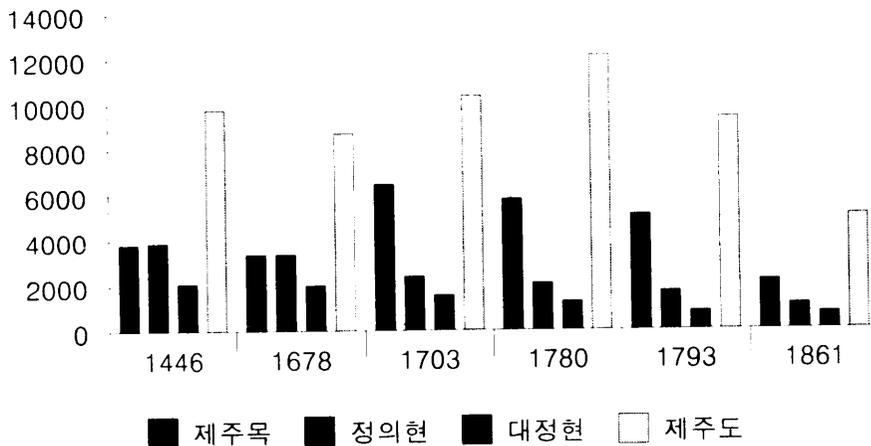
53) 〈漢擊壯圖〉에 나타난 목장들이 십소장으로 재정비된 결과를 보면,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목 지역의 牧三所場→6소장, 大三所場→5소장, 辰字場→4, 5소장, 大二所場→3소장, 日字場→3소장, 異字場→3소장, 針場→산마장 중 針場으로 계승, 二所場→2소장, 黑字場→2소장, 別牧場→1소장, 黃字場→1소장 또는 黃泰場, 대정현 지역의 玄字場→8소장, 黃字場→8소장, 宇字場→7소장, 別·玄字場→毛洞場, 정의현 지역의 山場→9소장, 영주산 일대→10소장으로 재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장운영의 효율을 기하였다⁵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재편되어 형성된 10개 소장의 위치는 <탐라지도>(1709년), <제주삼읍도 총지도> 및 <제주삼현도>에도 나타나 있어 당시 십소장의 지역적 분포를 알게 해 준다.

특히, <耽羅地圖>(1709년)에는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의 분포가 최초로 나타나 있다. 산북지역인 제주목에는 1소장부터 6소장까지 그리고 산남지역인 대정현에는 7소장부터 8소장까지 2개의 소장이 입지하였으며, 정의현에도 9소장부터 10소장까지 2개의 소장이 분포하였다. 이러한 목장분포의 틀은 관설목장이 폐장된 19세기말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중산간 목장에서 생산된 말의 수는 <그림 5>와 같이 변동하였다. 각 소장에서 생산된 말의 수를 보면, 소장 면적이 가장 넓었던 제주목 지역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제주도의 3읍별 말의 수 변동



자료: 『세종실록지리지』(1446), <목장지도>(1678), 『탐라장계초』(1703), 『제주읍지』(1780-1789), 『제주대정정의읍지』(1793), 『탐라고사』(1861), 朴贊植(1993), 전계논문, p. 464, 南都泳(1996), 전계서, p. 399. 재구성함.

54) 李源祚(19세기), 『耽羅誌草本』外, 耽羅文化叢書(4), 영인본(198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p.120.. “…肅廟甲申牧使宋廷奎啓聞築場舍劣取優合小爲大定爲十所…”.

18세기에 들어와 한반도의 목장은 화포 및 전략무기의 전래⁵⁵⁾ 및 농경지로의 개간에 영향을 받아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도에 서도 영정조대의 가뭄과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목장지의 개간을 희망하는 욕구가 분출하였고, 또한 목장을 관리했던 목자들 역시 피해를 봄에 따라 목장의 폐장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목장의 폐장현상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늦은 1770년대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794년경부터는 각 목장의 犯耕處에 徵穀을 단행하여 마감과 목자의 料未로 대체할 정도로 목장지역에서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⁶⁾.

이처럼 조선정부가 목장에 개간을 허락한 배경에는 목장을 경작지로 만든 다음 세금을 징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목장 내에서 화전농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목장지역의 개간현상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화전을 개척하기 위해 목장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濟州地圖>(1899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부터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 역시 폐장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三所廢場劃給節目」(1876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大靜鄉校가 있는 대정현의 7소장과 濟州鄉校가 있는 제주목의 3소장의 廢場稅가 橘林書院 운영비로 충당되다가 서원이 소멸되면서 폐장세를 敬信齋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⁵⁸⁾, 이 시기에 들어와 7소장과 3소장이 폐장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3소장에서는 봉개와 細泉(회천동)에 거주하였던 농민들이 폐장목장에서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⁹⁾.

55) 박찬식(1993), 전계논문, p.463.

56) 박찬식(1993), 상계논문, p.143.

57) 金京玉(2000), "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島嶼政策 研究", 全南大 博士論文, p.55.

58) 오성찬 외(1988), 『奉蓋里』,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⑦, 반석, p.60. 敬信齋란 1658년에 세워진 藏修堂의 후신으로, 현재의 오현단 부근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을 말한다.

59) 「三所廢場劃給節目」(1876),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査報告書)(1991), 濟州道民俗 自然史博物館, pp.98-99.

결국, 1894년부터 관설목장을 유지시켰던 감목관제와 공마제도가 폐지되어 공마수송이 종료되고, 1897년부터는 공마를 金錢納으로 대신함으로써 관설목장은 마침내 소멸되었다⁶⁰⁾. 이후 관설목장이 위치했던 중산간 지역에서는 해안지대의 주민들과 도외 지역의 이주민들에 의해 목장토의 개간이 활발해지면서 중산간 지역이 농경지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취락의 내륙 확산이 중산간 지역으로 진행되었다.

2) 산간목장

제주도의 山間牧場은 해발 400m 이상의 지역 즉 삼림지와 초지대가 혼재하는 지역에 분포하였던 山馬場으로, 金萬鎰의 私牧場에서 기원하였다. 즉, 산마장은 남원·표선 중산간 일대에서 사목장을 개척했던 김만일(1550-1632)⁶¹⁾ 임진왜란으로 각 소장에서 말이 징발되었으나, 한반도에서 전마가 부족해지자 1600년(선조 33년)과 1620년에 각각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였다⁶²⁾.

이에 조정에서는 현마한 말을 사육시키기 위해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 일대에 1620년에 東·西別牧場을 설치하였다⁶³⁾. 이후 1658년에 제주목사 李檜의 건의로 동·서 별목장이 산마장으로 개칭됨으로써 산마장이 제주도의 동부 산간지역에 형성되었다.

산마장의 공간분포를 <탐라지도>(1709년)에서 볼 경우, 9소장 위에 2개,

60) 金錫益(1918), 金啓淵 옮김(1976), 『耽羅紀年』, “...三十三年 牧使李鳳憲…罷貢馬以代錢上納…”, p.448.

61) 南都泳(1996), 전게서, pp.393-395. 제주도에는 私屯場이라 불리는 私牧場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인이 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생산된 말은 국가에 登錄하고 매매·처분 등에 통제를 받았다. 宣祖때 金萬鎰이 운영했던 私牧場에서는 良馬를 많이 산출하여 1600년(선조 33년)에는 戰馬 500필을 바쳤다. 그리고 1620년(광해군 12년)에는 말 500필을 바침으로써 국왕으로부터 獻馬功臣의 호와 관직을 제수받았다. 김만일의 사목장은 1만여 필에 가까운 말을 목양하여 국가의 필요시에 전마를 공급하고, 馬種을 개량하여 양마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날 山馬場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62) 『光海君日記』 권 155, 광해군 12년 8월 경조.

63) 남도영(1996), 전게서, p.390. 金錫翼(1918), 전게서, p.395. 金泰能(1982), 전게서, pp.56-57.. 1소장 위에는 동별목장, 10소장 위에는 서별목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별목장은 針場으로 그리고 서별목장은 上場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10소장 위에 2개, 2소장 위에 1개, 3소장 위에 1개로서 모두 6개로 분화되었다⁶⁴). <濟州三縣圖>에는 3소장 위에 1개, 2소장 위에 1개, 1소장 위에 1개, 10소장 위에 1개, 9소장 공간범위 내에 2개 그리고 9소장 위에 1개로, 모두 6개의 산장이 분포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는 <그림 6>과 같이 제주도의 동부 산간지역에 10개가 분포하여 산마장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8세기 후반인 영정조대(1724-1800)에 針場·上場·鹿山場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산마장은 제주도의 산북 동부지역인 조천읍·남원읍·표선면 중산간 일대인 해발 400m 이상의 지대에 분포되었으며, 서부지역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동부 산간지역에는 중산간 목장인 십소장(10개의 소장)의 위치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지형적으로 완경사지가 넓게 분포한다는 점, 그리고 비록 일제강점기부터 실시된 조림사업의 결과, 현재는 삼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으나 삼나무로 조림되기 이전에는 초지군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마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산마장의 모태가 된 김만일의 사목장이 동부 산간지대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산마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간목장의 관리를 위해 山馬監牧官制가 신설되었다. 김만일이 마필을 헌마한 공을 인정하여 김만일의 아들인 金大吉을 산마감목관으로 임명한 후 산마장을 관리시켰으며, 이후 산마감목관은 6년마다 김씨가문의 후손들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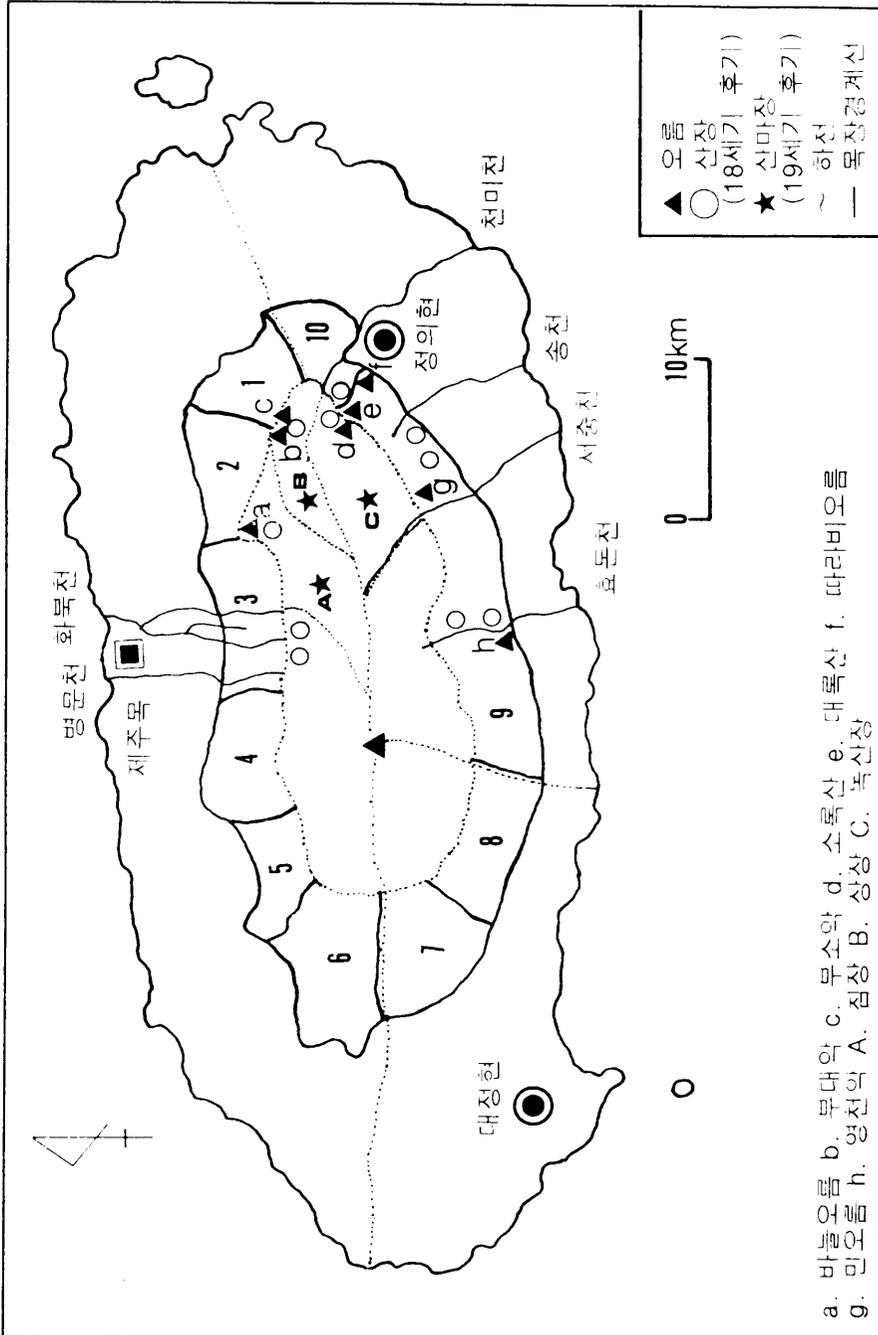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분화된 산마장의 주위는 200여리였으며, 방목에 필수적인 水處는 23개가 산마장 내에 분포하였다⁶⁵). 그리고 산간목장은 한라산 정상까지 통하여 있어 매우 광활하였기 때문에 驅馬할 때마다 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1780년부터 산마장에 횡장(상жат성)을 쌓기 시작하였다⁶⁶).

64) <耽羅地圖>(1709), <海東地圖> 속의 <濟州三縣圖>(18세기 중기)에 근거한 자료이다.

65) 『濟州邑誌』 牧場條.

66) 『正祖實錄』 권 26, 정조 5년 6월 정유. “...各山場之創始橫築...”.

<그림 6> 신마장의 지역적 분포



a. 바늘오름 b. 무대악 c. 무소악 d. 소록산 e. 대륙산 f. 따라비오름
 g. 민오름 h. 영천악 A. 짐장 B. 상장 C. 북신장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 근거함. ※ 숫자는 십소장의 위치임.

횡장은 높이가 4척(100cm) 정도였으며, 길이는 총 11,013보(약 16km)에 달하였다⁶⁷⁾. 그리고 칩장, 상장, 녹산장의 삼림지와 초지대 경계부근에는 間墻이 설치되었다⁶⁸⁾. 그러나 산마장에 횡축한 이후부터 장내가 좁아져 말이 활동하는 공간이 협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말이 野性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병들거나 잃어버리는 말이 800여 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축한 담장 사이를 헐어서 말들이 다닐 수 있게 門路를 만들었다⁶⁹⁾.

한편, 산마장에 방목된 말의 수는 17세기 중반에 1000여 필에 달하였으며⁷⁰⁾, 18세기 후반에는 1,572필, 그리고 19세기에 중반에는 1,037필로 감소되었다⁷¹⁾. 산마감목관에 의해 십소장에서 독립하여 운영되었으며, 3년마다 말 200필을 헌마하였다. 그리고 십소장과는 달리 산마감목관을 金氏一門이 맡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⁷²⁾. 산마감목관 밑에는 마감과 군두·목자를 배치하였는데 1792년 경에는 군두·목자를 합쳐 160명이 산마장을 운영하였으며, 이들은 중산간 취락인 조천읍 교래리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후반에 들어와 산마장 역시 폐장되기 시작하였다. 산마장의 폐장현상은 <그림 18>에 나타난 완경사 지대에서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마장의 변화내용은 『山馬牧場新定節目』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자료에 근거할 때, 1794년을 전후하여 산마장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기 시작하여 방목지역이 점차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67) 『濟州邑誌』 牧場條.

68) 『山馬牧場新定節目』, 乾隆五十九年(1794) 五月, 濟州道自然史博物館 소장자료.

69)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정월 신해.

70) 金錫益(1658), 『耽羅紀年』, “…旌義人金萬鎰以私築蕃息獻馬五百匹養牧于東西別牧場(十所在馬)…十年間達於千餘首…”.

71) 『濟州邑誌』(1780-1789) 牧場條, 『耽羅故事』(1860) 자료에 산마장의 말의 수로 각각 1, 572필과 1,037필 그리고 『濟州啓錄』(1845)에는 1,160필로 기록되어 있다.

72) 남도영(1996), 전계서, p.392.

73) 『山馬牧場新定節目』, 乾隆五十九年(1794) 五月, 濟州道自然史博物館 소장자료.

3) 해안·도서목장

해안지역에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근거할 때, 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했던 우목장이 18세기 후반부터 형성되었다. 조선전기부터 소규모로 분산되어 분포하였던 牛屯들이 3읍별로 재편성되어 黃泰場·川尾場·毛洞場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황태장은 제주목의 1 소장 내, 즉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였으나⁷⁴⁾ 천미장과 모동장은 해안에 입지한 것이 특징이다.

우목장으로서의 해안목장은 제주목사·감목관·우감·반직감 그리고 군두·군부·목자로 이루어진 관리구조에 의해 운영되었다⁷⁵⁾. 마감 대신에 우감에 의해 운영된 것이 중산간 목장과 차이점이다.

제주목의 1 소장 내에 위치했던 黃泰場의 관리를 위해 牛監 2명·伴直監 2명·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40명이 투입되었으며, 黃牛·黑牛를 합하여 530수가 사육되었다. 황태장의 위치는 <제주지도>(189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소장 내의 구좌읍 덕천리 사근이오름 일대에 입지하였다. 황태장이라는 명칭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2)에 등장하는 黃字場이 황태장 또는 황퇴우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의 신도리와 영락리 해안 일대에 위치했던 모동장의 관리를 위해 우감 2명·색리 1명·검찰군두 2명·목자 10명이 투입되었다. 모동장의 규모는 주위 37리였으며, 소 203수·말 9필이 사육되었다. 모동장은 해안의 취락·농경지대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긴 하였으나 모동장에서 방목 중이던 우마들이 私田에 狹田(발붙림: 진압농법)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다⁷⁶⁾.

정의현의 신천리 해안에 위치했던 천미장에는 황우·흑우 44 수가 사육되었으며, 우감 2명·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20명이 소 사육을 담당하였다.

74) 소를 생산, 관리했던 황태장은 중산간 지역에 입지 하였기 때문에 중산간 목장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중산간 목장은 馬場이었으므로 중산간 목장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소를 전문적으로 생산, 관리했던 해안목장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75) 『濟州邑誌』 牧場條. 이하 우목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76) 金仁澤(1817-1820), 『丁丑六月日大靜官衙中日記』, 오성찬 외(1988), 『大靜고을』,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⑧, 반석, p.163.

해안목장에서는 계절을 이등분하여 목축하였다. 靑草節(봄·여름·가을)에는 곡초를 베어 목장 내에 만들어졌던 눈·비를 피할 집(避雨雪家)에 쌓아두었다가 이것을 黃草節인 겨울 동안 먹이며, 봄이 와서 풀이 무성해지면 방목하였다. 모동장에서는 대정현 관할 목장에서 선정되어온 진상용 遞任馬·年例馬·御乘馬를 사육하기도 하였다⁷⁷⁾. 모동장은 처음에 馬場이었으나 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소를 사육하는 우목장으로 변화되었다. 1800년대 말에 소를 7소장으로 이식시켰으며, 1900년경에 모동장이 폐장되었다⁷⁸⁾.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우도와 가파도에도 별목장으로서의 도서목장 즉, 牛島場과 加波島 別屯場이 설치되었다. 우도장에서는 말을 방목하여 군비에 대비했으며, 가파도 별둔장에서는 소를 방목하여 진상에 대비하였다. 특히 1697년에 형성되었던⁷⁹⁾ 우도장은 소머리오름 분화구 및 북동쪽의 완경사면을 중심으로 입지하였다⁸⁰⁾. 이러한 우도장의 목장경관은 <탐라순력도>(1702년)의 <牛島點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도장에서 말을 點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우도장에서 사육된 말의 수는 262필이며, 말을 직접 관리하는 牧丁과 목자들의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保人을 합하여 23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섬 내에 취락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도에 근접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우도장으로 들어가 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도장은 특별목장인 別牧場에 해당되었으며, 해안 방어시설인 別防鎭(所)에 소속된 助防將에 의해 관리되었다⁸¹⁾. 우도장의 둘레는 50리에 水處가 6개 있었으며, 屯馬 243필을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39명이 관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²⁾.

계속된 인근주민들의 개간요구에 따라 1843년부터 우도에 방목하던 마필

77) 遞任馬란 牧使나 縣監이 교체되어 갈 때, 국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말이다. 年例馬란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했던 말이며, 御乘馬란 임금에 탔던 말을 의미한다.

78) 高山郷土誌 發刊委員會(2000), 전계서, p.290.

79) 『濟州邑誌』 牧場條.

80) 康萬益(1993), 島嶼地方의 漁村에 관한 研究-濟州道の 牛島를 事例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p.3.

81) 李衡祥(1703), 『南宦博物』 牧場條.

82) 『濟州邑誌』 牧場條.

을 인근의 해안촌락 지역의 民屯(주민들의 방목지)으로 반출하고 개간하게 한 결과, 우도장은 폐장되었다⁸³⁾. 이후 우도에는 농경지 개간을 위해 소가 방목되었다.

가과도 별둔장은 저평한 환경사지를 중심으로⁸⁴⁾ 1750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당시는 약 50 수의 흑우가 방목된 黑牛場이었다⁸⁵⁾. 공간규모는 주위 10리에 黑牛 103 수가 사육되었으며, 모슬포 조방장이 우감을 겸직하였고, 색리 1명·군두 1명·목자 8명이 가과도 별둔장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1840년에 영국 선박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모동장으로 흑우를 옮겨 사육시킨 결과, 1843년부터 가과도 별둔장이 폐장되었다.

Ⅲ. 관설목장의 공간범위

1. 중산간 목장의 공간범위

1) 제주목의 목장

목장의 공간범위를 밝히는 작업은 목장의 경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馬政區劃과 목자들의 활동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공동방목권을 알 수 있다. 목장의 경계설정은 목장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계설정의 기준은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가시적인 경관요소인 측화산, 하천 그리고 잣성을 이용하였음이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를 통해서 확인된다. 제주목에 속한 목장의 공간범위를 밝히기 위해 <표 2>의 측화산과 잣성 및 하천을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83) 牛島誌編纂委員會(1996), 전계서, p.96. 康萬益(1993), "烏嶼地方의 漁村에 관한 研究", 『地域環境』 제11호, 東國大學校 地域環境研究所, p.43.

84)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社會教育科(1991), "濟州道 附屬島嶼 社會調查(加波島)", 『濟大 社會科教育』 第9輯, p.49.

85) 金錫翼(1918), 전계서, p.413.

〈표 2〉 제주목 지역의 측화산 분포

所場	濟州三邑都總地圖	濟州地圖
1	開赤岳〔백악이〕, 成佛岩〔성불오름〕 褐山〔침오름〕, 巨文岳〔검은이오름〕 防下岳〔?〕, 泉味岳〔세미오름〕 回山〔돌리미오름〕, 先達只〔선죽이〕 石岳〔안돌오름〕, 箕山〔체오름〕 是連岳〔검은오름〕, 夫大岳〔부대약〕	褐山〔침오름〕, 巨親岳〔거친오름〕 泉味岳〔세미오름〕, 体岳〔체오름〕 大峯峰〔안돌오름〕, 小峯峰〔밖돌오름〕 大息彦岳〔큰식은이〕 小息彦岳〔작은식은이〕 東巨文岳〔동거문오름〕 王謁岳〔?〕, 西巨文岳〔서거문오름〕
2	文岳〔민오름〕, 牛眞岳〔우진제비〕 上夜漠只〔윗밤오름〕 下夜漠只〔알밤오름〕, 堂岳〔당오름〕 思未岳〔세미오름〕	報母旨〔복오름〕, 上輒〔윗밤오름〕 下輒〔알밤오름〕, 牛振接〔우진제비〕 泉味岳〔세미오름〕, 大川岳〔대천이오름〕 敏岳〔민오름〕, 夫大岳〔부대약〕
3	明道岩〔명도암〕, 三每陽岳〔삼의양〕 所山岳〔소산봉〕, 思未岳〔세미오름〕	鹿山〔노로손이〕, 七峰〔칠오름〕 兄峰〔안세미, 밧세미〕, 反月岳〔月下岳〕 三陽峰〔삼의양〕, 小山峰〔소산봉〕 狼旨〔들위오름〕
4	御乘生岳〔어승생〕, 呂亂止岳〔열안지〕 獐孫岳〔노루생이〕, 巨門岳〔거문오름〕	如卵旨〔열안지〕, 巨門岳〔거문오름〕 獐岳〔노루생이〕
5	眞木岳〔천아오름〕, 川西岳〔천서오름〕 高山〔큰오름〕, 活泉岳〔산심봉〕 晚水同山〔만세동산〕	生泉岳〔산심봉〕, 大鹿高山〔큰녹고메〕 小鹿高山〔작은녹고메〕
6	鉢山〔발이매〕, 曉星岳〔새별오름〕 二達峯〔이달오름〕, 黑岳〔검오름〕	東物峯〔괴오름〕, 規木峯〔?〕 新星岳〔새별오름〕, 二達峯〔이달오름〕 井物峯〔정물오름〕, 羅里岳〔도너리오름〕

자료: 측화산의 이름은 윗글(1998), 전제서, pp.7-218에서 인용함.

제주목의 목장 중 1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7〉과 같이 제주목의 동쪽에 위치한 현재 구좌읍 송당리와 덕천리 중산간 일대에 해당된다. 그런데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에 나타난 1소장의 위치는 차이를 보였다.

즉, 1소장의 위치는 제주목 서쪽에 위치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이었으나, 1704년에 실시된 목장의 재정비 과정에서 1소장이 제주목 서쪽의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목 동쪽에 위치한 구좌읍 중산간 지역으로 변동되었다. 이것은 구좌읍 송당리 일대의 위치특성 즉, 제주목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목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말 탐라목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동쪽 경계는 대체로 성불오름〔成佛岩〕에서 동거문오름까지를 연결하는 현재의 북제주군 구좌읍과 남제주군 성산읍의 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서쪽 경계는 대체로 구좌읍과 조천읍의 경계선과 일치하고 있다.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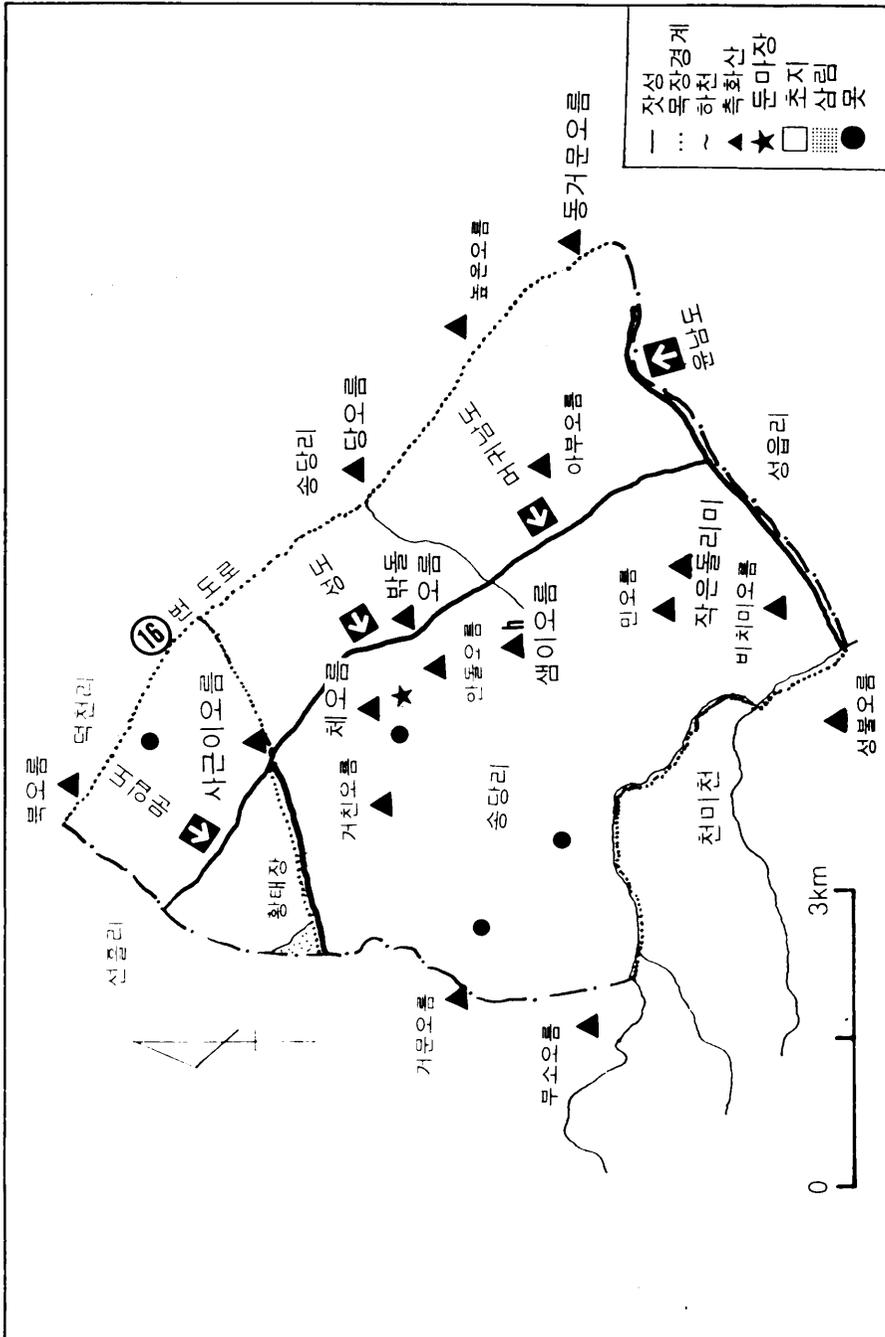
쪽 경계는 성불오름과 부소오름을 연결하는 천미천의 지류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산마장이었던 上場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1750년경의 <濟州>『全羅南北道輿地圖』에서는 1소장과 산마장의 목장경계가 잣성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는 돌이 흔치않은 흑색토 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목장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 경계는 하잣성의 위치 즉, <탐라순력도>(1702년)의 <한라장축>과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 및 <제주삼읍전도>(1872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거문오름[防下岳으로 추정됨]에서 높은오름[高山]을 지나 당오름[堂岳]과 거문오름[是連岳]을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동거문오름에서 출발하여 높은오름을 지나 당오름 위쪽을 통과한 다음, 송당리와 북오름을 연결하는 16번 도로의 위치로 추정된다. 그런데 1:25,000 지형도(NI52-9-18-3 송당)에 나타난 사근이오름, 체오름, 작은돌리미오름, 비치미오름을 연결하는 돌담 표시선, 즉, <그림 7>의 동쪽 잣성이 도(梁)의 위치로 볼 때, 1소장의 하한선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다⁸⁶⁾. 그런데 이 경우, 아부오름과 높은오름 일대의 환경사지가 2소장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濟州邑誌』에 의하면, 1소장의 幅圓은 55리에 해당되었으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64명이 1소장의 공간범위 내에서 878필의 말을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20리, 남북 18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2소장은 <그림 8>과 같이 현재 조천읍의 중산간 지역으로, 조천읍 와홀리와 선홀리를 연결하는 공간범위에 해당된다. 동쪽 경계는 대체로 부소오름[扶小岳]에서부터 거문오름을 지나 해발 220m~320m 위치에 설정된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선까지이다. 서쪽 경계는 조천읍과 제주시의 경계선이 되고 있다. 북쪽 경계는 알밤오름[下夜漠只]에서부터 해발 200m 일대의 와산리 위를 지나 현재의 와홀리 古坪洞과 제주시 回泉洞까지 이어졌던 하잣성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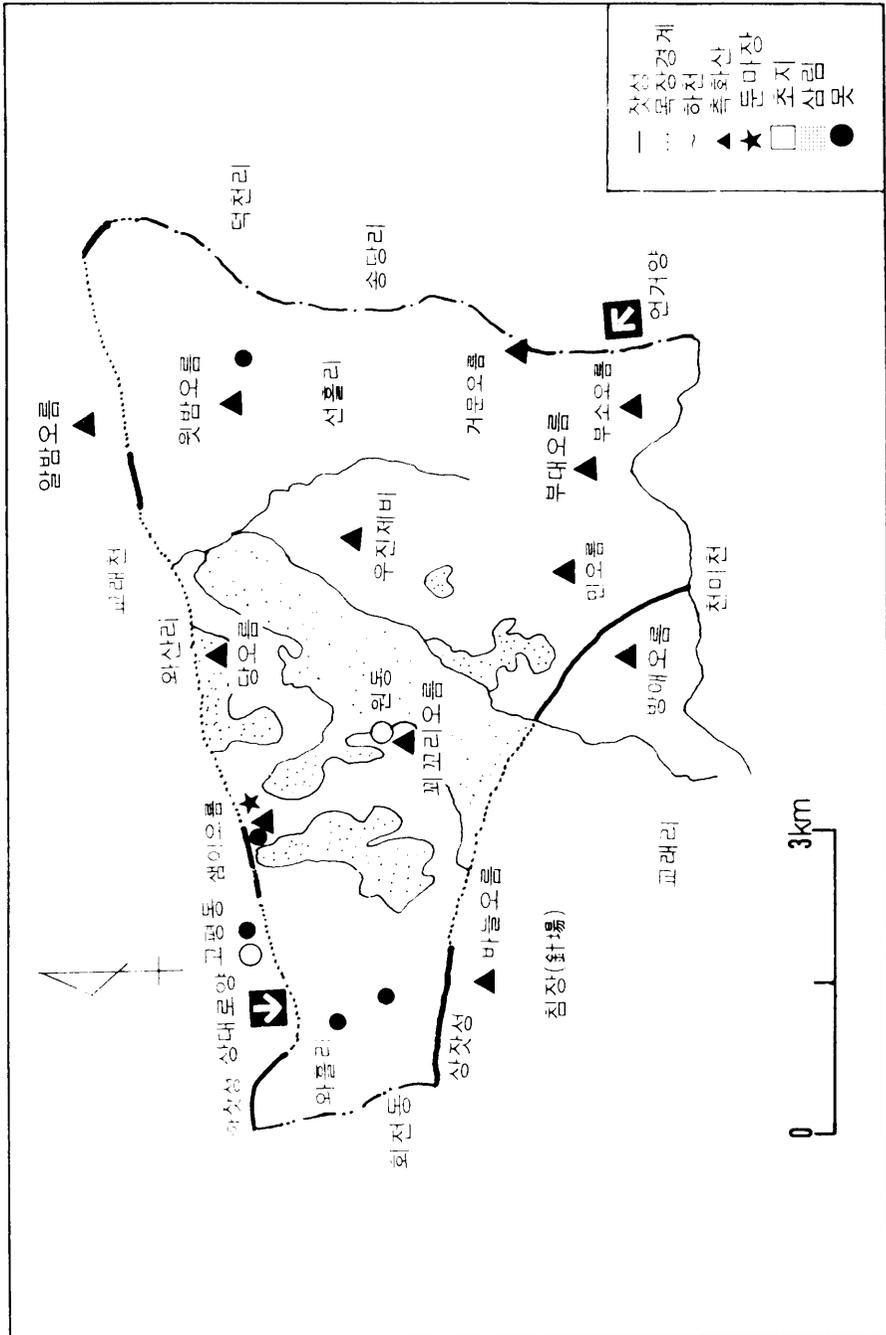
86) 허양을, 개인면담, 구좌읍 덕천리, 2001년 5월 7일.

<그림 7> 1 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종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그림 8> 2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종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그리고 黃字場과 와산리〔臥乎山里〕 경계부근에 위치한 숲지대(藪)를 따라 꾀꼬리오름 앞의 普門村〔院洞〕 일대까지 이어졌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 근거할 때, 선홀리 알밤오름, 와산리의 당오름, 대홀리의 샘오름과 와홀리⁸⁷⁾ 고평동을 지나, 해발 310m 지점의 동부산업도로까지 연결된 우마차로를 따라 하жат성이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와홀리 고평동에서 대홀리 샘오름 앞까지 답사한 결과, 겹담으로 된 하жат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⁸⁾. 그리고 선홀리 목선동 표지석 위치에서 소로를 따라 구좌읍 중산간 방향으로 жат성이 존재하고 있다⁸⁹⁾.

남쪽 경계는 부소오름〔扶小岳〕에서 출발하여 천미천의 지류를 따라 민오름〔文岳〕 남쪽과 바늘오름〔針山〕 북쪽에 남아있는 жат성을 연결한 선으로, 이것은 해발 400m의 계곡선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목장의 상한선이었던 2소장의 상жат성은 1:25,000 지형도(NI52-9-17-4 와산)에 의하면, 3소장과 의 경계선에서 바늘오름 북쪽과 방애오름 및 민오름 사이에 위치하는 жат성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소장의 공간범위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서 목장이 마치 병목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은 바늘오름과 교래리, 방애오름 지역에 형성된 침장이 2소장 서쪽 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濟州邑誌』에는 2소장의 幅圓이 5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52명이 함께 792필의 말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20리, 남북 10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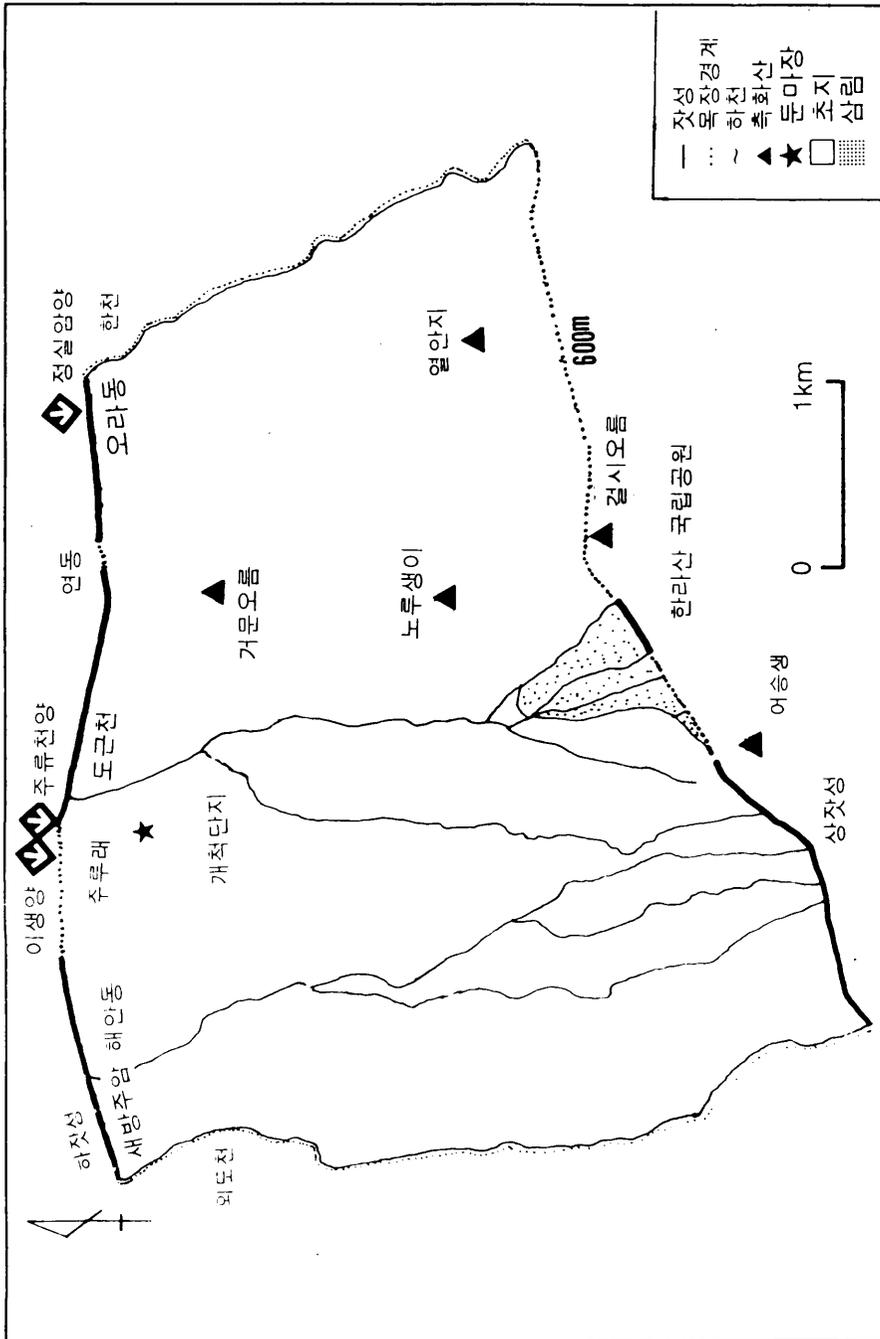
3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9>와 같이, 동서의 경계는 2소장과 의 경계선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해발 300m 일대에 위치한 한천〔大川〕까지로, 하천이 목장의 경계선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7) 1: 5,000 지형도에는 와홀리 97번 도로변, 해발 275~300m 일대에 800m 정도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훼손되었다.

88) 현재 샘오름 남쪽 아래에는 높이 130cm, 넓이 120cm, 길이 100m 정도의 하жат성이 삼림 내에 보존되어 있다.

89) 고경수, 개인면담, 북제주군 조천읍 선홀1리, 2001년 4월 8일.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선홀리 牧善洞 표지석에서 남동쪽으로 나있는 소로를 따라 현재도 жат성의 “성굽”이 남아있다.

<그림 10> 4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특히, 해발 300m 지점의 한천은 <사진 2>와 같이 폭이 넓고 계곡이 깊어 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목장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활용되었다. 북쪽경계는 해발 250m~280m에 위치한 하жат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3소장의 하жат성은 1:25,000(NI52-9-17-3 오라)과 1:5,000 지형도에 위치가 표시되어 3소장의 하한선을 알 수 있다.

<한라장축>(1702)에 의하면, 회천동의 숲지대인 '닥남곶'〔楮木藪〕을 지나 안세미오름〔奉蓋岳〕을 거쳐 한천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형도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현재의 지형도에 나타난 3소장의 하жат성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경계를 지나 회천동·봉개동·용강동·월평동·영평동·아라동·오등동 그리고 한천까지 해발 280m~300m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답사결과 3소장 지역의 하жат성은 제주공고와 제주대학교, 정실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농경지 확장 때문에 대부분 훼손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제주공고 앞 들레오름〔월하악〕 북쪽과 봉개동 명도암 마을내 묘지의 돌담으로 남아 있다. 남쪽 경계는 삼림지대와 방목지대가 구분되는 지역이며, 상жат성이 위치했던 해발 600m 일대의 한라산 국립공원의 하한선까지로 추정된다.

한편, 3소장의 상жат성 중 제주시 봉개동의 잣성 답사한 결과, 민오름 남쪽에 약 50m 정도로 <사진 7>과 같이 겹답으로 남아있다. 제주시 용강동·월평동·영평동·아라동·오등동의 상жат성은 삼림지와 방목지의 경계인 해발 600m 일대의 한라산 국립공원 하한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濟州邑誌』에 의하면, 3소장의 둘레는 50리에 해당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42명이 429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20리, 남북 15리로 기록되고 있다.

4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0>과 같이 동·서경계는 해발 280m 일대에 위치한 제주시의 한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와 북제주군 애월읍의 경계가 되는 외도천〔水鐵川〕까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서경계는 한천과 외도천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목장경계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상 제주시 오라 2동에서 해안동까지에 해당된다. 북쪽 경계는 해발 220m 일대의 제주시 북쪽 하жат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4소장의 하жат성은 현재 1:25,000 지형도(NI52-9-17-3 오라)와 1: 5,000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형도에서 하жат성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한천에서 시작하여 제주시 오라동·연동·노형동을 지나 해발 230m에 위치한 해안동의 '새방주암' 부근에 위치한 외도천까지 연결되었다. <한라장축>(1702년)에 의하면, 4소장의 하жат성은 거문오름 북쪽에서 출발하여 해안동 남쪽의 '이생이'〔伊生〕까지 이어졌다.

남쪽 경계는 상жат성이 위치했던 한라산 국립공원 하한선까지로 추정된다. 4소장의 상жат성은 1:25,000 지형도(NI52-9-16-4 귀일)에 해발 700m의 어승생〔御乘生〕에서부터 외도천 상류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濟州邑誌』에 의하면, 4소장의 둘레는 45리에 해당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48명이 573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18리, 남북 15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5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1>과 같이 동·서의 경계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계가 되는 외도천〔水鐵川〕에서 출발하여 애월읍 납읍리와 어음리를 나누는 금성천〔亭子川〕의 동쪽 지류인 어음천〔院洞과 錦城里를 연결〕까지로 추정된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의하면, 금성천〔정자천〕과 上大路〔웃한길〕 사이에는 '정자넷곳'〔磊藪〕⁹⁰⁾이라는 '꽃자왈'이 정자천의 좌측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어 당시의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다. 북쪽 경계는 애월읍 광령리의 해발 380m 일대의 하жат성에서부터 애월읍 소길리의 원동 북쪽 해발 340m 일대의 하жат성까지로 추정된다. 5소장의 하жат성을 <한라장축>(1702년)에서 보면, 외도천에서 검은데기오름〔可文岳〕을 지나 금성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 근거할 때, <그림 11>에서와 같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계선인 해발 230m의 외도천〔水鐵川〕에서 시작하여 애월읍 광령리·유수암리 그리고 애월읍 소길리 원동에서 어음1리를 연결하는 해발 350m 지점의 금성천 동쪽 지류인 어음천까지 하жат성이 위

90) 오창명(1998). 전계서. p.360.

치하였다. 그런데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의하면, 5소장에서는 하жат성이 <그림 20>에서와 같이 북쪽으로 돌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서는 삼림 식생이 보다 북쪽까지 발달하였기 때문에 삼림 위치를 고려하여 하жат성을 축성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1:25,000 지형도(NI52-9-17-2 귀일)와 1:5,000 지형도에 나타나고 있는 돌담 표시선이 하жат성으로 추정된다. 이 잣성은 1964년에 발행된 1:50,000 지형도(애월:6514-II)에도 나타나고 있다. 애월읍 고성리의 경우, '통물도'에 하жат성이 있었으며, 여기에 '살채기' 문을 만들어 주민들을 출입하게 하였다⁹¹⁾. 남쪽 경계는 상жат성의 위치가 되고 있다. 5소장의 상жат성은 1780년부터 5소장의 남쪽에 1,530보(약 2.2km) 규모의 횡장이 처음으로 쌓아 지면서 형성되었다⁹²⁾.

1:25,000 지형도에서 볼 때, 5소장의 상жат성은 해발 740m 일대에서 출발하여 천아오름과 작은오름, 큰오름을 연결하는 선으로, 해발 600m~750m 일대에 위치하였다. 실례로, 애월읍 고성리의 상жат성은 '틀남도' 남쪽에 남아 있어 목장의 상한선을 알 수 있다⁹³⁾.

그런데 5소장의 경우, 3·4소장의 경우처럼 수평적으로 하жат성이 축성된 것이 아니라 5소장의 서쪽 경계부근인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에서 하жат성이 북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큰오름(高山) 일대에 형성된 삼림이 이 지역의 해발 380m 일대까지에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жат성이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중산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북쪽으로 내려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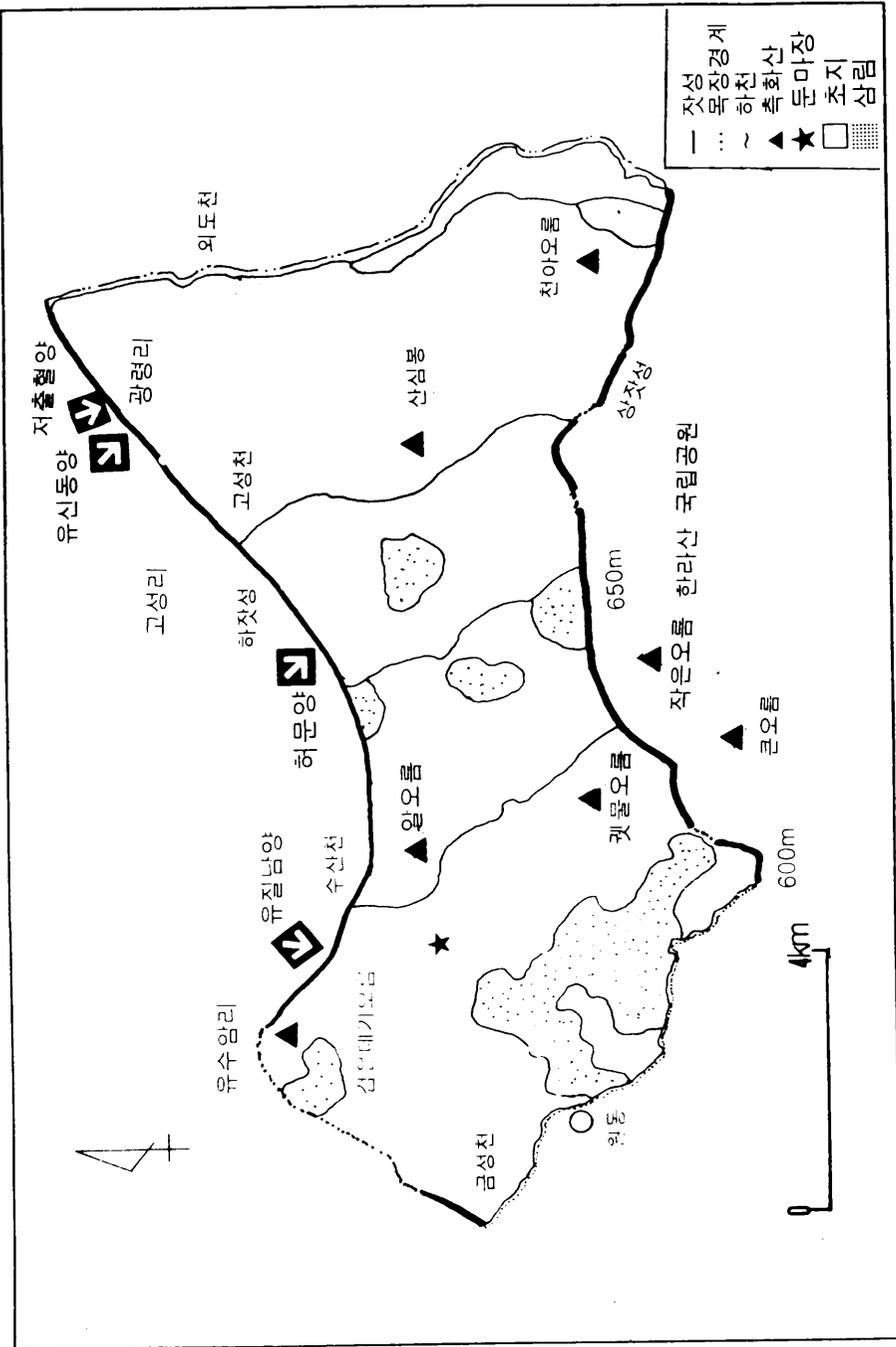
5소장의 남쪽의 경계는 삼림 식생의 분포 위치와 잣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해발 600m~700m 일대까지로 추정된다. 5소장의 둘레는 『濟州邑誌』에 의하면, 6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78명이 1,09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 근거할 때, 5소장의 공간범위는 동서 25리, 남북 20리로 기록되고 있다.

91)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古城里誌』, p.148.

92) 『濟州邑誌』 牧場條.

93)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전계서, p.148.

<그림 11> 5소상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6소장은 <그림 12>와 같이 애월읍 소길리의 원동에서 시작된다. 제주도 북서부지역인 애월읍·한림읍에 걸쳐있으며, 제주목과 대정현의 경계에 해당하는 목장이었다. 행정구역상 애월읍의 소길리·어음리·봉성리를 거쳐 한림읍의 금악리까지에 해당된다.

동·북·서의 경계는 대체로 5소장과와 경계선인 금성천에서 출발하여 한림읍 금악리의 금오름을 지나 정물오름까지에 해당된다. 6소장에서 하жат성은 <한라장축>(1702년)에 의하면, 금성천에서 출발하여 검은오름[黑岳]과 정물오름[井水]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의하면, 금성천에서 6소장의 둔마장을 경유하여 상대리[常是畝村]을 지나 검은오름[黑岳]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형도에는 6소장의 하жат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잣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의 경우에서처럼, 지형도에서는 하жат성이 역사성을 결여한 명칭인 돌담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현지주민의 안내를 받아⁹⁴⁾ 어음2리 '장삼도'의 하жат성과 봉성리 평화목장 내의 '물모릿도'의 하жат성을 답사한 결과, 지형도에 나타난 돌담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겹담형태의 하жат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하жат성은 1964년에 발행된 1:50,000 지형도(한림:6513-I, 애월:6514-II)에도 나타나 있다.

남쪽 경계는 왕이매, 정물오름을 연결하는 현재의 안덕면과 한림읍의 경계선과 일치한다고 추정된다. 남동쪽 상한선은 다래오름 남쪽의 해발 660m 일대의 '공초왓'(곰취밭) 일대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상жат성까지에 해당된다. 6소장의 상жат성이 해발 550m~650m 일대인 발이오름과 검은들떡오름 그리고 다래오름 동쪽의 '공초왓' 일대까지 존재하였으나, 가시덤불 속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형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6소장의 둘레는 『濟州邑誌』에는 6소장의 둘레가 6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96명이 1,103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25리, 남북 20리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94) 강창준(봉성리 3865), 강순호(봉성리 3857), 안부일(봉성리 3228), 양두석(어음2리 2940), 고을선(어음2리 3008)씨의 안내로 하жат성을 확인하였다.

2) 대정현의 목장

대정현과 정의현 지역의 소장별 공간범위를 복원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소장별로 분포한 측화산과 잣성, 하천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측화산의 위치를 이용한 7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3>과 같다. 행정 구역상, 안덕면과 서귀포시 즉, 안덕면 동광리, 광평리, 상창리, 상천리 그리고 서귀포시 상예동과 색달동까지에 해당된다.

<표 3> 대정현·정의현 지역의 측화산 분포

所場	濟州三邑都摠地圖	濟州地圖
7	唐岳[당오름], 件斤岳[붉은오름] 井水岳[정물오름], Y岳[거린오름] 甘南岳[?], 瓮水岳[?] 竝岳[병악]	冬柏岳[?], 院帥岳[원물오름] 堂岳[당오름], 南松岳[남송악] 牛付岳[우보악]
8	牛夫岳[우보악], 王伊山[왕이메] 佛近岳[?], 鹿山[?] 鹿下止[녹하지악], 占岳[어점이악] 弓山[활오름]	-
9	古根山[고근산], 靈川岳[영천악] 水岳[물오름], 成板岳[성판악] 乾盈岳[영아리], 水盈山[수령산] 鹿山[대록산], 多羅非[따라비오름]	古空山[고근산], 婁岩[각수바위] 永川峯[영천악], 花生旨[?] 成吉峯[생기악], 古里峯[고리악] 〈甲馬場 범위〉 番板岳[번널오름], 地祖岳[따라비] 大鹿山[대록산]
10	開赤岳[백악이오름] 瀛洲山[영주산], 弓大岳[궁대악] 盖岳[개오름], 左甫岳[좌보미오름]	毋止岳[모지오름], 瀛洲山[영주산] 弓山[궁대악], 盖峯[개오름] 飛雉岳[비치미], 左輔岳[좌보악] 百藥峯[백악이오름], 天馬岳[?]

자료: 측화산의 현재이름은 吳昌命(1998), 전계서, pp.7-218에서 인용함

그런데 7소장의 둔마장이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로 안덕면 중산간 일대가 7소장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7소장의 동쪽 경계는 하천으로 서귀포시 색달동과 증문동을 양분하는 색달천 그리고 측화산으로는 색달동의 우보악까지에 해당된다. 우보악은 위치로 볼 때, 8소장과 의 경계 하천인 색달천과 떨어져 있다.

그러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는 측화산을 중심으로 우보악을 8소장과 7소장의 경계에 해당하는 측화산으로 보고 있다. 남쪽 경계는 하жат성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계확인이 가능하다. 7소장 하жат성의 위치는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과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의하면, <그림 13>에서와 같이 안덕면 동광리 Y岳[거린오름]에서 출발하여 색달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1:25,000(NI52-9-23-2 저지, NI52-9-24-1 회수) 지형도에는 하жат성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안덕면 상창리 300번지 일대의 '정그리왓도'에서⁹⁵⁾ 상창리 공동묘지를 지나 서귀포시와 안덕면의 경계인 창고천까지의 해발 240m 일대에 500m 정도 존재하고 있다. 서귀포시 상예2동과 색달동의 하жат성은 창고천에서 우보악 동쪽에 위치한 색달천까지 약 4km 정도로 지형도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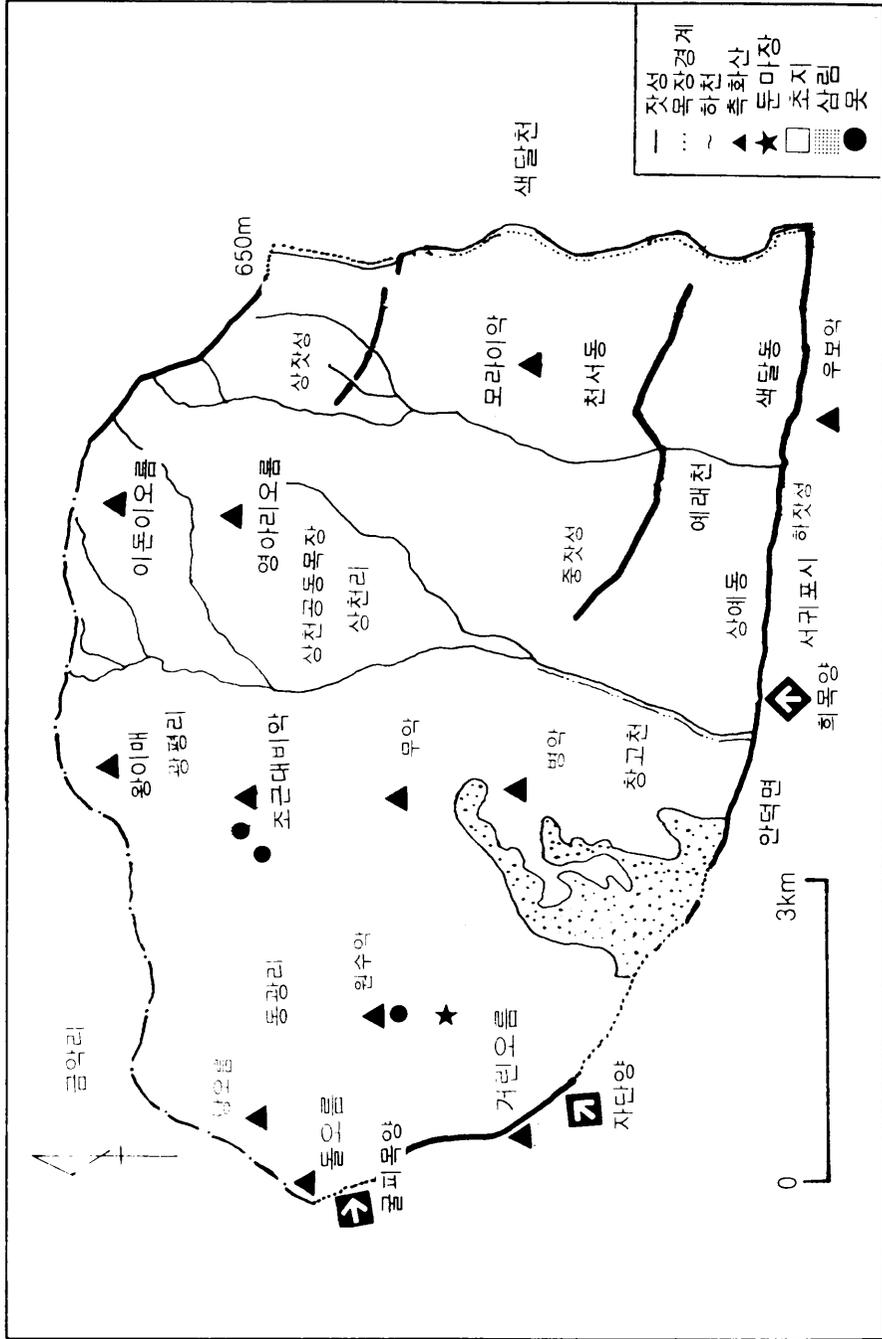
북쪽 경계는 안덕면과 한림읍의 경계선과 7소장의 상жат성을 연결한 곡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7소장에서 상жат성은 안덕면 돌오름 인근의 해발 650m~670m 일대를 따라 2km 정도로 1:25,000 지형도(NI52-9-24-1 회수)에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안덕면 상창리 해발 550m~570m 일대에는 상жат성이 1.4km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색달동의 상жат성은 현재 서귀포시 폐기물 환경사업소 동북쪽에 500m 정도 표시되고 있다.

한편, 『濟州邑誌』에는 7소장의 周四面이 10리 그리고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28명이 440필을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20리, 남북 10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8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4>와 같이 서귀포시의 서쪽에 위치한 舊中文面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회수동·하원동·도순동·영남동이 해당된다. 8소장은 대정현과 정의현의 경계에 해당하는 목장이었으며, 공간면적으로 볼 때 10소장보다는 다소 컸으나 말의 사육규모는 중산간 목장 중에서 가장 적었던 목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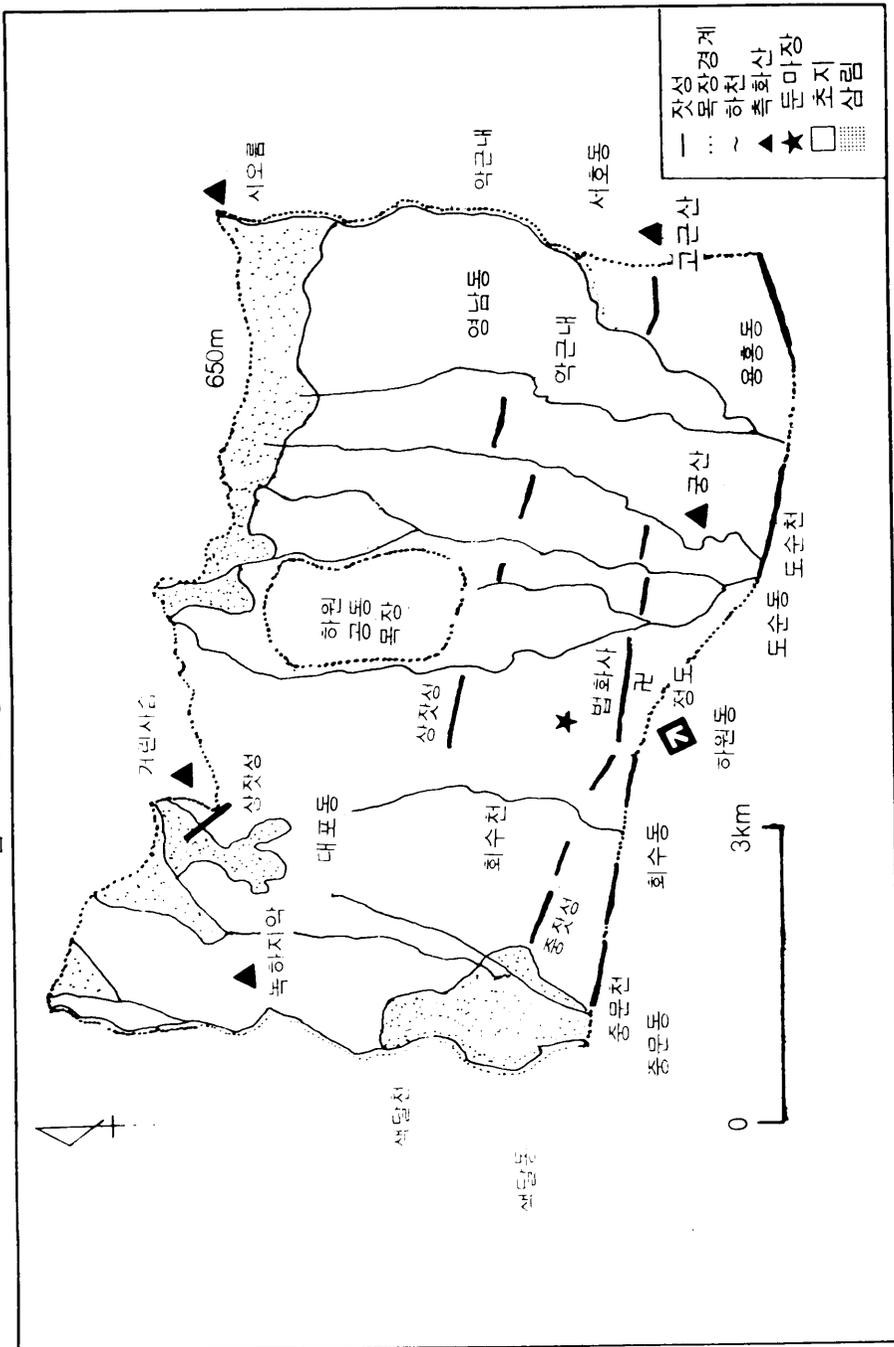
95) 양세환, 개인면담, 안덕면 상창리, 2001년 4월 1일. '정그리왓도' 하жат성은 안덕면 상창리와 목장지대를 연결하는 小路 상에 있다. 위치는 N33° 17.215' E126° 21.976' 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나무로 짜서 만든 '살채기문'(쌀문)이 있었으며, 현재 상·하창리 共同牧場 내에는 상жат성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림 13> 7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그림 14> 8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그림 14〉에 나타난 하원동과 도순동 상жат성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상жат성 중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상жат성에 해당되어 주목된다. 이렇게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상жат성이 위치한 이유는 상жат성 북쪽에 삼림지대가 형성되었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경우, 목장의 남북 범위가 축소되어야 하지만, 상жат성이 식생의 분포상태와 관련 없이 현재의 위치에 축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목지와 삼림지가 구분되고 있는 해발 600m 일대까지를 실질적인 8 소장의 공간범위로 보고자 한다. 8소장 지역에서는 완경사지가 좁게 발달하고 있는 지형적 요인 때문에 목장의 하한선인 하жат성이 촌락과 인접하여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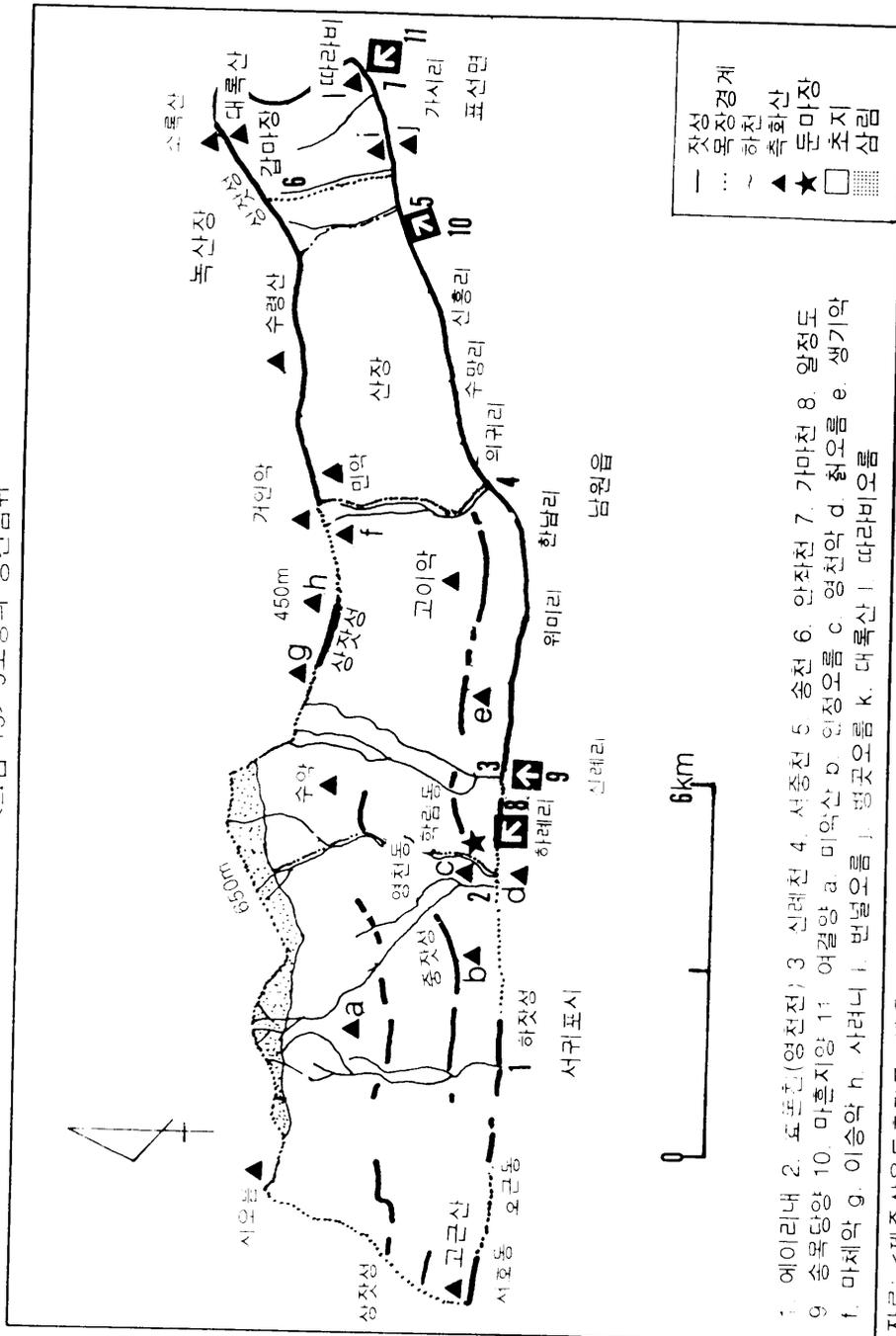
『濟州邑誌』에 의하면, 8소장은 대정현 동쪽 32리에 위치하며, 周四面이 35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군두와 목자를 합한 27명이 함께 262필을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말의 수를 가지고 볼 때,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목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15리, 남북 10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3) 정의현의 목장

9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5〉와 같이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남원읍·표선면의 중산간 지역으로,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출발하여 남원읍 하례리·한남리·수망리를 거쳐 표선면 가시리까지였다. 서쪽 경계는 8소장과 의 경계선인 고근산과 여기서 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한 시오름을 연결하는 악근천이다. 동쪽의 경계는 10소장과 의 경계선에 해당되며, 따라비오름과 대록산을 연결하는 間墻을 9소장의 동쪽 경계로 보고자 한다⁹⁸⁾. 이것은 하천을 경계로 설정할 경우 즉, 대록산에서 따라비오름을 지나 가시리로 흐르는 가마천을 9소장의 동쪽 경계로 볼 경우, 따라비 오름이 10소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소장의 동쪽 경계로는 하천보다는 오히려 현재도 남아있는 間墻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98) 따라비오름과 새끼오름 사이에는 높이 120cm×폭 80cm(N33° 23.492', E126° 45.440') 정도의 잣성이 남아 있어 9소장과 10소장의 경계선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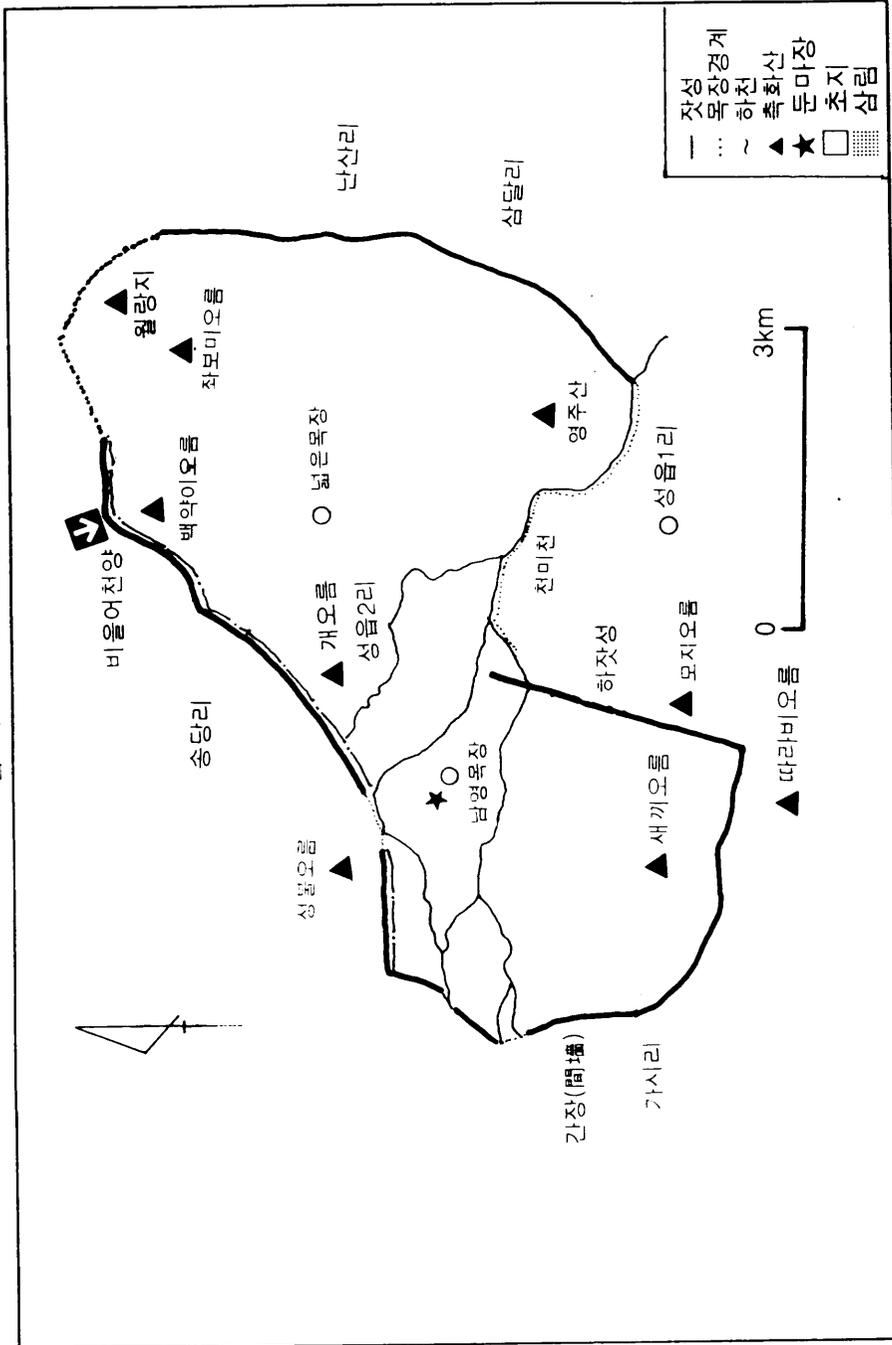
<그림 15> 9소장의 공간범위



1. 에이리내 2. 표선(영전전) 3. 신례천 4. 서중천 5. 송천 6. 안좌천 7. 가마천 8. 알정도
 9. 송목당양 10. 마흔지양 11. 여결양 a. 미악산 b. 인정오름 c. 영천악 d. 함오름 e. 생기악
 f. 마체악 g. 이승악 h. 사려니 l. 번널오름 j. 평곶오름 k. 대륙산 l. 따라비오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그림 16> 10소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 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남쪽 경계는 고근산에서 출발하여 따라비오름까지 약 25km에 해당하는 하жат성으로, 중산간의 목장 중 가장 긴 하жат성에 해당한다.

한편, 9소장의 하жат성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근거할 경우, <그림 15>에서와 같이 하жат성은 서귀포시 서호동의 고근산에서 시작하여⁹⁹⁾ 남원읍을 지나 표선면 가시리 산 62번지에 있는 따라비오름 남서쪽 가마천까지 이다. 따라서 9소장은 제주도의 하жат성 중 동·서 길이가 가장 긴 잣성에 해당된다. 이것은 9소장의 공간 범위 내에 산장과 김만일의 사설목장이 입지하였기 때문에 동·서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9소장의 공간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제주지도>(1899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귀포시 서호동의 고근산에서 시작하여 남원읍 한남리 서중천까지 약 15km의 범위를 9소장의 공간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9소장의 중심지는 屯馬場과 避雨家 및 點馬所가 있었던 남원읍 하례리 학림동으로, 고근산과 서중천의 중간지점에 입지하였다. 나머지 범위 중 서중천에서 표선면 가시리 안좌천까지는 山場 그리고 안좌천에서 가마천까지는 甲馬場(현재, 가시리 공동목장)이 위치하였다.

9소장의 하жат성은 1:25,000 지형도(NI52-9-24-2 한라산)에 부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해발 150m~140m 일대의 '숫발내' 부근에 약 800m 정도, 동홍동 지역에서는 '에이리내'를 통과하는 500m 정도의 하жат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읍과 표선면 중산간의 하жат성은 1:25,000 지형도(NI52-9-25-1 위미)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남원읍 남원리·위미리·한남리·의귀리·수망리·신흥리·신례리 그리고 표선면 가시리에 걸친 해발 150m~225m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 경계는 삼림 식생의 분포를 고려할 때, 남원읍 지역은 해발 600m 일대, 표선면 지역은 해발 400~500m 일대까지이다.

<그림 15>에서와 같이 상жат성이 해발고도가 낮은 지대에 위치했지만, 목

99) 오성찬 외(1986). 전계서. p.47. 서호동의 하жат성은 고근산 동쪽 500m 지점에 위치한 '폭남계'(해발 200~225m)에서 '바가жат도'(해발 180m)를 거쳐 고근산 앞까지 연결되었다.

장의 공간범위는 상жат성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목축이 가능한 지형조건과 초지의 분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목장의 상한선을 상жат성 이상 지역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9소장의 상жат성은 1:25,000 지형도(NI52-9-24-2 한라산)에 표시되고 있다. 서귀포시 서호동과 호근동 상жат성은¹⁰⁰⁾ 해발 300m~400m까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삼림지대 사이에 발달된 초지대에 약 2.5km 정도 존재하였다. 서홍동과 동홍동에 걸쳐있는 상жат성은 해발 360m~390m 일대인 미악산 남쪽 500m 지점에 3km 정도 존재하였다. 또한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2리(학림동 위) 상жат성은 수악 일대 830m 지점에 800m 정도 남아 있었다.

남원읍 위미1리 공동목장에 남아있는 상жат성은 이승악과 사려니를 연결하는 잣성으로, 해발 400m~420m 일대에 위치하며 길이는 1.5km 정도에 해당된다. 답사결과 꺾담으로 축조되었고, 방목지와 삼림지의 경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남원읍 수망리의 경우, 해발 340m 지점의 서중천 상류에서부터 민오름 북쪽을 거쳐¹⁰¹⁾ 물영아리(수령산) 일대까지 나타난 잣성은 상жат성이 아니라 지형도에 중жат성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첫째, 위미1리에서는 삼림지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목지가 북쪽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환경조건이지만, 이웃한 수망리의 경우는 중жат성 위에 삼림식생이 나타나지 않고 방목지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넓어졌으므로 잣성 명칭이 상жат성이 아니라 중жат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형도에서 명칭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곳의 중жат성은 남원지역의 상жат성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жат성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 상жат성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표선면 가시리의 향토지에도 소록산과 대록산 사이의 중жат성을 '웃жат성'(상жат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⁰²⁾.

『濟州邑誌』에 의하면, 9소장의 둘레는 70리로, 동서로 볼 때, 가장 넓은

100) 오성찬 외(1986). 상계서, p.46. 호근동의 상жат성은 호근리 동쪽의 '새정드르'로부터 '상애밭'을 거쳐 서호리 '빌레넷도' 서북쪽까지 연결되었다.

101) 제주도(1997). 『제주의 오름』, p.362.

102) 표선면 가시리(1988). 『가시리 향토지 가스름』, p.23.

목장이었다.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51명이 함께 51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35리, 남북 5리로 수직적인 범위보다 수평적인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10소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6〉과 같이 주로 행정구역상 표선면 성읍리 일대에 해당되었다. 〈탐라순력도〉(1702년)의 〈한라장축〉과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근거할 때, 10소장의 동쪽 경계는 영주산과 좌보미 오름을 연결하는 돌담 표시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북쪽의 경계는 성불오름과 백약이오름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선면과 구좌읍의 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남쪽의 경계는 도지오름에서 남영목장 쪽을 연결하고 있는 하жат성에 해당된다.

10소장의 하жат성을 〈한라장축〉(1702년)을 통해 보면, 따라비오름에서 출발하여 모지오름과 천미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上大路'(정의현~제주목)를 통과하여 개오름 앞까지 이어진 후, 천미천을 따라 영주산으로 이어진다. 영주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진행하여 고려말 몽고의 탐라목장이 설치되었던 수산평의 花前〔꽃앞〕과 岫山을 지나 동거문오름〔防下岳〕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10소장의 범위가 영주산에서 수산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후 1704년에 목장의 재정비 과정에 10소장의 공간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1:25,000 지형도(NI52-9-18-3 송당)에 10소장의 공간범위를 따라 나타난 돌담 표시선이 10소장의 하жат성 위치와 거의 일치되고 있어 이것이 10소장의 하жат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1:5,000 지형도 상에서 하жат성은 표선면 성읍리에 2.5km 정도 표시되어 있다.

『濟州邑誌』에 의하면, 10소장의 둘레는 40리에 해당되었다. 마감 2명의 책임 하에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104명이 함께 1,103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나 목장의 공간면적은 9소장에 비해 작았지만, 목장이 집약적으로 이용된 결과, 사육된 말의 수가 9소장 보다 많았다고 판단된다. 『耽羅故事』의 〈牧場圖形〉에는 동서 15리, 남북 10리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2. 해안목장의 공간범위

조선후기 제주도에 설치되었던 해안목장으로 대정현에 모동장, 정의현에 천미장 그리고 중산간 지역인 제주목의 1소장 내에 황태장이 있었다. 이 중에서 모동장의 공간범위는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1872년), <대정군지도>(1872년)에 <그림 17>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2)에서는 수월봉(高山)~농남봉(龍木岳)~신서악(草岳)을 연결하는 지역에 別·玄場이 나타나고 있어 別·현 목장 중 해안 부분 목장이 모동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동장의 기원을 고려할 땀꿎이 제주도의 서부지역에 설치했던 西阿幕에서 찾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¹⁰³⁾, 동일위치에서 서아막이 조선후기에 들어와 모동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모동장의 범위는 동쪽으로 7소장 밖의 안덕면 동·서광리에 발달한 '廣藪'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쪽 해안 쪽으로는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蛇鬼浦)에서부터 대정읍 일과리 西林浦까지 해당되어 모동장이 해안지역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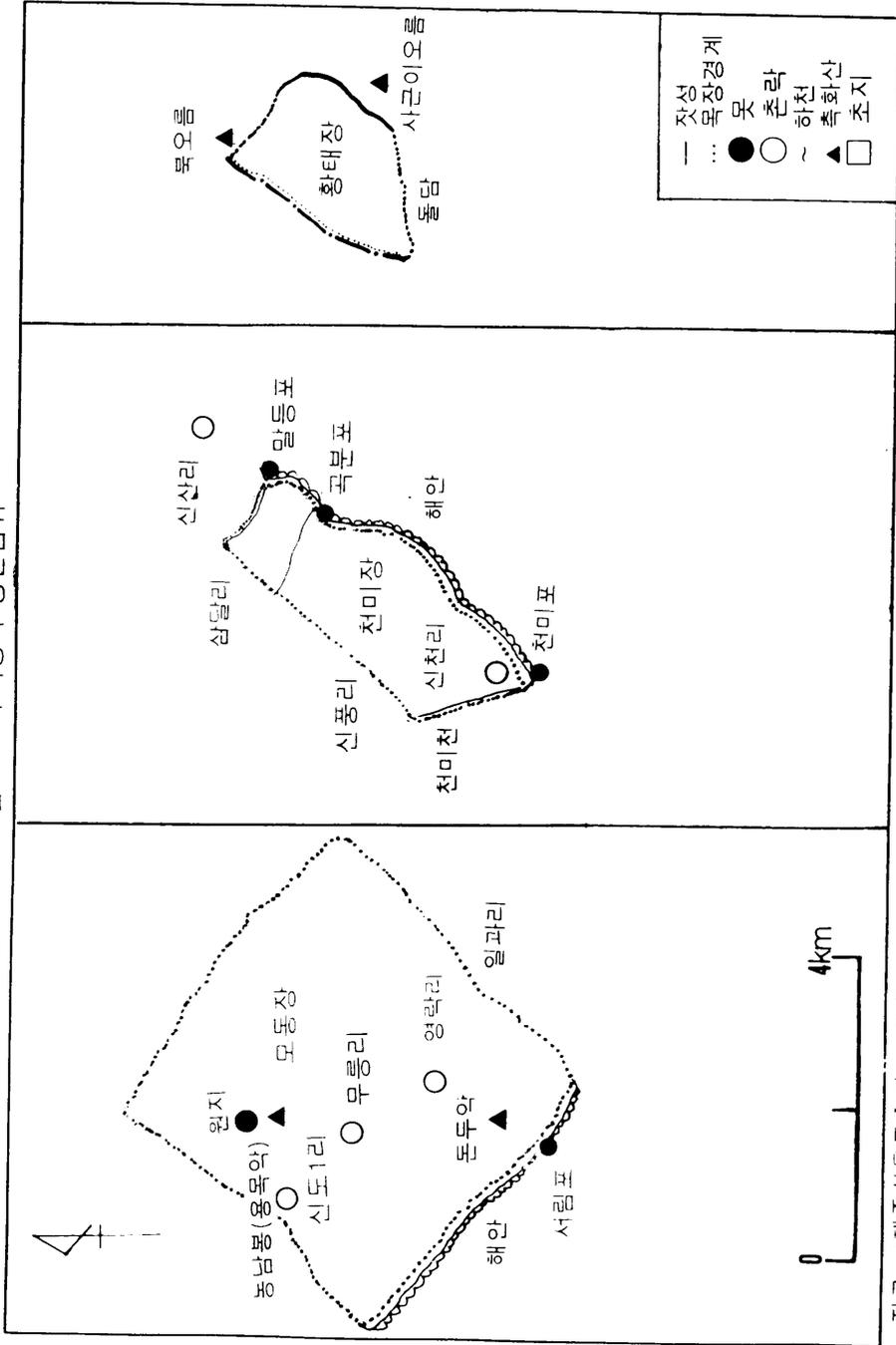
모동장 내에는 농남봉(龍木岳), 돈두악(敦垆山)이 있으며, 목장에서 방목된 소의 용수로 院池라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지는 현재 '맨츠남못'으로 불리며, 농남봉 북서쪽에 남아있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모동장으로의 출입은 '고분장도', '살채기도'를 이용하였으며, 목자들은 모동장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목지동산'에서 방목우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⁴⁾.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1872년)에는 毛洞牛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목장 내의 용목악과 돈두악 사이에 永樂里라는 촌락이 입지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촌락이 100여 년이 지난 후 설촌되어 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이때는 모동장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103) 고산향토지 발간위원회(2000). 전계서, pp. 249-250.

104) 오성찬(1992). 전계서, pp.27-28.

<그림 17> 우목장의 공간범위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지도, 1:25,000 지형도>, 현지답사를 통해 작성.

〈대정군지도〉(1899년)에서는 모동장의 명칭이 毛洞三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도리 부분이 西場, 무릉리 부분이 中場, 영락리 부분이 南場이었다고 하며, 이를 합하여 모동삼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신도 1리 농남봉 북쪽 일대만을 모동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간변화에 따라 모동장의 공간범위가 좁아졌다고 판단된다.

정의현의 남쪽 해안지역에 설치되었던 천미장의 공간범위는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지도〉(1899년), 〈대정군지도〉(1872년)에 〈그림 17〉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천미장은 천미천 하류에 위치한 성산읍 신천리의 川尾浦에서 신산리를 연결하는 해안지대에 입지하였다. 〈제주지도〉에서는 천미장이 '川尾牛場'으로 표시되고 있다. 〈제주삼읍전도〉에서는 천미장의 범위가 신천리 천미포에서 삼달리 해안의 分八浦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제주목의 1소장 내에는 황태장이 입지하였다. 황태장의 정확한 위치와 공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濟州郡邑誌』 중 〈제주지도〉에 '黃堆牛場'이 표시되고 있다. 이 지역은 북오름과 사근이오름, 체오름이 방풍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삼림이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의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 북서쪽 완경사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산간목장의 공간범위

산마장은 해발 400m 이상의 지역 즉, 삼림지대와 초지대가 공존하는 지역에 형성된 목장이었다. 영정조대에 산마장이 침장·상장·녹산장으로 공간분화된 후, 1소장과 2소장 위에는 침장과 상장이 각각 위치하였다. 그리고 9소장 위에는 녹산장이 입지하였다. 이로써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부근을 중심으로 산마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범위는 〈그림 18〉과 같으며, 이것은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에 나타난 지명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직선으로 그려진 산마장 간의 경계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산마장은 공간범위가 매우 넓었고, 삼림지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마장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산마장 중에서 침장지역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흙붉은오름(土赤岳)에서 출발하여 쌀손장을(孫長兀岳), 거친오름(荒岳), 괴편이오름(孤片岳)과 성널오름(城板岳)을 연결했던 선의 내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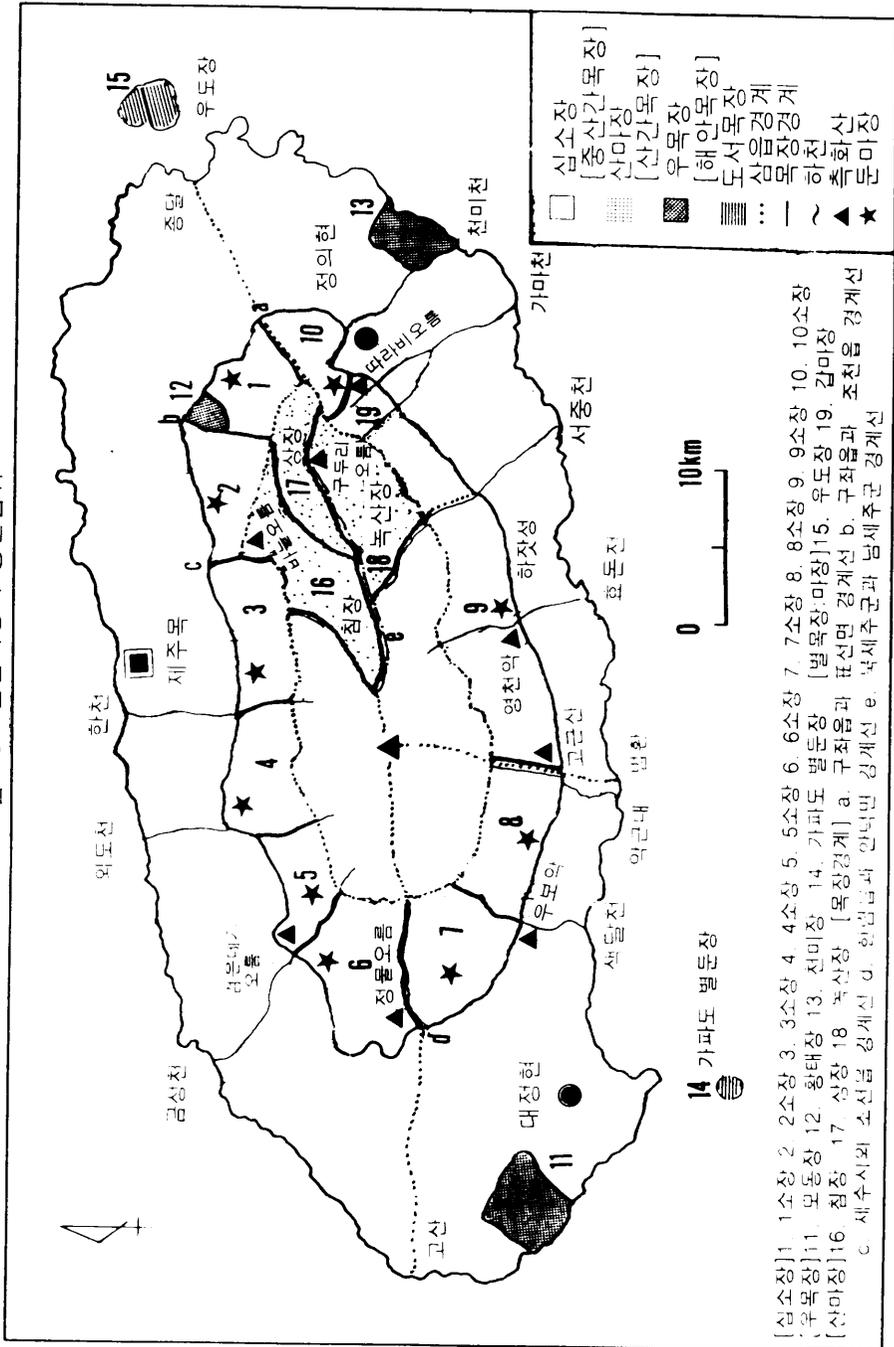
침장지역은 삼림지와 초지대로 구분되는 식생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2소장의 상한선 남쪽에 위치하였다. 특히 침장 내에는 산마장의 운영시설이 집중되었던 橋來村이 위치한 것이 특징으로, <산장구마>에 의하면, 교래촌에는 침장에서 생산·관리된 산마들을 점마할 때, 필요한 圓場과 蛇場이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침장과 상장은 모두 제주목에 포함되었던 산마장으로, 천미천의 지류가 두 산마장 간의 경계가 되고 있다.

상장지역은 1소장 남쪽 위에 분포하며, 상장의 공간범위는 해발 600m에 위치한 괴편이오름(孤片岳)에서 돛배오름(机岳)·산굼부리(山仇音夫里岳) 그리고 성불오름(成佛岩)을 연결하는 선의 내부에 해당된다. 제주목의 상장과 정의현의 녹산장과의 경계는 구두리오름 남쪽 기저부에 남아있는 잣성으로, 상잣성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상장과 녹산장의 경계용 間牆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녹산장은 정의현에 소속된 산마장으로, 김만일이 사목장을 개척했던 장소이다. 녹산장의 동·서쪽의 경계는 천미천의 지류와 서중천이 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된 관설목장의 공간범위는 <그림 19>와 같다. 이 지도는 중산간 목장인 10개의 소장별 지도와 해안목장인 우목장 및 산마장의 지도를 합하여 만든 것이며, 조선후기 제주도에 형성되었던 관설목장의 3읍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에 통해, 제주도의 목축은 크게 제주도를 2등분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산간 지대와 산간지대는 馬場으로 그리고 해안지역과 섬 지역은 牛場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안의 취락·농경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관설목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농경지보다 목축지가 넓었으며, 목장지역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초지대가 광활하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에는 유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관설목장의 공간범위



IV. 관설목장의 경관특성

1. 자연경관의 특성

제주도에서 목축이 이루어진 배경으로서의 자연경관에는 인공극상의 2차 초지대·측화산·하천·삼림지·곶자왈·화산회토·용암평원이 있다. 이들 요소는 모두 목축공간이었던 중산간 지역을 구성하는 자연경관으로, 목축업의 공간적 확대를 좌우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밖에 관설목장이 형성되었던 중산간 지역은 겨울철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아 따뜻하고, 봄철에는 풀이 무성하며 그리고 방목을 위협하는 호랑이가 없는¹⁰⁵⁾ 자연적 입지특성에 영향을 받아 목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중산간 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대체로 해발고도 200m~600m, 경사도 5~15° 를 보이는 완만한 지역이며¹⁰⁶⁾, 면적이 589.0km²로, 제주도 총면적의 32.2%에 해당한다¹⁰⁷⁾. 화산활동의 결과, 광활한 용암평원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동서부지역을 중심으로 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磊野)과 곶(洞藪, 磊林)이 혼재한 초지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설목장이 입지하였으며, 화전을 일구기도 하였다¹⁰⁸⁾. 특히, '곶자왈'은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이지만 이곳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은 우마들의 먹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風雨雪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방목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중산간 지대에는 측화산과 하천이 분포하고 있다. 측화산은 <사진 1>과 같이 목장간의 경계나 방풍의 기능 및 여름철 방목지로 활용되었으며, 그리고 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동산'이 되기도 하였다.

105) 『太宗實錄』 권 16, 태종 8년 12월 무술. "...本州地暖草肥山深無虎畜產 ...".

106) 夫萬根 外(1986), "濟州道 中山間 遊休土地의 開發·活用方案", 『社會發展研究』 제2집,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pp.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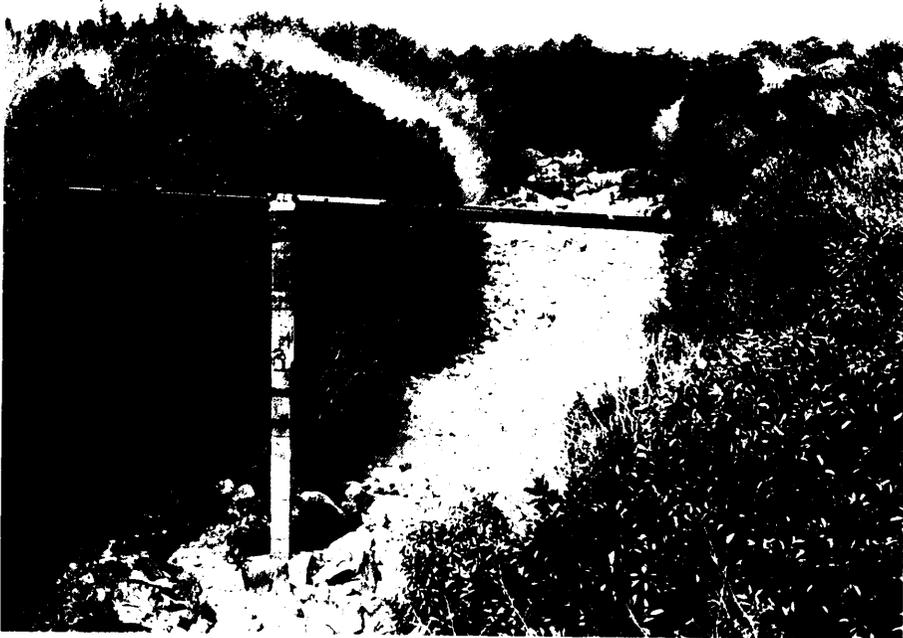
107) 제주도(1997),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pp.16-17. 중산간 지역을 고도별로 보면, 200~300m 지역이 12.7%를 차지하여 가장 넓게 분포하고, 300~400m 지역이 8.8%, 400~500m 지역이 6.4%, 500~600m 지역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108) 송성대(2000), "지리적 기초, 『北濟州郡誌』(上), 北濟州郡, pp.93-101.

〈사진 1〉 목장의 초지와 측화산 경관



〈사진 2〉 목장의 경계선으로 활용된 하천



제주도의 하천은 <사진 2>와 같이 乾川이지만, 계곡이 발달된 하천은 우마의 이동을 막아 주거나 목장을 나누는 경계선의 기능을 하였다¹⁰⁹⁾. 특히 도순천·악근천·영천천(효돈천)의 경우와 같이, 폭이 넓고 계곡발달이 현저한 산남지역의 하천들은 목장간의 경계 및 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계곡발달이 미미하여 말들의 접근이 쉬운 하천들은 하상의 불투수층에 형성된 甬水를 가축에게 식수로 공급하였다. 실례로, 정의현에 속했던 10소장의 천미천은 사행천으로, '소'라고 불리는 용수가 존재하여 가축들의 식수로 활용되었다¹¹⁰⁾.

중산간 지역의 토양은 화산회토로, 화산회토 지역이 목축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식생대는 경작지·초지군락·낙엽활엽수림·침엽수림의 순서로 수직적으로 배열되고 있다¹¹¹⁾. 이 중에서 65.8%를 차지하는 초지군락을 배경으로 목축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인문경관의 특성

1) 避雨家와 屯馬場

屯馬場과 避雨家は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경관요소였다. 경관구조는 경관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것으로, 고문헌들과 고지도를 토대로 분석한 목장의 경관요소에는 馬舍·積草場·圓場·蛇場 등을 비롯하여 목자들이 거주했던 가옥과 牧子位田·避雨家·池·梁·牧野地 등이 있었다¹¹²⁾.

109) 고광민(1998), 전개논문, 『제주도』 통권 102호, p.140., 좌승훈·좌용철, "생태계의 보고, 습지" <14>, 제민일보, 2000년 4월 11일자. 고광민은 제주도의 乾川을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형성된 '산벌른내'와 산 중턱에서 형성된 '허릿내'로 구분하였다. 산북의 漢川과 산남의 道順川 및 靈泉川이 '산벌른내'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허릿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하천들은 가축을 방목함에 있어서 돌담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방목 중인 우마들이 합부로 하천을 넘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천과 하천 사이에는 천연적인 방목지가 될 수 있었다. 에월읍 금성리의 '정짓내'(금성천)는 발원지의 위치를 따라, '산내, 목장내, 오름내'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목장내'는 흑색토 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물 색깔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110) 한라일보사, 2000, 『천미천』, 나라출판, pp.27-29.

111) 김태호(2001), "제주도의 경관생태", 『경관생태학』, 한국경관생태연구회, p.273.

112) 『成宗實錄』, 성종 24년 8월 정묘., <耽羅巡歷圖>의 <山場駒馬>, <濟州三邑都摠地圖>.

마사는 말을 위한 축사이며, 적초장은 사료를 쌓아놓는 공간인 ‘눌’ 그리고 목야지는 방목이 이루어진 초지대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우가란 둔마장의 필수적인 가옥으로, 躡雨風雪로 인하여 말들이 피폐해지는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겨울철의 風雪飢寒에 대비하여 만든 가옥으로 볼 수 있다¹¹³⁾. 목장이 위치한 중산간 지역이 기상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다우지이므로, 피우가는 필수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목하는 마필의 수를 고려하여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축사로서의 기능과 함께 목자들이 거주할 가옥으로도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둔마장은 목장의 관리본부로, 목장의 중심지였다. 둔마장은 광활한 목장에서 방목중인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피우가, 말들을 점마하기 위한 點馬所, 점마관들의 숙박 가옥(‘直舍’) 그리고 목자들이 거주했던 가옥들로 구성되었다. 둔마장이라는 용어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등장하며, 공마의 선정, 점마, 낙인 등을 위한 기능시설의 集積 空間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고지도에 나타나는 둔마장 표시가 목축기능 시설의 집적공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둔마장 표시를 기능시설의 집적공간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둔마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광활한 목장의 중심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목장의 경관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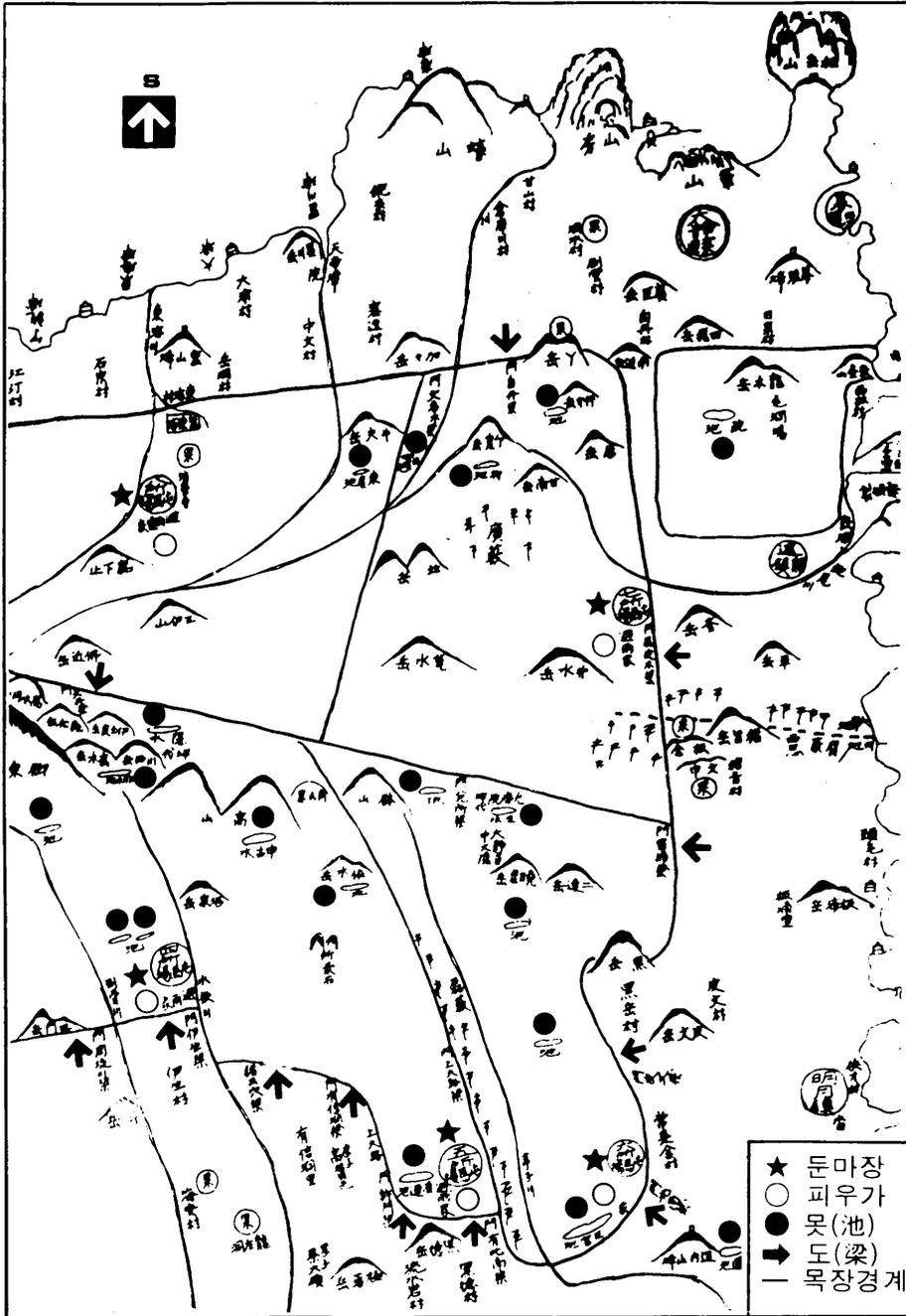
〈표 4〉 중산간 목장의 둔마장 추정지

관할지역	위치	관할지역	위치		
제주목	1소장	체오름과 안돌오름 중간	대정현	7소장	동광리 원수악과 병악 중간
	2소장	대흘리 샘이오름 아래		8소장	하원동 법회사 북쪽
	3소장	제주대학교 사범대 일대	정의현	9소장	신례2리 학림동 직사동네
	4소장	제주시 해안동 ‘주루래’		10소장	성읍리 남영목장 내
	5소장	유수암리 제주경마장 내			
	6소장	봉성리 평화목장 내			

자료: 濟州三邑都摠地圖, 濟州三縣圖, 1:25000 지형도, 현지조사에 의함.

南都泳(1996), 『韓國馬政史』를 근거로 관설목장의 경관요소를 추출하였다.
113) 『太宗實錄』, 태종7년(1407) 3월 계미.

<그림 20> 고지도에 나타난 목장의 경관요소



자료: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의 일부임.

둔마장의 입지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측화산과 우마의 식수 확보에 필수적인 하천·못(池)·甬水의 존재 그리고 배후에 방목지로 이용되는 광활한 용암평원·초지와 같은 자연요소 및 도로와 촌락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둔마장의 위치는 <그림 20>과 같이 목장의 경계가 표시된 <제주삼읍도총지도>의 위치를 지형도에 적용하여 복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1소장 둔마장의 위치는 1 소장 남쪽인 구좌읍 송당리 箕岳(체오름)과 石岳(안돌오름) 중간이다. 여기에는 피우가와 송당리에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門 및 체오름의 馬渭池가 표시되어 있다. 말들의 식수로써는 石岳의 화구 상단에 '돌오름물'¹¹⁴⁾ 및 체오름과 거친오름 사이에 '물순이못'이 있다¹¹⁵⁾.

2소장 둔마장의 위치는 2소장 서쪽인 조천읍 대흘리 세미오름(思未岳) 아래이다. 이 장소는 해발 300m의 완사면으로, 세미오름에 泉과 피우가 그리고 둔마장과 주변 촌락인 대흘리와 와산리를 연결하는 출입구인 문이 나타나고 있다. 2소장에서 둔마장의 입지선정에는 세미오름에 존재했던 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샘(泉)은 북동쪽 기슭에 보호되고 있으며, 하жат성 내부에 샘이 남아 있다¹¹⁶⁾.

한편, 2소장 둔마장 남쪽 피꼬리오름 아래에는 院洞(濟東院)이 있었다. 원동에는 普門寺가 있었으며, 원동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던 '절세미' [寺泉]이 현재도 남아있다. 또한 원동은 제주목과 정의현을 연결하는 '上大路'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가는 관리들과 주민들이 점심을 먹던(旌義員中火處) 교통취락이다. 그런데 원동에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2소장의 중심지인 둔마장으로 볼 수 없다.

3소장의 둔마장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는 소산봉(所山岳)과 조천(腮沙川), 독사천(獨子川)의 현재 위치에 근거할 때, 하жат성 위에 위치한 제주대학교 사범대 일대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14) 제주도(1997). 『제주의 오름』, p.272.

115) 제주환경운동연합 습지조사단(1999). 『제주도의 습지』 2. 온누리, p.87.

116) 제주도(1997). 전계서, p.302.

4소장 둔마장의 위치는 5소장과 의 경계선인 외도천(水鐵川) 변에 위치하고 있다. 4소장의 둔마장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는 해발 250m 일대에 위치한 제주시 해안동 하жат성 남쪽의 '주루래' 일대로 추정된다. 이 장소는 하천과 주변촌락인 제주시 해안동(伊生村)과의 접근성 조건을 갖춘 곳이며,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축산마을이다. 5소장의 둔마장은 현재의 제주경마장에 입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소에는 남쪽으로 켓물오름, 큰오름, 작은오름 그리고 동쪽에 알오름이 위치하며, 수산천이 통과하고 있다. 북쪽에는 유수암리(流水岩村)과 黑德村이 입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조건을 고려할 때, 5소장의 둔마장은 上大路를 따라 위치한 애월읍 유수암리의 許門梁(허문이도)과 5소장의 남쪽 경계 아래에 위치한 검은데기오름(黑德岳)에 인접한 장소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제주경마장 위치라고 사료된다.

6소장의 둔마장은 애월읍 어음 2리 '장삼도'(長三梁)과 봉성리 '광남도'(光南梁)의 중간지역인 현재 봉성리 평화목장(봉성리 산 67) 위치라고 판단된다. 이곳은 상대로 남쪽이며, 현존하고 있는 봉성리 '몰모릿도' 하жат성과 '광남도'의 위치 그리고 측화산으로 둘러싸인 완사면의 발달을 고려할 때, 그리고 현지답사 결과 평화목장 위치가 지리적 이점이 많아 둔마장의 최적 장소로 생각된다.

7소장 둔마장의 위치는 하жат성 내의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井水岳)의 중간지점 즉, 돌오름 일대에 발달한 초지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위치는 7소장의 서쪽 경계부분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물오름 일대는 6소장의 공간범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7소장의 둔마장 위치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제주삼읍전도>에 나타난 7소장 둔마장의 위치인 竝岳과 무악 및 원물오름(院水岳) 중간의 완경사지가 지리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곳에는 오름과 하천 그리고 음용수인 '원물'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8소장의 둔마장은 해발 220m 일대 회수천(東海川) 동쪽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하원동의 법화사에서 북쪽으로 700여m 정도 떨어진 장소로 추정된다. 이 경우, 법화사는 하жат성 위에 위치한 사찰이 된다. 또한 하жат성 아래 현재의 16번 도로 북쪽 100m 일대의 과수원 내에는(하원동 1100번지) 목사 또는 어사가 말을 점마하기 위한 점마청이(하원동1100) 있었다고 한다¹¹⁷⁾.

9소장 둔마장의 위치는 영천악과 칩오름[葛岳] 사이의 영천천(효돈천) 변에 위치하였다. 즉, 영천악과 칩오름 사이의 영천천변에 위치한 남원읍 신례2리 학림동 1697번지 일대의 直舍 동네가 해당된다. '직사동네'는 하жат성 위에 위치했으며, 마필을 점검하는 절제사 및 감목관들이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왕래하며 점마하던 곳이었다¹¹⁸⁾.

10소장 둔마장의 위치를 보면,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영주산(표선면 성읍1리 산 18)과 좌보산[좌보미오름]의 중간 즉, 영주산·개오름·좌보미오름으로 둘러싸인 현재의 넓은목장(구, 성읍목장) 부지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주삼읍전도>에는 10소장 둔마장이 9 소장의 동쪽 경계부 오름인 따라비오름(多羅非)과 개오름(盖岳) 사이의 남영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경우 10소장의 둔마장이 서쪽에 치우쳐 입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하жат성위에 위치하고 있는 남영목장을 둔마장의 위치로 보고자 한다.

2) 못(池)과 도(梁)

池(水處)란 목장에 형성된 濕地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못으로, <그림 20>에서와 같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등장하는 용어이며, <사진 3>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목자와 우마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목장의 필수적인 경관요소에 해당하며, 『濟州邑誌』에 기록된 水處라는 명칭 역시 못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뽕수지역인 중산간 지역에서 둔마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 물을 구할 수 있는 위치인가가 중요한 입지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설목장에서 우마 사육에 필수적인 못은 官屬을 동원하여 옛 못을 파거나 혹은 새로 보를 쌓아서 확보하였으며, 특히 갈수기인 가을과 겨울에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으므로, 목장 내에서 물을 저장할 계획과 함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¹¹⁹⁾.

117) 하원마을회(1999), 『하원향토지』, p.212.

118) 남원읍 하례2리(1994), 『鶴林誌』, pp.19-20.

119) 李衡祥, 『瓶窩全書』 <耽羅壯啓草>, 牛島誌編纂委員會(1996), 전게서, p.78.

〈표 5〉 소장별 못(池)의 분포

所場	濟州三邑都擲地圖		『濟州邑誌』
1	有叱木池·瑟水[비화물]·泉味岳 옆·箕山 서쪽의 馬渭池·是連岳의 池	5	4
2	末川池[말천못]·思未岳의 泉·普門의 寺泉	3	5
3	明道岩 앞의 池·三每陽 아래의 池·所山岳 아래의 池	3	5
4	여란지 북쪽의 池·거문악 남쪽의 池·장손악 서쪽의 池·四所場 屯馬場 남쪽의 池(2개)	5	11
5	非木池·申古水[신고물]·隱水坪代의 池·怪水岳 앞의 池·淮連池	5	18
6	광제원 평대 生水·鉢山 서쪽의 池·효성악[새별오름] 남쪽의 池·흑악 동쪽의 池·巨害池	5	8
7	牛夫岳 서쪽 西星池·감남악 서쪽 柳池·건근악의 池	3	-
8	牛夫岳 북쪽 東星池	1	-
9	-	-	7
10	-	-	6

자료: 濟州三邑都擲地圖, 『濟州邑誌』, 표의 수는 水處의 수임.

실례로, 제주목이 관리했던 1소장부터 6소장의 목장지역에는 〈표 5〉와 같이 못의 위치가 명칭과 함께 상세히 표시되어 있어 우마 사육에 물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육되는 말의 수는 못의 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못 주변에 목자들의 가옥이 입지 됨으로써 목마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못은 주수형태의 자연수에 해당되기도 한다. 즉, 화산 쇄설물에 기인하는 집괴암이나 응회암질 퇴적물질이 불투수층을 형성하는 지점에 생겨나는 국부적인 주수에 해당한다¹²⁰⁾. 마필 사육수가 가장 많았던 5소장과 6소장에 池의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소장별 못의 위치와 분포를 〈표 5〉에서 보면, 첫째,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의 목장지역에 26개, 대정현에 4개의 못이 분포되고 있었다.

120) 金相昊(1963), “濟州島의 自然地理”,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12.

〈사진 3〉 마을 공동목장 내의 못



〈사진 4〉 6소장의 출입구였던 長三梁의 위치



이러한 분포의 지역차는 목장에서 사육되었던 말의 수 차이와도 연관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제주목 중심으로 목장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목에서 거리가 멀었던 대정현이나 정의현의 목장지역에 분포했던 못(池)들이 지도에 표기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濟州邑誌』에서는 제주목의 목장지역에 51개의 못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북서부 지역인 4·5·6소장에 집중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는 하천발달이 빈약하고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우지이므로 못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셋째, 못들은 대체로 하천변이나 측화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천변과 측화산 일대가 방목되었던 우마들이 헛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梁이란 목장의 둘레에 설치되었던 우마와 목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목장으로 출입했던 일시적인 출입구로¹²¹⁾, ‘도’라고 불렸으며¹²²⁾, 〈제주삼읍도총지도〉에 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梁에는 필요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살채기’ 문이 있었다. 이러한 梁은 〈사진 4〉와 같이 목장과 촌락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를 지닌다. 목장으로 우마를 방목시키는 기간과 농경지에서 토양을 진압하기 위해 말들을 이동시켜올 때, 문을 일시적으로 열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말들이 농경지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아 두었다.

하жат성을 따라 하천과 도로변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중산간의 하жат성 주변에 위치한 취락들에는 ‘도’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목장의 경계선을 따라 고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도’가 마을별로 다수 존재했으며, 고지도에 나타난 梁들은 목장 주위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들만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고지도에 나타난 목장별 梁의 위치와 명칭은 〈표 6〉과 같으며, 소장별 梁의 위치와 분포 및 이용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1) 梁이란 사전적 용어로는 나무로 만든 교량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목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나무로 만든 ‘살채기’ 문을 만들어 세워 놓았기 때문에 지도에 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22) 오창명(1999), 전계서, p.390. 梁은 ‘도’의 혼독자 표시로, 출입구를 의미한다.

〈표 6〉 소장별 도(梁)의 분포

所場	濟州三邑都摠地圖(1770년대)	濟州三縣圖(1892년)
1	石山, 箕山 사이의 門·夫大岳 옆 門言巨梁	-
2	堂岳 오른쪽 門·上大路門	門思味梁·門楮木梁
3	門非乙於梁(빌어잇도: 봉개동)·門三陵梁·門加北木梁·門黑德梁·荒岳 동쪽 門□□梁	門加叱南梁(아라동 위)·門黑德梁(오등동 위)
4	門井實岩梁·門周流梁·門伊生梁	巨門文梁·門周流出梁
5	門猪出穴梁·門有信洞梁·門有叱南梁·門文丹梁·門許門梁(허문이도: 유수암리)	門猪出梁[돛난굴도: 광령리]·門有信梁[이신굴도: 광령2리]·門許門梁·門有叱南梁
6	門光南梁(광남도: 봉성리)·門皮文梁(명월리)·門軍楠梁·門兌所梁	門光南梁·門皮文梁
7	門文希木梁·門自丹梁(조단잇도)·屈皮木梁	-
8	-	門星川
9	門松木堂梁·門尔欣旨梁(마흔이므릿도)·따라비 앞의 門餘結梁	門松木堂梁(의귀리)
10	門非乙於川梁(빌어넷도)·門靑山梁	-

자료: 梁의 현재 이름은 吳昌命(1998), 전계서, pp.219-529에서 인용함.

제주목 지역에 입지한 1소장의 하жат성을 따라 설치된 梁으로는 〈그림 7〉과 같이 1소장과 10소장의 경계부근에 설치된 ‘빌어넷도’〔非乙於川梁: 송당리〕·1소장 둔마장의 문이 있었다. 비을어천양은 1소장과 2소장의 연결 통로였다.

고지도에 표시되지 못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오고 있는 ‘도’의 예로는 아부오름 남서쪽의 1소장 출입구인 ‘윤남도’, 송당목장의 구출입구인 ‘머귀남도’, 1소장의 성문이 있었던 체오름 동남쪽의 ‘성도’ 그리고 상덕천과 송당리 경계 지경에 있는 ‘문입도’가 있다¹²³⁾.

1소장에 근접한 촌락인 草庵村(송당리 돛오름 인근)·송당리·덕천리(今勿訖村) 지역의 주민들이 1소장의 梁을 통해서 목장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주민들은 목자들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保人의 역할은 물론 겨울철에 건초를 목장에 공급함으로써 목장과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목장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123)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社, pp.67-69.

2소장의 梁으로는 <그림 8>과 같이 2소장과 3소장의 서쪽 경계부근에 설치된 門上大路·2소장 둔마장의 문·부대악 인근의 1소장과 2소장의 경계부근에 설치된 言巨梁이 있었다. 문상대로는 2·3소장 목장과 상대로를 연결시켰던 문으로, 이들 목장에서 생산된 마필을 정의현과 제주목을 연결했던 상대로를 이용하여 제주목으로 운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들 양을 통해서 선흘1리(先訖村)·함덕리 윗마을(古與池村)·와산리(臥乎山里) 그리고 대흘리(大訖村) 주민들이 2소장에서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3소장의 梁으로, <그림 9>와 같이 명도암과 삼수선내(三所川) 사이의 '벌어잇도'(非乙於梁), 월평동(別羅花里)과 화북천(三陵川) 사이의 '삼릉잇도'(三陵梁), 그리고 회천동에 위치한 '폭남도'(彭木梁)가 있었다. 三每陽村과 아라동(我羅好村) 사이에는 加北木梁이 있었으며, 그리고 영평동에는 '갓남도'(罷南梁)¹²⁴, 오등동(良多時村)의 하жат성에는 '검은데깃도'(黑德梁)가 있었다. 이 梁을 이용하여 봉개동(奉蓋岳里)·용강동(上無等川村)·월평동·아라동(仁多羅村) 그리고 三每陽村·아라동·오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소장의 공간 내에서 공동으로 방목하였다.

4소장의 梁으로는 <그림 10>과 같이 한천과 정실동 사이의 하жат성에 '정실바윗도'(井實岩梁)·거문악과 외도천(倒骨川) 사이의 하жат성에 '주류넛도'(周流川梁)·4소장의 둔마장 입구의 하жат성에 '이생잇도'(伊生梁)가 있었다. 그리고 이 梁들을 통해 오라동(道內山里)·해안동 북쪽(伊生村)·해안동(海安村)·연동(延洞村)·연동(道好老村) 주민들이 4소장의 공간 내에서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5소장의 梁에는 <그림 11>과 같이 '뚫난굴도'(猪出穴梁:光令里)·'이신굴도'(有信洞梁:光令2里)·有信洞村과 流水岩村 사이에 형성된 상대로를 따라 형성된 '허문이도'(許門梁)·5소장 屯馬場 북쪽 前面의 '웃남도'(有叱南梁:今德里)·5 소장의 서쪽 경계선인 상대로 아래쪽에 上大路梁이 있었다. 그리고 5소장의 남쪽 한계선에 해당하는 만세동산(晩水同山)과 대정현 지

124) 이상의 '벌어잇도', '삼릉잇도', '갓남도' 명칭은 오창명(1998), 전계서, pp.258-268에서 인용하였다.

역의 8소장 북쪽 한계선인 佛近岳 사이에는 文丹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해발 1000m가 넘는 삼림지대에 설치된 것으로 제주목의 5소장과 대정현의 8소장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소장에 근접한 촌락인 광령2리〔有信洞里〕·유수암리〔流水岩村〕·금덕리〔黑德村〕 그리고 장전리〔長田村〕의 주민들이 이곳을 통해 목장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사마를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6소장의 梁으로는 <그림 12>와 같이 애월읍 봉성리 평화목장 서쪽의 '광남도'〔光南梁〕·어음2리 '장삼도'〔長三梁〕·한림읍 명월리 갯거리오름〔皮文岳〕 좌측의 '갯그릿도'〔皮文梁·명월리 古林洞〕·光濟院 坪代에 위치하여 6소장과 7소장을 연결해주는 兎所梁·6소장과 7소장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한 軍栢梁·한림읍 금악리의 '장통'〔125〕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능광이도'가 있다. 어음리에서 6소장으로 출입했던 '장삼도'의 위치는 <사진 4>와 같다. 특히, 한림읍 금악리의 경우, 마을 주변에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도'로는 돌오름 입구의 '소세왓도', 남북군 경계지점 즉, 6소장과 7소장의 경계 부근에 '제경도' 등 모두 11개의 도가 있었다〔126〕. 6소장에 근접한 촌락인 어음2리〔於音非里〕·상대리〔常時畝村〕·금악리〔黑岳村〕의 주민들이 6소장의 하жат성에 설치된 양들을 통해서 목장에 들어가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현 지역에 입지한 7소장의 하жат성을 따라 설치된 梁으로는 <그림 13>과 같이 釜岳 동쪽의 屈皮木梁, 안덕면 동광리의 '조단잇도'〔自丹梁〕, 그리고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加加岳〕과 하жат성이 만나는 지점에 文希

125)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8), 『한림읍지』, pp.1178-1185., '장통'이란 목장 내외에 설치된 목장시설로, 圃場이나 蛇場이 점마를 위한 목책시설인데 비해 장통은 돌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만든 시설물이다. 장통은 목장시설 또는 목장의 특정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지답사 결과 장통이 발견되는 장소는 한림읍 금악리이며, 여기에서는 '국마통, 장통'으로 불리고 있다. 장통의 형태는 원형이며, 입구는 마치 호리병식으로 되어 있다. 금악리에서 발견되는 장통의 경우, 하жат성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도 형체가 일부 남아있음을 현지주민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6소장에서 방목 중이었던 말을 하жат성에 만들어진 梁을 통해 장통으로 몰아넣은 다음 필요한 수의 말을 점마한 후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진 입구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목책이 아니라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조선시대 관설목장의 유물로 남아 있다.

126)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8), 전거서, pp.1178-1179.

木梁이 있었다. 自丹梁과 文希木梁은 해안지역의 촌락과 목장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7소장에서는 梁을 下道場〔下許門道〕, 中道場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²⁷⁾. 7소장에 만들어진 梁을 통해서 덕수리〔榭堂村〕·창천리〔倉庫川村〕·화순리〔洞水村〕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마를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8소장에는 출입구인 梁이 등장하지 않으나 이런 현상은 지도제작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목장이 위치하는 한, 목장을 왕래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실례로, 〈그림 14〉와 같이 서귀포시 하원동에는 촌락과 하жат성을 연결하는 梁을 ‘정도’¹²⁸⁾ 그리고 도순동에는 ‘산물넛도’, ‘셋넛도’ 등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삼현도〉에는 ‘베릿내’〔星川:중문천〕과 8소장이 만나는 지점에 문이 나타나 있다. 8소장에 만들어졌던 梁을 통해 중문동·대포동·회수동·하원동·도순동 주민들이 8소장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현 지역의 9소장의 하жат성을 따라 설치된 梁으로 〈그림 15〉과 같이 신례천〔狐村川〕과 하жат성이 만나는 부근에 松木堂梁이 있었다. 이것은 하례리〔狐村〕 주민들이 9소장에 출입했던 입구이다. 兎山川 변에는 ‘마흔이모룻도’〔尓欣旨梁〕이 있어 兎山村 주민들이 목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이용되었다. 따라비오름〔多羅非〕 앞에는 餘結梁이 존재했다. 남원읍 하례리에는 ‘윗마장’〔상жат성〕 출입구를 ‘웃정도’, ‘알마장’〔하жат성〕 출입구를 ‘알정도’라고 하여 梁을 ‘정도’로 표현하였다¹²⁹⁾. 특히 하례 2리 학림동에서는 영천천을 따라 ‘먹는 물도’, ‘모레기도’, ‘장냉이도’가 위치하였다. 이러한 梁을 통해서 安坐岳村〔가시리 안좌오름 마을〕·橡岳村〔가시리 초남오름 마을〕·토산리〔兎山村〕·외귀리〔衣貴村〕·수망리〔水望村〕·위미리〔又尾村〕 그리고 하례리〔狐村〕·서귀포시 상효동〔上牛屯村〕·토평동〔土坪村〕·호근동〔好近木村〕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촌락들은 비록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목장을 중심으로 공동방목권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127) 姜龍三·李京洙 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p.30.

128) 강상인, 개인면담, 서귀포시 하원동 582, 2001년 5월 10일.

129) 하례리마을회(1999), 『下禮마을』, 서울문화사, p.61.

10소장의 경계를 따라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기된 梁으로, <그림 16>과 같이 10소장과 1소장의 경계선 상에 '벌어넛도'(非乙御川梁)가 있다. 이 梁은 10소장과 1소장을 연결했던 통로였다. 1소장의 구좌읍 송당리와 10소장의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백약이오름이 두 지역민들간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백약이오름 인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非乙御川梁과 고지도에 표기되지 못한 다른 梁들을 통해 성읍1리(旌義)·성읍2리(弓山村)·수산리(首山村)의 주민들이 10소장에서 공동으로 방목한 것으로 보인다.

3) 잣성

(1) 입지특성

역사지리학에서는 현재의 지표면에 화석처럼 기능을 잃고 존재하는 '과거의 지리' 또는 과거로부터 계속 변용되면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의 지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¹³⁰⁾. 잣성 역시 '과거의 지리' 즉,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잣성은 지형도에 표시된 명칭으로, 조선시대 십소장의 상·하한선을 나타내는 유물이며, 목장의 공간범위 복원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래 '잣'이란 성을 의미하는 고어이며¹³¹⁾, 목장이라는 공간에 쌓은 성이라는 의미에서 場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³²⁾. 그런데 잣성이 공간범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하잣성에서 상잣성까지의 공간을 '하잣' 그리고 상잣성 위의 국유지를 '상잣'이라고 불렀다¹³³⁾.

성 자체로서의 잣성은 위치에 따라 해발 150m~250m 일대의 하잣성, 해발 450m~600m 일대의 상잣성 그리고 해발 350m~400m 일대의 중잣성으

130) 기쿠시 도시오(저), 윤정숙 옮김(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 p.18.

131) 南廣祐(1995), 『補訂 古語辭典』, 一潮閣, p.418.

132) 石宙明, 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p.162., 濟州道(1982), 『濟州道誌(下卷)』, p.115.

133) 松山利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정광중 옮김(1998), "濟州島の 田作農耕文化", 『濟州島研究』, 濟州島史研究會, p.116.

로 구분된다¹³⁴⁾. 하жат성은 해안의 농경지와 중산간의 방목지와 접이지에 그리고 상жат성은 중산간의 방목지와 산간의 삼림지대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하жат성은 우마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жат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凍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잣성은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 농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식생 분포를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였다.

중жат성은 19세기말 이후 하жат성과 상жат성 사이에 돌담을 쌓아 만든 것으로, 중жат성의 출현은 목축지역의 축소 및 토지이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즉, 중жат성이 설치된 이후, <그림 21>과 같이 중жат성의 하부지역을 경작할 때, 우마를 중жат성 상부지역으로 방목시키고 또 중жат성의 상부지역을 경작할 때 중жат성의 하부지역에서 방목하는 목축형태가 출현하였다. 이것은 중산간의 목축지대에 이른바 農牧交替의 방식이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¹³⁵⁾. 이러한 중жат성은 1920년대에 상жат성보다 높은 지역이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이곳에 방목이 불가능해지자 상жат성과 하жат성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¹³⁶⁾.

한편, 겨울 기간에 상жат성 지역은 적설기에 해당되므로, 하жат성과 중жат성 사이의 '低地牧場'에서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중жат성 이상의 '高地牧場'에서 우마 방목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남지역 7소장의 색달동에서 상жат성 위는 여름 방목지, 중жат성은(중жат~상жат) 봄과 가을 방목지, 하жат성 위는(하жат~중жат) 겨울 방목지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하жат성 위로는 기온이 낮아 겨울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색달동에서 상жат성 출입구는 '구남뿌리', 중жат성 출입구는 '새정도', 하жат성 출입구는 '구리남도'였으며, '정도'에는 열고 닫기 쉽게 '살채기' 문을 만들어 놓았다¹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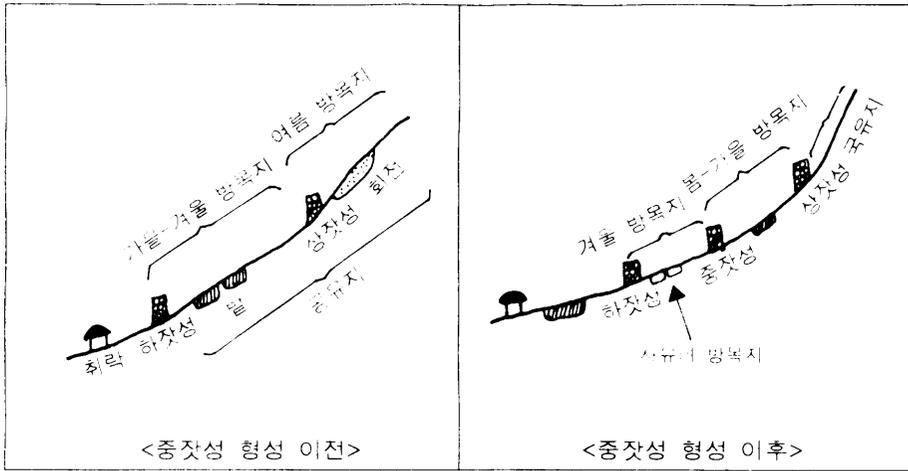
134) 김대식, 개인면담, 제주시 봉개동 316, 2001년 4월 1일. 상жат성과 중жат성 그리고 하жат성이라는 용어 이외에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주민들의 경우처럼, 목장의 경계, 특히 마을 共同牧場 간의 경계를 나타냈던 '선жат'(세로жат)이라는 용어도 있다.

135) 金相昊(1979), 전계논문, p.94.

136) 松山利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pp. 321-322.

137) 서귀포시 색달동(1996), 전계서, p.42.

<그림 21> 잣성 공간의 토지이용 모식도



자료: 松山利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p.322에서 재구성.

잣성은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순으로 형성되었다. 하잣성의 축성시기는 대체로 15세기 초반부터로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무분별한 방목으로 인해 발생했던 해안지역 농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산간 지역으로 목장을 이설하자는 高得宗의 제안(1429년)에 따라 하잣성이 중산간 지역에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하잣성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은 하잣성이 설치될 인근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徭役의 형식으로 공급받았으며, 마을별로 일정 범위를 할당하여 주민들에게 축성하도록 하였다. 잣성 축성의 예를 旌義縣의 법환리와 호근리에서 이루어진 축성장면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3군을 설치하고 목장의 잣(城 혹은 담)을 할당하여 쌓았다. 호근리 담당구간은 '각시바위' 남쪽에서 시작하여 孤根山 동편에서 끝나고, 법환리 담당구간은 고근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빌레넷도(頻來川)'까지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법환리 사람들은 모의하기를 자기들의 담당구역 안에는 성 쌓을 돌이 없으니 일하기가 곤란할 것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어둠을 틈타서 돌이 많이 쌓인 곳을 골라 경계를 넘어 못 밖으로 쌓아 버렸다...138).

138) 許垠, 『好近錄』, 吳成贊 外(1986), 제주의 마을 ④ 『好近·西好里』, 도서출판 반석, pp.60-61.

상жат성은 하жат성에 비해 늦은 시기인 18세기 후반 즉, 1780년경부터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상жат성을 만든 동기는 목장이 한라산 정상부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들이 삼림지대로 들어가 겨울에 凍死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濟州邑誌』의 기록에 근거할 경우, 1780년경에 제주목 지역의 3소장과 5소장에는 횡장이 설치되었다. 이때 횡장은 한라산 삼림(밀림)지대의 위치로 볼 때, 상жат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жат성은 3소장과 5소장에서 먼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하жат성과 상жат성은 1793년에 축성 길이가 597리로 늘어나 상·하жат성이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군마 수요가 감소하여 말의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목장의 폐장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잣성이 증설된 배경은 잣성의 보수과정에서 나타난 잣성의 확대 그리고 상жат성이 새롭게 축성된 결과로 보인다¹³⁹⁾.

한편, 1:5,000 지형도에 나타난 제주도 전지역의 잣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상жат성의 평균 해발고도는 450m, 중жат성은 350m 그리고 하жат성은 220m로, 대략 100m 간격으로 잣성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남 지역에서는 해발 150m까지도 하жат성이 위치하나, 산북 지역에서는 해발 200m 이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북 지역에 비해 산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사면이 적게 발달한 지형조건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제주시 아라동·영평동·월평동·용강동·봉개동 지역의 하жат성은 제주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жат성의 총 길이는 3.2km, 중жат성은 13km, 그리고 하жат성은 43km이다. 1:5,000 지형도에 표시된 잣성의 총 길이는 약 60km 정도의 잣성들이 환상으로 지형도에서 존재하고 있다.

둘째, 목장의 하한선인 하жат성의 위치는 제주도의 남동북부 중산간 지역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반면에 서부지역의 중산간에 위치했던 하жат성은

139) 서귀포시(1995), 『濟州啓錄』, 고서번역총람 1권, p.62. 잣성에 대한 보수는 해당 監牧處가 담당하였다. 상жат성과 하жат성이 허물어지는 대로 해당 감목처에서 수축하였다고 『濟州啓錄』에 기록되고 있다.

주변지역이 농경지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훼손이 보다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형도에 표시되지 못하였다.

셋째, 잣성이 통과하고 있는 지점들의 토지이용을 볼 경우, 임야와 마을 공동목장의 방목지 그리고 밭과 과수원이 대부분이다. 이중 밭과 과수원은 주민들에 의해 임야를 농경지로 개간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산북 지역보다는 산남 지역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형태특성

잣성의 형태적 특성은 잣성의 축조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7>과 같은 표본지점의 잣성을 답사한 결과, 하잣성과 상잣성은 일반적으로 겹담(두줄)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상잣성의 경우, 산남 지역인 서귀포시 道順洞의 상잣성과¹⁴⁰⁾ 대포동 거린사슴 상잣성, 표선면 가시리 구두리오름의 상잣성 처럼 외담 구조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잣성을 겹담 구조로 만든 이유는 하잣성이 만들어질 위치가 농경지와 인접한 방목지였기 때문에 보다 견고한 겹담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겹담 구조로 하잣성을 축조하는 데에는 많은 석재와 인력동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잣성이 촌락에 근접한 위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을 구하는 일과 인력동원이 용이하였으므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하잣성의 축조방식을 9소장에 속했던 남원읍 한남리의 하잣성을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하잣성의 동쪽 높이는 170cm, 서쪽 높이는 100cm, 폭은 100cm 가량 된다. 경사면을 이용해 잣성을 쌓았다. 동쪽은 비교적 작은 돌을 이용해 일정한 높이로 쌓아 올렸다. 서쪽은 비교적 큰 암석을 이용해 쌓고 있다. '남산동산' 절개지 부근의 하잣성은 높이 130cm, 폭 90cm 가량 된다. 밑에는 큰 암석을 이용하고 위에는 비교적 작은 암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모두 겹담에 해당된다. 잣성의 가운데 빈 공간에는 자갈 등을 집어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⁴¹⁾.

140) 서귀포시 도순동 산 56번지 N33° 16.751' E126° 28.853'(남일농장 입구)에 위치하고, 높이는 120~130cm이다. 큰 암석을 이용하여 외담으로 축조하였다.

14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000),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p.12.

〈표 7〉 표본조사한 잣성의 위치와 형태

잣성	위치	형태	높이×넓이
금악리 뚝고분도 하잣성	N33° 20.471' E126° 18.664'	겹담	150cm×100cm
상창리 징그느리잣도 하잣성	N33° 17.204' E126° 21.976'	겹담	120cm×80cm
교래리 구두리 오름 상잣성	N33° 24.785' E126° 41.254'	외담	130cm×60cm
어음2리 장삼도 하잣성	N33° 23.137' E126° 20.953'	겹담	110cm×90cm
도순동 상잣성	N33° 16.751' E126° 28.853'	외담	130cm×40cm
도순동 중잣성	N33° 16.144' E126° 28.723'	외담	120cm×30cm
도순동 하잣성	N33° 15.751' E126° 28.473'	겹담	150cm×80cm
학림동 돈드래 하잣성	N33° 17.304' E126° 36.385'	겹담	160cm×100cm
봉성리 물모릿도 하잣성	N33° 22.775' E126° 19.958'	겹담	150cm×90cm
월평동 한라목장 중잣성	N33° 26.705' E126° 35.326'	외담	80cm×70cm
가시리 대륙산 중잣성	N33° 23.458' E126° 43.326'	외담	130cm×90cm
대흘리 샘이오름 하잣성	N33° 28.539' E126° 39.995'	겹담	130cm×120cm
봉개동 민오름 상잣성	N33° 25.962' E126° 38.212'	겹담	130cm×90cm
봉개동 공동목장 중잣성	N33° 27.269' E126° 37.332'	겹담	120cm×80cm
봉개동 명도암마을내 하잣성	N33° 28.104' E126° 36.690'	겹담	120cm×60cm
월평동 월하악 하잣성	N33° 27.502' E126° 34.673'	겹담	110cm×90cm
성읍리 모지오름 하잣성	N33° 23.553' E126° 45.885'	겹담	70cm×70cm
동광리 돌오름 하잣성	N33° 19.680' E126° 19.533'	겹담	140cm×100cm

자료: 현지조사에 의함.

하잣성의 높이는 대체로 110cm~170cm, 넓이는 60cm~120cm 정도로, 축성 당시는 현재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잣성의 전형적인 겹담 형태는 조천읍 대흘리 샘이오름 하잣성과 표선면 가시리의 번널오름 하잣성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번널오름 하잣성은 〈사진 5〉와 같이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하잣성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6〉은 남원읍 위미리 공동목장 내에 위치한 하잣성으로 겹담 구조로 축장되어 있으며, 과수원 지대와 방목지대와의 경계가 되고 있다.

상잣성 역시 〈사진 7〉과 같이 겹담 구조를 보이나 서귀포시 대포동과 도순동의 경우처럼 외담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시간변화에 따라 상잣성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축성시부터 외담 구조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잣성을 외담 구조로 한 이유는 첫째, 상잣성의 위치가 해발고도가 높은 삼림지대여서 접근성이 낮고, 둘째, 촌락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력

동원이 어려웠으며, 셋째, 삼림지대 자체가 말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경계역할을 했기 때문에 겹담 구조 대신에 보다 축성이 쉬운 외담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귀포시 대포동과 도순동 상잣성의 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외담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큰 암석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중잣성은 해발 350m~400m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하잣성이나 상잣성에 비해 축조시기가 늦은 편이다. 중잣성은 상잣성 이상 지역이 공유지에서 국유지로 변화되어 이른바 '上山 올리기'라는 목축형태가¹⁴²⁾ 소멸되면서 등장한 목장유물로 보인다. <사진 8>과 같이 3소장 내의 제주시 월평동 중잣성 처럼 외담 형태로 축조된 경우가 있으나 봉개동 마을 공동목장에 위치한 중잣성 처럼 겹담인 경우도 있다¹⁴³⁾. 동일한 3소장 내에서도 중잣성을 만든 촌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잣성들은 유사한 고도를 유지하며 수평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것을 통해 잣성 축조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圓場

원장과 사장은 관설목장에 있어서 점마경관의 상징물이었다. 점마경관이란 중산간 목장과 산간목장에서 목책을 설치하는 結柵軍과 말을 몰아오는 驅馬軍을 동원하여 말들을 목장 내외에 설치된 圓場과 蛇場으로 몰아넣은 뒤, 말들의 수를 점검하는 경관으로, 목장과 鎭城 내 또는 목장 주변의 촌락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마경관은 절제사 또는 點馬別監 그리고 牧子와 주민들에 의해 창출되었다. 절제사는 봄과 가을에 지역주민들의 사둔장 및 산마장에 방목하는 말들이 진상에 합당한지 여부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점마경관은 봄과 가을철에 나타나는 계절적인 경관이었다.

142) 고희민(1998). 전계논문. p.308., 上山 올리기란 조, 고구마 등 여름 농작물 재배에 발갈이가 끝난 후 음력 6월부터 한라산 밀림지대를 지나 정상부근의 고산지대에 펼쳐진 완경사지에 방목하는 형태이다.

143) 중잣성이 상·하잣성 처럼 중산간 전역에 환상으로 설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1소장과 2소장과 6소장 그리고 10소장에서는 중잣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답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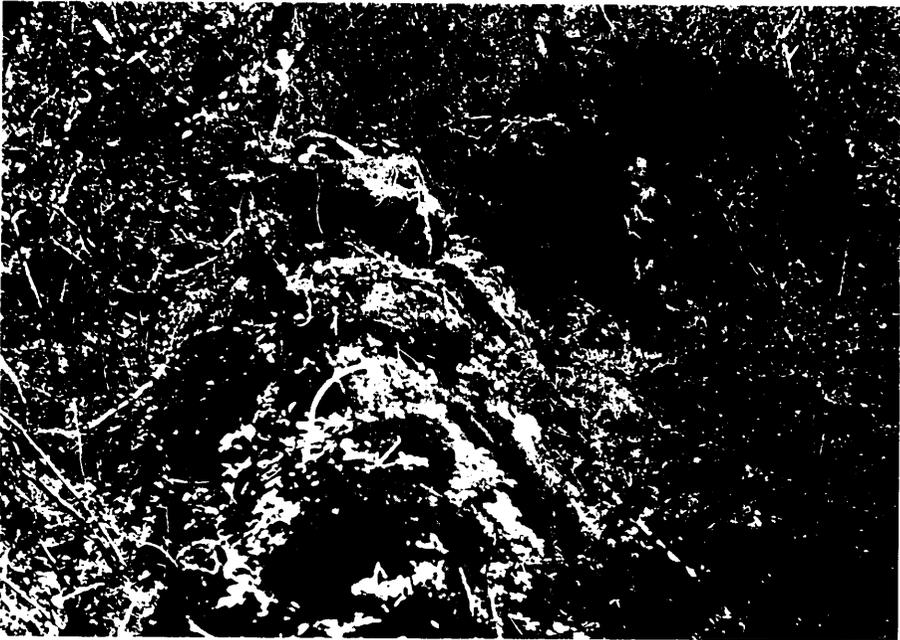
〈사진 5〉 번널오름 하жат성



〈사진 6〉 위미리 공동목장에 위치한 하жат성



〈사진 7〉 민오름(봉개동) 상잣성



〈사진 8〉 3소장의 월평동 중잣성



點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점마군이 편성되기도 하였으나, 점마에 필요한 노동력을 모두 주민들의 徭役으로 충당하였다¹⁴⁴⁾. 즉, 점마군은 場馬捕捉·環場木柵·蓄草刈積 등의 諸役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주민들은 목장의 造家積草 및 城子修築에 동원되기도 하였다¹⁴⁵⁾.

한편, 제주도 목장에서 점마경관은 繪圖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회도는 특정시기의 경관복원을 위해 역사지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자료로¹⁴⁶⁾,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와 <애월조점>, <명월조점>, <대정조점>를 통해 점마경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마장에서 이루어진 점마경관은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를 통해 알 수 있다. 산장에서의 점마는 결책군으로 하여금 산장의 둘레에 木柵을 세우는 단계, 점마가 이루어질 지점에 圓場과 蛇場을 세우는 단계, 구마군들을 동원하여 말을 원장과 사장으로 몰아 넣어 점마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말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은 원장과 사장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목장의 인문경관 요소로서의 점마경관을 대표했던 시설물이었다. 원장과 사장은 십소장과 산마장 내 그리고 십소장을 관리했던 해안지역에 입지했던 관할 진성의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원장은 말을 취합하기 위하여 만든 원형 목책이고,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 두 또는 1 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 통과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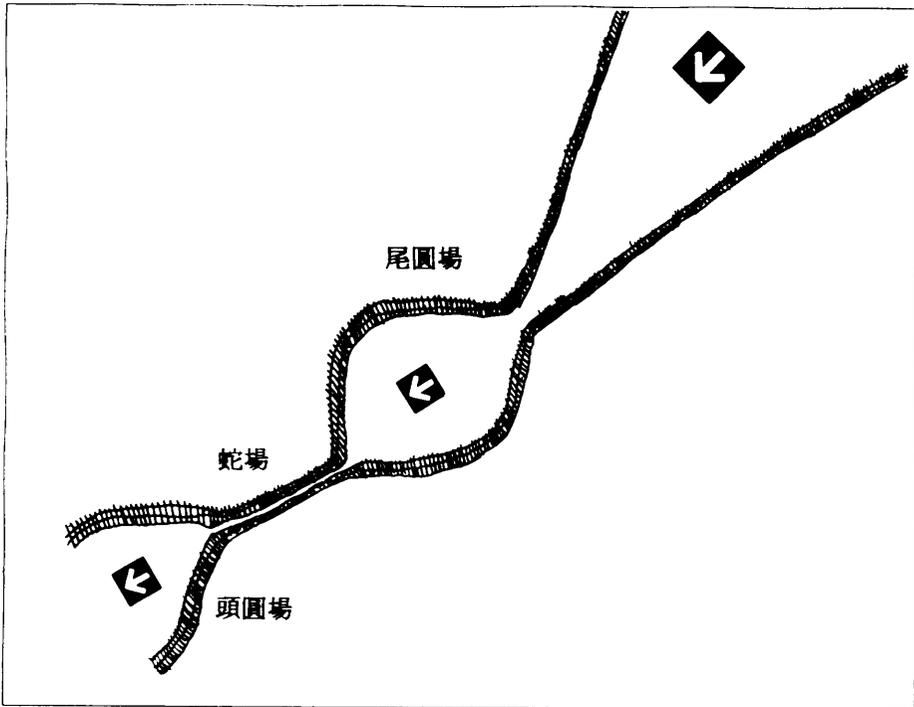
원장은 다시 <그림 22>와 같이 尾圓場과 頭圓場으로 구분되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蛇場이었다. 사장이란 명칭은 좁은 목책 통과로가 뱀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우마를 먼저 尾圓場에 몰아넣고 사장을 통해서 점검한 후에 頭圓場에서 취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장은 우마의 수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상 혹은 다른 목장으로 말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씩 붙들 수 있게 된 장치이다.

144) 徭役이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제도를 의미하며,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점마군으로 편성되어 環場木柵, 場馬捕捉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145) 김경옥(2000), 전계서, p.54.

146) 小野寺 淳(1995), “繪圖に描かれた自然環境”, 『歴史地理學』, 歴史地理學會, p.33.

<그림 22> 점마용 원장과 사장의 형태



자료: 耽羅巡歷圖(1702)의 <山場驛馬>에 나타난 원장을 재구성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 관설목장을 대상으로 관설목장의 분포와 공간적 범위 및 경관특성을 중심으로 관설목장의 경관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목장경관은 고려말 삼별초란 이후, 1276년부터 元나라가 군마 조달을 위해 수산평에 탐라목장을 설치함으로써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의 役馬·驛馬·戰馬·御乘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를 마생산지로 특화시킨 결과, 중산간 지역에 관설목장의 경관이 형성되었다.

둘째, 조선후기에 제주도의 관설목장은 크게 중산간 목장[십소장], 해안 목장[우목장], 산간목장[산마장] 그리고 도서목장[우도장, 가파도 별둔장]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취락·농경지대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목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십소장은 馬場으로, 제주목에는 1소장부터 6소장까지, 산남지역의 대정형 지역에는 7소장과 8소장이, 그리고 정의현 지역에는 9소장과 10소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우목장은 진상에 대비하기 위해 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했던 목장으로, 대정현에 모동장, 정의현에 천미장, 제주목에 황태장이 있었다. 이밖에 도서목장으로서 부속도서인 가파도에 설치된 가파도 별둔장에서는 소를 사육하였으며, 우도에는 牛島場이 설치되어 말을 사육하였다. 따라서 취락·농경지대인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목장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장지역 내에서는 개간이 금지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농경지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목장지역에 대한 개간요구를 하게 되었다.

셋째, 관설목장을 구성했던 경관요소에는 자연적 경관 요소로서 측화산, 하천, 화산회토, 2차 초지대, ‘꽃자왈’ 그리고 인문적 경관 요소로서 屯馬場과 避雨家, 池와 梁 및 圓場과 蛇場이 있었다. 이 경관 요소들은 목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시설들이며, 특히 피우가와 못(池)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기후와 지질적 특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시설물이며, 원장과 사장을 공마에 필요한 말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木柵이다. 둔마장은 목장의 중심지에 설치되었던 관리본부였다.

넷째, 관설목장 중 중산간 지역의 목장인 십소장에는 상·하한계선으로 잣성이 축조되었다. 해안지역의 농경지와 중산간 지역의 방목지와 의 경계 부근에는 하жат성이 겹담으로 만들어졌다. 하жат성은 방목 중인 우마들이 농경지에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해안지역의 농민들에게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경계선 역할을 하였다. 상жат성은 방목 중인 우마들이 한라산 밀림지대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의 초지대와 삼림지역의 경계부근에 겹담 또는 외담으로 만들어 졌다. 잣성의 축조는 목장과 인접한 해안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정 구간을 할당하여 축성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설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시대 제주도의 관설목장의 분포와 공간적 범위 등을 역사지리적 입장에서 구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장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관설목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물경관인 잣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시대의 사설목장과 현재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목장 및 기업적 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목장경관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산간 지역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목장유물인 잣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보존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른바 ‘돌문화’ 중 지식묘와 동자석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것에 비해 제주도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축성한 잣성은 문화재로 지정은 고사하고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잣성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잣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상품의 개발과 함께 장소 마케팅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주도에서도 타지역과 구별되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역사 요소로서 조선시대의 관설목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둔마장·피우가·못·잣성·도(梁)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둔마장이 입지했던 장소에 복원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물론 학생들에게 이 장소를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강민수(1999), 『제주의 조랑말』, 제주대학교 출판부.
姜龍三·李京洙 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姜昌龍 외(1997),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高昌錫 編(1995),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國立民俗博物館(1998), 『韓國의 歲時風俗Ⅱ』, 바름인쇄.
국토개발연구원(1997),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자료집』, 제주도.
기꾸시 도시오(저), 윤정숙 옮김(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희.
金奉玉(1986),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 제주문화방송.
_____(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金尙憲 著(1601~1602), 『南槎錄』, 金禧東 옮김(1992), 永嘉文化社.
金錫翼 著(1918), 金啓淵 옮김(1976), 『耽羅紀年』, 제주도교육위원회.
김선풍 외(1998), 『몽골민속현장답사기』, 민속원.
金仁顥(1997),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上)』, 宇鏞出版社.
金日宇(2000), 『高麗時代 耽羅史研究』, 新書苑.
金應鐘(1991), 『아날학과』, 민음사.
金泰能(1982), 『濟州島史論攷』, 世紀文化社.
金惠右·高時洪 譯(1994), 『高麗史耽羅錄』, 제주문화.
南都泳(1996),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박물관.
라우텐자흐(저), 김종규 외 옮김(1998), 『코리아 I』, 민음사.
民族文化推進會 옮김(1970), 『新增 東國輿地勝覽』 제38권(1530).
朴用厚(1976), 『濟州島誌』, 백영사.
北濟州郡(2000), 『北濟州郡』(上).
뿌리깊은 나무(1988), 『한국의 발견 제주도』.
서귀포시(1995), 『濟州啓錄』(1846~1884), 서귀포시 고서번역총람1권.
宋成大(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아세아문화사(1983), 『邑誌』 六 濟州道, 韓國地理叢書.

- 윤국일 옮김(1998),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창명(1999), 『제주의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 李 健 著, 金泰能 옮김(1976), 『濟州風土記』, 제주도교육위원회.
- 李基白(1992), 『韓國史新論』(新修版), 一潮閣.
- 李益泰(1696), 『知瀛錄』, 金益洙 옮김(1997), 濟州文化院.
- 李元鎭(1653), 『耽羅志』, 耽羅文化叢書(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李源祚(19세기), 『耽羅誌草本』外, 影印本(1989), 耽羅文化研究所.
- 李惠恩(1994), 『서울의 景觀變化』, 서울학연구소.
- 임동권 외(1999), 『한국의 馬민속』, 집문당.
- 『濟州大靜旌義邑誌』(正祖年間).
- 『濟州邑誌』(正祖年間).
- 제주도(1998), 『濟州史資料叢書(I)』.
- _____ (1998), 『濟州의 民俗Ⅱ』.
- _____ (1997), 『제주의 오름』.
- _____ (1982), 『濟州道誌』(下卷).
- 濟州道教育委員會(1981), 『耽羅史料志』, 濟州道教育廳.
- _____ (1976),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廳.
- 제주향교소장, 『三所廢場劃給節目』(1876).
- 제주도자연사박물관(1991),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調查報告書).
- _____ (2000),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 제주도자연사박물관 소장, 『山馬牧場新定節目』.
- 제주환경운동연합(1999), 『제주의 습지』 2. 온누리.
- 濟州大學校博物館(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濟州市-.
- _____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西歸浦市-.
- 耽羅巡歷圖研究會(2000), 『耽羅巡歷圖研究論叢』.
- 한국경관생태연구회(2001), 『경관생태학』.
- 한라일보사(2000), 『천미천』, 나라출판.

〈향토지〉

- 高山郷土誌發行委員會(2000), 『濟州 高山郷土誌』.
-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고성리지』.
- 구좌읍한동리(1997), 『둔지오름』.

남원읍 하례2리(1994), 『鶴林誌』.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1994), 『水山里誌』.
 대포마을회(2001), 『큰갯마을』.
 서귀포시 색달동(1996), 『색달마을지』.
 오성찬(외)(1986), 『제주의 마을 ④ 호근·서호리』, 반석.
 오성찬(외)(1988), 『제주의 마을 ⑦ 奉蓋里』, 반석.
 오성찬(외)(1988), 『제주의 마을 ⑧ 大靜고을』, 반석.
 우도지편찬위원회(1996), 『우도지』.
 표선면 가시리(1988), 『加時里誌 가스름』.
 하원마을회(1999), 『하원향토지』.
 하례리마을회(1999), 『下禮마을』.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9), 『한림읍지』.

〈논문〉

강만익(1993), “島嶼地方의 漁村에 관한 研究”, 『地域環境』 제11호, 東國大學校 地域環境研究所.
 고광민(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_____(1998), “牧畜技術”, 『濟州의 民俗』 II, 제주도.
 高昌錫(1984), “麗·元과 耽羅와의 關係”, 『論文集』, 제17집, 제주대.
 _____(1985), “元·明 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4호, 탐라문화연구소.
 _____(1985), “元代의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 創刊號, 제대 사학과.
 金京玉(2000), “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島嶼政策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김상호(1979), “韓國農耕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基底 農耕文化의 考察”, 『사회과학논문집』 4,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_____(1963), “濟州島의 自然地理”, 『地理學』 제1호, 대한지리학회.
 金泰能(1964),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 『제주도』 제18호, 제주도.
 南都泳(1980), “朝鮮時代의 地方馬政組織에 對한 小考”, 韓國史學會(編), 『史學研究』 18, 서울 泰東文化史.
 柳濟憲(1989), “地域歷史地理學과 文化生態學”,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朴贊植(1993), “17·8세기 濟州島 牧子の 實態”, 『濟州文化研究』.
- 宋時太(2000), “제주도 암괴상 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沈錦燮(1993), “上溪·中溪·下溪地區의 景觀變化”, 碩士論文, 동국대
- 吳洪哲(1974)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박사논문, 경희대
- 李榮培(1992), “濟州馬 烙印의 字型 調査(Ⅰ)”, 『調査研究報告書』 第7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_____ (1993), “濟州馬 烙印의 字型 調査(Ⅱ)”, 『調査研究報告書』 第8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李 燦(1979),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地理學과 地理教育』 제9집.
- 이혜은(1994), “朝鮮時代 以後 서울의 土地利用과 景觀變化”, 『서울의 景觀變化』, 서울학연구소.
- 鄭昌朝(1966), “濟州 牧野地 火入이 土壤成分에 미치는 影響”, 『牧養』 創刊號, 제주대학 축산학회.
- 陳祝三(1989), “蒙元和 濟州馬”, 吳富尹 옮김, 『耽羅文化』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 외국문헌

- D.Brooks Green(1991), 『Historical Geography』, Rowman & Littlefield.
- Mike Crang(1998),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 New York.
- William Norton(1984),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
- 樸田一二(1976),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弘詢社.
- 福井英一郎·吉野正敏 編(1984), 『氣候環境學概論』, 東京大學出版會.
- 松山利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 小野寺 淳(1995), “繪圖に描かれた自然環境”, 『歴史地理學』 No. 172.
- 泉靖一(1971),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3. 지도자료

- 〈大東輿地圖〉의 〈濟州圖〉(1861년)
『大靜郡邑誌』의 〈大靜郡地圖〉(1899년)

〈牧場地圖〉(1678년)

『濟州郡邑誌』의 〈濟州地圖〉(1899년)

〈濟州三邑都摠地圖〉(1770년대)

〈濟州三邑全圖〉(1872년)

〈濟州〉『朝鮮疆域摠圖』(1750년대)

〈耽羅巡歷圖〉(1702년)

〈耽羅地圖〉(1709년)

〈耽羅全圖〉『古地圖帖』(1700년대)

『海東地圖』의 〈濟州三縣圖〉(18세기 중기)

1: 5,000, 1: 25,000, 1: 50,000 지형도

1: 5,000 지적도(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Abstract>

A Study on landscape of government-installed
ranches in Jeju Island during the Choson Dynasty

Kang, Man-ik

Geograph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This paper is a study on landscape of government-installed ranches in Jeju Island during the Choson Dynasty(1392~1910), in view of distributional changes, spacial ranges and landscape characteristic of ranches. Government-installed ranches literally means grazing land of raising nation owned horses. It was created by nation during the Choson Dynast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Ranche landscape of Jeju Island was appeared and altered by the Won Kingdom of China. They installed Tamra ranches from 1276 at Susanpyong in East Jeju Island. At the beginning of the Choson Dynasty, as demands for post horses and fighting horses were increased. Jeju Island was specialized as a producing district for horses. Specially, in the Middle-Mountain region, the landscape of government-installed ranches was appeared as early as 15th century to the late 19th century.

2. Government-installed ranches were consisted of the Middle-Mountain ranches(Sip-sojang for horse-breeding), coast ranches(for cattle-breeding), intermountain ranches(Sanma-jang for horse-breeding at intermountain area, example, Noksan-jang, Chim-jang, Sang-jang and island ranches(example, Udo-jang, Gapado byuldun

-jang). Accordingly, the ranches were distributed on Jeju Island except from settlement and farming regions of coastal area. These ranches were operated by Gammokgwang(an officer for livestock farming), and Magam(head of Sipsojang), Gundu(head of Ja-mokjang), Gunbu and Mokja(herdsmen).

3. Natural landscape factors of ranches were consisted of adventive cones, streams, secondary grassland, 'Gotchawal' and human landscape factors were Dunmajang, houses to flee from the rain, ponds and Yang('do'), Wongjang. Specially, houses to flee from rain and ponds were facilities that reflected climatic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Mountain area. Dunmajang was the headquarters of Sipsojang.

Yang('do') was the entrance to connect the ranches with the villages. Wongjang was a wooden fence that was used for counting horses to checking the nation's horses that were present to the king.

4. Jatseong was erected as the upper and lower boundaries of Sip-sojang. Hajatseong was made from stone consisting of double lines in the boundary neighborhood of grazing land and farm land. Hajatseong was erected to prevented the invasion of farm land by cattle and horses. It was a upper line to cultivate inhabitants residing in the coastal area. Sangjatseong was established to prevented loss from freezing to death or loss horses at Halla Mountain forest belt.

5. Spacial scopes of government-installed ranches were created by visible landscape factors such as adventive cones, small streams and long Jatseong that were located in the Middle-Mountain area. These spacial ranges were important living places of herdsman and herbage of inhabitants.

6. As a symbol of Jeju Island ranches, Jatseong need systematic study and a conservation counterplan because Jatseong is impairing deeply by natural causes and social unconcern. As a method of preventing impairment to the Jatseung, provincial office of Jeju-Do must authorize the Jatseung as cultural properties and must protect Jatseung carefully.

Finally, a study of landscape about government installed ranches of Jeju island during the Chonson Dynasty will help as basic materials to explain livestock farming in regard to Jeju Island's traditional culture.

감사의 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제주도의 목장연구라는 테마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신 송성대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다양한 자료와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여 용기를 주신 손명철 교수님과 화산지형과 해안지형 답사를 통해 자연지리적 감각을 길러 주신 김태호 교수님, 도시·사회지리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컴퓨터를 활용한 지도 그리기 기법을 가르쳐 권상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제주 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의 정광중 교수님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진관훈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테우리(목동)를 경험하셨던 다음의 분들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 봉개동에 거주하시는 김대식(60세)씨는 봉개동 민오름 남쪽의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는 상жат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상жат성이 겹담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애월읍 어음리의 고을선(77세)씨는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은 어음 2리 하жат성과 '장삼도'를 직접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애월읍 봉성리의 안부일(72세), 강창준(90세), 강순호(72세)씨는 지형도에 나타나지 않은 봉성리 평화목장 인근의 '몰모릿도'와 '광남도' 그리고 봉성리 하жат성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한림읍 금악리의 안호순 씨(72세), 안덕면 상창리의 양세환 씨(56세), 조천읍 선흘 1리의 고경수 씨(71세), 남원읍 하례 2리 학림동의 고경삼 씨(62세), 대정읍 신도 1리의 김영구 씨(63세), 서귀포시 도순동의 이상준 통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친절한 안내가 있었기에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격려를 해주신 김오진, 김희선, 현경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존경하는 어머님, 논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으로 배려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영서, 그리고 처제에게도 고마운 말을 전합니다.

2001년 8월 강만의